

시정연 2003-R-25

서울시 성인지적(性認知的)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서울시 성인지적(性認知的)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신 경 희

서울시 성인지적(性認知的)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서울시 성인지적(性認知的)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Establishing Conditions for Gender-Sensitive Polici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신 경 회 •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박 민 정 • 도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양성평등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가 국제기구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양성의 상이한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는 성인지적 정책의 도입은 정책수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의 삶의 질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제도이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양성평등사회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기초작업으로써 서울시 시정이 성인지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서울시 행정여건 진단

1) 서울시의 행정여건

- 행정조직 및 제도
 - 행정조직: 2003년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정책과(복지여성국 소속)로 개편하여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또한 별정1급으로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을 신설하였음.
 - 여성정책 관련 제도: 2001년 IULA의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을 정식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됨.
- 성별통계
 - 서울시는 1999년부터 「서울여성백서」를 발행하고 있음.
-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 2001년부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평등의식 과정’ 중 성인지적 정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성인지적 예산

- 서울시 자체에서 성인지적 예산편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2002년 「서울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을 실시함.

2) 공무원의 성인지력 수준과 의식

- 공무원의 성인지력 수준과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는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알아보고 현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영향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이해도
 -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이나 법/제도에 대한 인지력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았음.
 - 대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2차조사 응답자들이 1차조사 응답자들에 비해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이나 법/제도에 대한 인지력이 높았음.
- 성인지적 정책 수행에 관한 의견
 -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한 경험과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부서가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전체의 10.6%로 매우 저조하였음. 그러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남성보다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추진 경험이 훨씬 많았음. 즉, 고위직급 여성공무원의 충원이 성인지적 정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 일반시책 추진과정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현재 서울시 부서 중 적용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4.29)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문화국, 홍보기획관, 정보화기획단, 행정국, 산업국, 언론담당관, 환경국, 재무국, 경영기획실의 순이었음.
 - 성별영향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전체의 5.0%인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 및 훈련이 확충되어야 함이 드러났음.
- 성별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의견
 -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성율이 반대율에 비해 더 높았음.
 - 정책적 측면(효과성, 형평성, 효율성)과 사회적 파급효과(삶의 질 향상, 양성평등 사회에 기여, 성인지적 정책의 확산) 측면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3. 서울시정의 성별영향평가

1) 성별영향평가틀 구성의 기본방향

- 평가목적과 범위
 - 서울시의 행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공무원들에게 성인지적 관점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학습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국제기구의 분석범위의 초점은 여성에서부터 양성(gender)으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성별영향평가의 도입단계이고 여성문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저조한 수준이므로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틀을 구성하였음.
- 평가의 주체
 - 서울시의 여성정책 관련 부서(여성정책과, 여성정책보좌관)와 부서별 공무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서울시 성별영향평가틀 구성

정책단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정책 입안· 결정	여성관련 이슈와 문제 확인	① 정책과 관련한 성별 정보 확보와 활용 수준 ② 여성단체나 젠더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정도
	여성관련 목표와 예측	③ 여성관련 목표 설정 여부 ④ 성과지표에 여성관련 성과지표 설정 여부 ⑤ 정책결정에 여성 참여 수준
정책 집행	정책전달	⑥ 정책 홍보에 여성대상집단 포함 여부 ⑦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정도
	예산과 인력	⑧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수준 ⑨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수준
정책 평가	성과달성	⑩ 여성관련 성과목표 달성도 ⑪ 여성능력향상, 사회참여, 성평등에 미친 영향
	평가결과의 환류	⑫ 평가결과의 활용과 확산, 향후 정책 환류를 위한 조치의 시행 여부

3) 서울시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사례

- 문화국 체육청소년과의 대안교육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방법: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관련 분야 실무자 심층면접조사, 대안학교 교사 간담회, 대안학교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평가결과

정책단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정책 입안 · 결정	여성관련 이슈와 문제 확인	- 성별통계 및 정보 확보를 하지 못하였으며, 여학생의 특수한 문제와 경험을 고려하지 않았음 - 젠더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수렴도 없었음.
	여성관련 목표와 예측	- 여성관련 목표 설정이 없었고, 그 때문에 성과지표도 없음. - 정책결정에 여성 참여 비율은 23%임.
정책 집행	정책전달	- 대안학교별 사업홍보를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대안교육센터가 지원하고 있음. 여성 관련 홍보는 고려되지 않음. -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으로 기업체(인턴십 커리큘럼), 의료기관(소녀클리닉), 공공기관(청소년문화센터의 양성평등과 성교육)의 연계협조를 얻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지원이 미미하여 한시적으로 일부학교에서만 추진된다는 한계를 가짐.
	예산과 인력	-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수준: 여성 관련 예산 항목은 없음. - 대안교육센터나 대안학교 실무자의 양성평등의식이나 성인지수준은 높음. 그러나 서울시 실무자의 성인지 수준은 낮음.
정책 평가	성과달성	- 대안교육사업에 여성과 관련된 성과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계획상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측정할 수 없음. 그러나 학생 성비구성으로 평가하면 여학생의 비율이 50%를 넘어 여성 관련 성과달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면서, 능력향상, 자신감과 자존감, 성평등 의식 확산에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대안학교 재학기간이 길수록, 여학생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대안교육사업이 양성평등적이면서 여성친화적 성과를 거둔 이유는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들의 성인지적 수준이 높은 것과 학생 개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교육체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제안점
 - 임신과 출산, 성매매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러한 경험 때문에 새로운 학업 기회 접근성이 열악한 10대 여성을 고려한 대안교육사업이 필요함.

- 대안교육사업 예산에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보급을 위한 예산항목이 편성되어야 함.
- 서울시 여성정책과에서는 10대 미혼모와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교육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대안학교 여학생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성평등교육사업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양성평등적 사업성과를 위해서는 사업 실무자의 양성평등의식과 상향식(bottom-up) 의사전달이 가능한 교육체제가 중요함.

II. 정책 제안

1. 제도 및 행정조직 정비

1)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항 포함

- 필요성
 -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정책의 성별분석,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내용
 -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주요정책추진실적의 평가)를 **(정책의 분석과 평가 등)**으로 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수정함. 기존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① 시장은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정책에 대해 당해 정책이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목표관리제나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함.
- 추진방법
 - 1단계: 여성정책과에서 서울시여성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자문과 의견을 수렴함.
 - 2단계: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위원회에서 결정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2) 성과주의 예산 및 심사평가제도에 성인지적 항목 첨가

○ 필요성

- 성인지적 시정운영이 실제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하는 각 부서에서 정책입안부터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계획서 또는 심사평가보고서 작성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과 항목이 포함되고 이것이 평가에 고려된다면 단기간내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추진방법

- 1단계: 복지여성정책보좌관, 여성정책과에서 심사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성과계획서와 심사평가제도에 성인지적 항목을 첨가하는 방안에 대한 협동 연구와 업무협의를 함. ‘서울특별시기획및심사평가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에 성인지적 관련항목을 첨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 2단계: 여성정책과는 심사평가담당관의 협력하에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계획서와 심사평가보고서 작성에 성인지적 항목을 첨가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함. 교육내용은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작성하도록 함.

3) 성인지 정책 지원팀 설치

○ 필요성

- 성인지적 시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함.
- 대다수의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는 생소한 개념인데 반해 정책전반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은 향후 여성정책의 주요 방향이 될 것이므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행정조직이 필요함.

○ 추진방법

- 성인지 정책 지원팀은 집행기관의 역할보다는 성인지적 정책수립을 위한 지원과 조정,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따라서 여성·복지정책보좌관 하에 젠더 전문가가 포함된 성인지 정책 지원분석팀을 구성하도록 함.

4) 여성정책부서 경력 통로화

- 필요성
 - 여성정책 관련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수준이 높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향후 여성정책과 업무 중 부서간 조정 및 연계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므로 여성정책부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여성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협조와 역할 또한 주요해 질 것임. 따라서 여성정책과를 핵심적인 경력 통로화로 만들어 남성공무원의 선호도가 낮은 여성정책과의 근무를 유도함.
- 추진방법
 - 여성복지정책보좌관, 여성복지국장은 인사과와 협의하여 여성정책과 근무를 유도하는 인사관련상의 제반 방안을 강구함.

2. 성별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1) 원자료의 성별통계 생산

- 필요성
 - 성인지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성별로 분리한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함.
 - 각 부서별로 생산되는 원자료를 성별 분리 통계자료로 작성하고, 서울통계연보를 비롯해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통계자료집에 성별로 분리한 통계자료를 수록함.
- 추진방법
 - 여성정책과는 서울시 각 부서별로 산출되는 원자료와 서울시 발간 통계자료집을 중심으로 성별 분리 통계 작성현황을 분석하고, 성별 분리 통계 작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에 성별통계 작성을 권고함. 이를 위한 연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함.
 - 여성정책과는 서울시 성별 분리 통계의 작성과 통계자료집 발간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담당관과 협의함.

2) 서울여성백서의 성별통계 자료 수록 강화

○ 필요성

-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해 서울시 정책 각 분야와 관련하여 성별통계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업무는 여성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정책과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어 인지도가 높아진 여성백서를 적극 활용하여 성별통계자료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실천성을 높일 수 있음.

○ 추진방법

- 1단계: 여성정책과는 서울여성백서의 향후 편집방향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하고, 자문팀에서 도출된 편집방향과 구성체제안을 서울시여성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받음.
- 2단계: 여성정책과는 2004년 발행될 서울여성백서에 수록할 성별통계자료 항목을 선정함. 필요한 경우 항목 선정을 위한 전문가자문팀을 구성함.

3) 성별영향평가 연구 축적과 홍보책자 발간

○ 필요성

-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나 시민들이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이해하는 것이 요구됨. 이를 위해 성인지적 사고와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함.
- 서울시 공무원의 9.6%만이 소속부서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책이 무엇이며 시책에 성별영향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됨.
- 공무원이나 시민이 성별영향평가를 이해하고 향후 정책형성에 평가결과를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축적하고,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용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방법

- 1단계: 2004-2007년 4개년 계획으로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함. 여성정책과는 연구위탁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위탁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한편 공무원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04년에는 복지여

성국, 문화국, 홍보기획관, 2005년에는 정보화기획단, 행정국, 산업국, 언론담당관, 2006년에는 환경국, 재무국, 경영기획실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 2007년에는 3년간 축적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일반, 또는 분야별로 적용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하고, 공무원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발간함. 그리고 3년간의 성별영향평가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들이 정책에 환류되었는가에 대한 정책 평가함.

- 2단계: 2008년부터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의 성인지정책지원분석팀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사업별 성별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함.

3. 성인지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와 강화

○ 필요성

- 성인지적 시정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수립과 집행의 핵심에 있는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수준과 관심도임.
- 서울시 공무원의 성인지력 수준은 낮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제도 도입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평등의식과정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공무원들은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하였음. 그리고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는데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인지적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의 확대와 강화로 공무원의 성인지력을 높이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남성이면서 연령층이 높은 공무원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부정적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
-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성인지적 정책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나 일반인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

○ 추진방법

- 1단계: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서울시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정책,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을 의뢰함. 여성정

책과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평등의식 교과목과 교육과정에 개발한 커리큘럼을 반영하도록 서울시 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함.

- 2단계: 평등의식교육과정 외에 5급 이상 남성공무원, 여성정책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정책관련 전문과정을 개설함. 여성정책과는 교육참여 유도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국 인사과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3단계: 서울여성재단은 시민단체 종사자들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관련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학 강좌에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함.

4. 성별영향평가 실시 방식

1) 평가대상 사업부서의 평가참여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형성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의 학습, 정보제공을 들 수 있음.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공무원들의 학습기회 및 정보제공의 극대화,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 평가 대상 사업부서의 공무원을 평가 전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
-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해당 부서 공무원을 참여시키고,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평가결과의 향후 사업환류 논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함.
- 여성정책과는 외부 전문기관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면서, 평가과정에 해당사업 부서 공무원들이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함.

2) 성별영향평가 실시단계와 실시 주체

-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시기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의 32.1%는 2-3년 후, 30.4%는 4~5년 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음.
- 행정여건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2004-2008년 초기단계에서는 여성정책과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내부관리유형 방식으로 추진함. 초기단계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연구의 축적, 평가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증진과 확산, 평가지표에 대한 협의와 정교화된 평가모형 개발을 함.

- 2009년부터는 성분석지원팀(신설 필요)의 지원을 받아 부서별로 정책입안에서부터 정책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하도록 함.
- 2010년에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사업에 대한 시상과 홍보, 실무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사업을 함.

목 차

제 I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 2 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
제 3 절 용어의 정의	5
제 II 장 성인지적 정책의 발전 및 행정환경 요건	11
제 1 절 성인지적 정책의 발전과정과 기대효과	11
1. 성인지적 정책의 개념과 발전	11
2.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3
제 2 절 성인지적 정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환경 요건	14
1. 정책기구의 설치	15
2. 성별 분리 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16
3. 성별영향평가 실시	17
4. 성인지적 예산 편성	18
5.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19
제 3 절 성별영향평가 분석틀의 유형과 구성체제	20
1.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20
2. 성별영향평가 분석 사례	29
3. 외국의 사례	34
제 III 장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서울시 행정여건진단	41
제 1 절 서울시의 행정여건	41
1. 행정조직 및 제도	41
2. 성별 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44

제 2 절 공무원의 성인지력 수준과 의식	47
1. 조사개요	47
2. 성인지적 정책의 이해도	55
3. 성인지정책 수행에 관한 의견	61
4.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75
5. 정책적 시사점	79
제 IV 장 서울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85
제 1 절 성별영향평가틀 구성의 기본방향	85
1. 평가 목적과 평가 범위	85
2. 평가기준	87
3. 평가의 주체	87
4. 평가의 측정	88
5. 평가 시기	88
제 2 절 서울시 성별영향평가틀 구성	89
1. 정책과정 단계별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89
2. 평가 판단을 위한 지침	91
제 3 절 서울시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사례	94
1. 서울시 대안교육사업 개요	94
2. 평가 방법	96
3. 평가 결과	98
제 4 절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제안점	121
1. 10대 여성 임신, 출산, 성매매 경험을 고려한 대안교육사업 필요	121
2.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	122
3. 여성정책과의 대안교육사업 지원사항	122
4. 사업실무자의 성인지력 및 상향식 의사소통의 중요성	123

제 V 장 정책 제안	127
제 1 절 제도 및 행정 조직 정비	127
1.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항 포함	127
2. 성과주의 예산 및 심사평가제도에 성인지적 항목 첨가	128
3. 성인지 정책 지원팀 설치	128
4. 여성정책부서 경력 통로화	129
제 2 절 성별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129
1. 원자료의 성별 통계 생산	129
2. 서울여성백서의 성별통계 자료 수록 강화	130
3. 성별영향평가 연구 축적과 홍보 책자 발간	131
제 3 절 공무원 성인지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132
제 4 절 성별영향평가 실시 방식	133
1. 평가대상 사업부서의 평가 참여	133
2. 성별영향평가 실시단계와 실시 주체	133
참 고 문 헌	137
부록 1 공무원대상 1·2차조사 설문지	147
부록 2 서울시대안학교재학생 설문지	154
부록 3 공무원대상 조사결과표	156
부록 4 대안학교재학생 조사결과표	161

표 목 차

<표 2-1> WID 접근과 GAD 접근 비교	12
<표 2-2> Harvard 분석틀의 구성	21
<표 2-3> Moser 분석틀의 구성	22
<표 2-4> GAM 분석틀	23
<표 2-5> Longwe의 분석틀	24
<표 2-6> CVA 분석틀	26
<표 2-7> POP 분석틀	27
<표 2-8> 사회관계적 접근 분석틀	29
<표 2-9> 캐나다의 성 분석틀	31
<표 2-10> 뉴질랜드의 성 분석틀	32
<표 2-11> 김재인의 성 분석틀	34
<표 2-12> 각국의 성인지적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담당 기구	35
<표 3-1> 여성정책담당부서 인력현황(2003. 1)	42
<표 3-2>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 제도 구성	44
<표 3-3> 2002 서울시 여성정책 성과목표별 예산 및 구성	47
<표 3-4> 표본설계 및 회수율	48
<표 3-5> 1차조사의 직군별, 직급별 표본수	49
<표 3-6> 인구사회학적 특성	51
<표 3-7> 1차조사의 부서별 표본수	52
<표 3-8> 영역별 지표 및 척도	53
<표 3-9> 영역별 지표의 신뢰도	54
<표 3-10>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해 들어본 경험	55
<표 3-11>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 정도 평균비교	56
<표 3-12>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 경로	58
<표 3-13> 관련 법/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	59
<표 3-14>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평균비교	60
<표 3-15>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추진 경험 유무	61
<표 3-16> 성별/직급별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 경험 유무	62

<표 3-17> 부서별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명	62
<표 3-18>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효과	64
<표 3-19> 성별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	65
<표 3-20>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 유무	65
<표 3-21>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명	66
<표 3-22>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	68
<표 3-23>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의 평균비교	69
<표 3-24> 여성관련 부서 재임경험별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69
<표 3-25>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시 가장 큰 애로점	70
<표 3-26> 전문가 및 타부서의 개입이 적절한 단계(복수응답)	71
<표 3-27> 시책추진과정에서 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비교	72
<표 3-28> 현 서울시 부서에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적용 가능성 평균비교	73
<표 3-29>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	74
<표 3-30>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75
<표 3-31>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평균비교	76
<표 3-32> 여성관련부서 재임경험별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76
<표 3-33>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적당한 도입시기	77
<표 3-34> 적절한 평가주체(복수응답)	78
<표 3-35>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평균비교	79
<표 4-1> 서울시정의 성별영향평가틀	91
<표 4-2> 향후 2004-2006년 서울시 대안교육사업계획	95
<표 4-3> 대안학교 교육내용	96
<표 4-4> 평가영역별 평가방법	98
<표 4-5> 2001년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중도탈락 청소년 통계자료	99
<표 4-6> 2002년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중도탈락 청소년 통계자료	99
<표 4-7>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중단 학생 관련 통계자료	100
<표 4-8> 서울시 제적·중퇴 및 휴학 학생수	101
<표 4-9> 서울시 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과정	104
<표 4-10> 대안학교 재학생의 특성	112

<표 4-11> 성별 성과지표 달성 관련 의견	113
<표 4-12> 성별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관련 의견	113
<표 4-13> 재학기간별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관련 의견	114
<표 4-14> 성 통제시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에 대한 재학기간별 비교 ·	114
<표 4-15> 재학기간별 자신감과 자존심 향상에 대한 의견	115
<표 4-16> 성별 성평등 관련 의견	115
<표 4-17> 재학기간별 성평등 관련 의견	116
<표 4-18> 재학기간 통제시 성평등 기회 제공에 대한 성별 비교	116
<표 4-19> 성 통제시 성평등 기회제공에 대한 재학기간별 비교	116
<표 4-20> 성 통제시 성평등 의식에 대한 재학기간별 비교	117
<표 4-21> 평가결과 개요	119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 및 연구방법	5
<그림 2-1> 정책발달/분석 사이클	30
<그림 3-1> 자료처리 과정	49
<그림 3-2>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정도	57
<그림 3-3>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	68
<그림 3-4> 현 서울시 부서에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적용 가능성 ·	73
<그림 3-5>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75

第 I 章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 3 절 용어의 정의

제 I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국가나 한 지역의 경쟁력 및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UN을 필두로 하여, OECD, ILO, APEC, IULA(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등의 세계기구에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에서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전략의 하나로 성인지적 정책(gender sensitive policies)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정책과정에 성 관점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과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정책 전반의 성 관점 도입을 위해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성별통계 구축,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연맹(IULA)의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 선언문'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운영의 모든 분야에 남녀평등 개념이 주류가 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활동 등에 남녀평등 개념을 통합하고,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모든 정책 전반에 양성의 상이한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는 성인지적 정책의 도입은 정책수혜자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양성의 삶의 질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인지적 정책 도입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기반조성과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양성평등사회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기초작업으로써 서울시 시정이 성인지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성인지적 서울시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첫째, 성인지적 정책의 개념과 발전,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정책환경조건 등에 대한 이론연구 및 외국사례를 정리하였다.

둘째, 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서울시 행정환경여건에 대한 현황과 진단을 행정조직, 제도, 성별통계 및 연구자료, 공무원 성인지력 수준과 교육훈련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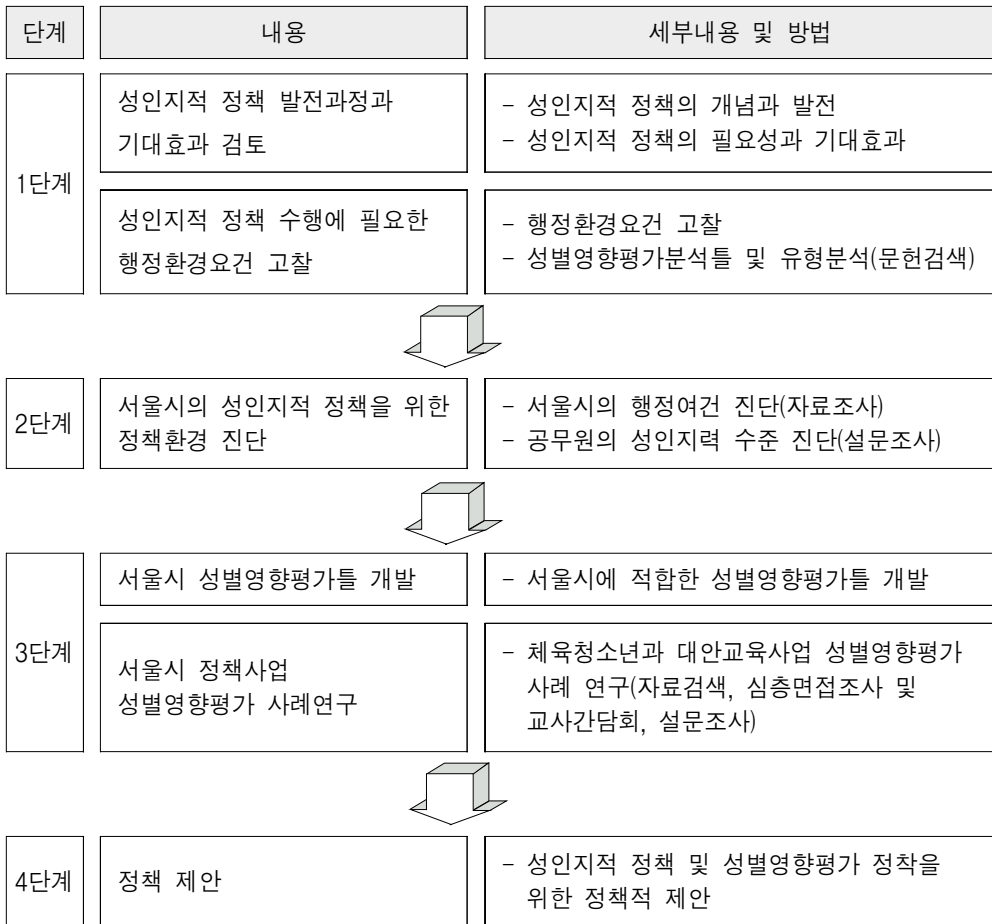
셋째, 서울시정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틀을 개발하고 이 평가틀에 근거하여 서울시 사업을 사례로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 보았다.

넷째, 성인지적 정책 기반조성 방안에 대해 행정조직과 제도, 공무원 교육, 성별영향평가실시와 관련된 지침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의 성인지적 정책 관련 이론연구는 문헌연구와 해외사례연구를 하였다. 해외사례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3장의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서울시 행정환경여건 진단은 문헌연구 및 행정내부자료를 활용하였고,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 설문조사와 서울시 성별영향평가틀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였다. 4장의 서울시 정책사업 성별영향평가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대안학교센터 실무자, 대안학교 교사 심층면접조사를 하였고,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연구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체계 및 연구방법

제 3 절 용어의 정의

□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

생물학적 성은 염색체, 재생산, 호르몬 등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불변의 것으로서, 출생순간부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다. 반면, 사회적 성은 사회 속에서 규정되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에 따라 여성 및 남성의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다. 사회적 성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포함하는데, 이는 남성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여성이 수행하는 것보다 높이 평가됨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은 불평등을 재생산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이라 함은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

□ 성인지적 정책(性認知的 政策, Gender Sensitive Policies)

성인지적 정책이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의 경험과 요구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평가에 양성의 경험과 특성,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의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듯이, 성을 정책의 중요한 준거로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형평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혹은 성 분석, Gender Analysis)

성별영향평가 혹은 성 분석이란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정책분석 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프로그램, 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과 남성간 관계의 특성, 차별적인 사회적 현실, 삶의 기대, 경제적 환경에 대해 인식하면서 정책을 착수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평가 및 분석은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 법이 양성에게 똑같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즉 성 중립적(gender-neutral)이라는 가정에 도전한다.¹⁾ 즉, 성인지적 정책의 실천수준을 파악하거나 측정하는 정책평가 도구 혹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평등성(Equality)과 형평성(Equity)

평등성은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양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력 및 참여를 보장받고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평성은 여성과 남성이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가 공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형평성은 양성이 평등해지

1) www.swc-cfc.gc.ca/pubs/gbaguide/gbaguide_e.html

는 과정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고려하고 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별로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²⁾

형평성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되어가는 과정이고, 평등성은 양성이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평성이 평등성의 전인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³⁾

□ 성별 요구(Gender Needs)⁴⁾

성별 요구는 실질적 요구(practical needs)와 전략적 요구(strategic needs)로 구분된다. 실질적 요구란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요구로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상수도나 가족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모성보호나 육아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이에 포함된다.

반면, 전략적 요구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그와 같은 종속적 위치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동일 임금,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되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부담 경감, 재산의 소유권이나 신용에 대한 접근권, 정치에서의 평등, 균등한 고용기회 등과 관련된 요구를 포함한다.

2) www.mwa.govt.nz/site.old/pub/gender/whtga.html

3) www.swc-cfc.gc.ca/pubs/gbaguide/gbaguide_e.html

4) Molyneux(1985), Mobilization Without Emancipation?: Women's Interests, the State, and Revolution in Nicaragua, *Feminist Studies*, 11, Summer: pp.227-253., 김양희(200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 쟁점,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p.9. 재인용.

第 II 章

성인지적 정책의 발전 및 행정환경 요건

- 제 1 절 성인지적 정책의 발전과정과 기대효과
- 제 2 절 성인지적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환경 요건
- 제 3 절 성별영향평가 분석틀의 유형과 구성체제

제 II 장 성인지적 정책의 발전 및 행정환경 요건

제 1 절 성인지적 정책의 발전과정과 기대효과

1. 성인지적 정책의 개념과 발전

1976년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열린 유엔인간거주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에서 성인지적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이라는 공적 영역의 패러다임 속으로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성인지적 정책의 접근방식, 즉 개념발전은 WID(Women in Development, 여성중심적 접근)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 성인지적 접근)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 초 보즈럽(Boserup) 등의 연구결과에서 제3세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경제개발과 더불어 여성지위가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가 틀렸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1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기회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WID 전략을 채택하였다(김양희, 2001; 김재인 외, 2002; 김경희 외, 2001).

WID 접근은 여성이 경제사회발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접근은 주류에서 배제된 여성의 문제를 여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WID의 주도사업은 보건관리, 영양, 가족계획, 깨끗한 식수, 소득창출과 같은 여성의 실질적인 요구(practical needs)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주류로 참여하기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태도의 개혁과 여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강조한다(김경희 외, 2001). 이 접근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려는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WID 관점은 각 국의 정부차원에서 여성개발을 위한 국가기구 설립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한 WID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조직화되고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여성 민간단체의 생성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김재인 외, 2002).

그러나 이 접근은 여성문제를 특수한 집단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오히려 여성문

제를 발전 주류에서 고립시키고 주변화 시킨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백선희, 2000). 또한 무엇보다 여성들의 삶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에도 여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사회의 공·사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김재인 외, 2000; 김양희, 2001).

이러한 WID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기된 관점이 GAD(Gender And Development) 접근이다. GAD 접근은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발전정책이 여성에게 공평하게 시행되지 않았으며 편파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처음 제기된 GAD 접근은 불평등한 관계를 양산하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WID 접근과 대칭적이다. 이 접근은 여성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강조한다. GAD 접근은 전략적 요구(strategic needs)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 변화를 통해 양성 관계를 재편하는데 목적을 둔다. 성별관계의 역동성과 구조를 중시하며, 양성간의 권력, 의사결정, 업무분담, 주체성, 자원 통제성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GAD 접근의 핵심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는 모든 발전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남녀의 관점을 고르게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발전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성 중립적이지 않음을 밝혀내는 성 분석(gender analysis, 성별영향평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2-1> WID 접근과 GAD 접근 비교

구분	WID 접근	GAD 접근
중심시각	여성	여성과 남성, 양자간의 관계
정책의 초점	여성(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모든 정책
주요 담당부서	여성정책부서	전부서
정책의 범위	부분적, 단편적	포괄적, 장기적
도구와 수단	법·제도	성 분석, 성인지적 교육 등
사례	여성중심의 가족계획 정책	부모 모두에게 출산휴가 부여

출처: 김재인 외(2002),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p.28. / 김양희(200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p.12.를 정리한 것임.

지금까지 성인지적 정책의 개념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 하나가 다른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접근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성평등이라는 같은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동시에 병행 추진되어야 할 ‘쌍둥이 궤도 전략(twin track strategy)’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혜자, 2000, 김양희, 2001 재인용). 즉 성인지적 정책의 대상이 여성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로, 실질적 요구와 더불어 전략적 요구를 포괄하는 범위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성인지적 정책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이 경제사회발전의 참여와 혜택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양성의 서로 다른 경험과 요구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정책은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초기에는 주로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형평성과 양성 평등의 관점으로 논의가 발전되었다.

1970년 보즈럽(Esther Boserup)은 ‘경제적 발전과 여성의 역할(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이란 연구에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경제발전에서 여성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1972년 US/AID로부터 기금을 받아 추진되는 모든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사업과정에 여성을 포함하고 고려해야한다는 퍼시 개정안(Percy Amendment)이 통과되었다. 이후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경제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UNDP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기술자문분과(Technical Advisory Division) 내에 WID 담당관을 두었다.

1980년대 들어 발전의 핵심지표로 경제성장이 여전히 중시되었지만, 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1980년대의 구조조정과 공적 지출의 감소가 주로 빈민, 특히 빈곤여성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나왔다. 삭감된 공적 지출

영역의 대부분은 여성의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담당했던 부문으로 구조조정과 공적 지출 감소가 매우 성차별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경제발전에서 생산활동과 사회적 재생산 활동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1985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여성을 발전내에 통합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보다 오히려 발전이라는 의제 그 자체에 대해 도전하면서, 성인지적 정책과 관련해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란 관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실행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성평등성과 형평성이 주요 정책적 관심으로 등장하고, 정책공약에서 성평등이 일반화되었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 용어가 확산되고, 여성문제 및 성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정책과 어떻게 연관하고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방법상의 문제가 정책분석에서 아직 취약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정책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자는 목표와 실행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제 2 절 성인지적 정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환경 요건

성인지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는 정책기구의 설치, 성 분리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인지적 정책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된다(김양희, 2001; 김재인, 2002). 이를 ① 분석 도구: 성 분리 통계, 경험적 조사와 예측, 비용-편익 분석, 조사연구, 지침 및 리스트 설정,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② 교육 도구: 인식제고를 위한 훈련코스, 사후 조치, 전문가 보유, 지침서와 핸드북 사용, 소책자와 리플렛 제작, 교재 및 교육자료 사용, ③ 자문 및 참여를 위한 도구: 운영집단 및 인력군 구축, 데이터베이스 및 조직표 확보, 의사결정에 양성의 참여, 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로 세분화하기도 한다(Council of Europe, 1998).

1. 정책기구의 설치

북경행동강령 제201조에서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기구의 중심과제는 모든 정책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이라고 역할 규정을 하고 있다. 유엔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국가기구의 역할과 책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1998).

1999년 국제기구인 구주평의회(Commonwealth)⁵⁾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성인지적 관리체계(Gender Management System) 구축을 제안하였다. GMS 운영구조는 다음 6가지 조직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 ① 주도조직(Lead Agency): GMS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부조직을 말하며, 여성정책담당기구가 해당된다. 주도적 역할이란 제도정비, 갈등집단간의 조정 및 통제, 의사교환, 언론관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② 성 주류화 관리팀(Gender Management Team): GMS를 이끌기 위해서 제도정비, GMS 지표개발, 지침 설정, 성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할 조직구조를 말한다. 이는 주도조직, 핵심매개조직, NGOs 등으로 구성된다.
- ③ 부처간 조정위원회(Inter-Ministerial Steering Committee): GMS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정부조직들간의 성 주류화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협의 기구를 말한다.
- ④ 성 주류화 운영 핵심매개조직(Gender Management Focal Point):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시 GMS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인, 지원,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성평등책임담당관들로 구성되며, 각 정부조직마다 의무적으로 임명하고 이들은 성 주류화 관리팀과 부처간 조정위원회에도 참석하게 된다.
- ⑤ 의회 성평등 소위원회(Parliamentary Gender Caucus): 국회 내에 성평등소위원회를

5) Commonwealth는 이전 영연방의 자치령이었던 54개 국가의 자발적 연합체이다. 이 연합체는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걸쳐 세계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Commonwealth의 주요 사안은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것이다. Commonwealth 회원국은 협동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적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Commonwealth의 사무국(Secretariat)에는 청소년 및 성(gender)분과가 있어 성인지적 정책 확산과 추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Commonwealth Secretariat(1999), Gender Management System Handbook, 김경희 외(2001), 정부 부처 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 pp.33-38. 재인용. 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구성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의회로부터 성평등의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성인지적 국회 의원들이 중심이 되게 된다.

- ⑥ 성평등위원회(시민사회 대표회의): 시민사회 대표회의로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집단, 언론, 기타 이해집단들의 대표로 구성하여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성평등적 의식이 기본전제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정책기구 설치의 모범적인 사례는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1976년부터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을 설치하였다. SWC는 모든 연방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분석, 성인지 정책의 개발과 지침 마련, 성평등 자문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지적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연구기금 마련, 관련 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SWC에서 개발한 정책 성분석 모형은 많은 국가들이 모범사례로 받아들여 적용하고 있다. 1999년에는 연방정부 전 정책분야를 성분석을 하기 위해 성 분석국(The Gender-based Analysis Directorate)을 설립하였으며, 이 기관에서는 연방부서 및 기관들의 모든 정책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도 정책기구로 2001년에 여성부가 설립되었다. 일반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노동부 등의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있다. 2002년부터 46개 중앙행정부처에 의무적으로 국·실장급 중 1인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2. 성별 분리 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성별 분리 통계는 정책요구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의 전 과정에서 가장 구체적이며 기초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 분리 통계 및 지표의 필요성은 유엔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제1차 세계여성대회(1975)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서는 '적합한 자료와 정보는 정책을 개발하고 진척상황을 평가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고 경제적 변화를 이

루어내는데 필수적이므로 여성의 상황에 대한 제반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최우선권을 두도록' 촉구한 바 있다.

제2차 세계여성대회의 행동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자료수집기관들은 그들이 수집하는 모든 자료에 성과 연령별 분류를 하고, 성평등 진전상황을 모니터하는데 기초가 되는 통계지표들을 개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차 세계여성대회(1985)에서는 유엔 통계국에서 172개국의 여성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39가지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여성관련 통계지표의 개발에 진전을 보였다.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는 연령과 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분리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제시하도록 제안하고, 여성관련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통계방법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김양희, 2001).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여성개발원이 1994년부터 매년 「여성통계연보」를, 서울시는 1999년부터 「서울여성백서」를 발행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성인지적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중앙의 부처별 통계자료 생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인지적 통계 구축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였다(문유경, 1999; 김양희, 2001, 재인용). 부처별 성인지적 통계개발 작업도 2001년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문유경, 2001; 김양희, 2001, 재인용).

3. 성별영향평가 실시

1) 성별영향평가의 개념과 목적⁶⁾

성별영향평가란 정책 및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⁷⁾. 성별영향평가는 환경부문의 정책분석도구인 '환경영향평가'를 응용한 대표적 사례로, 정책수립에 정보 제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분석(social-economic analysis)의 하부영역에 속한다(보건복지부, 1998). 사회경제적 분석이 정책결정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성별영향평가 또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6) UNDP(2001), *Leaning & Information Pack: Gender Analysis*, pp.84-88.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7) 정책과정별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작업이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되는 훈련, 즉 인지적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김재인 외(2002),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42-43).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은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를 풀어내면서 성과 발전문제라는 양자간의 관계를 밝혀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성별관계가 발전문제를 밝혀내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표면화시키는 것, 둘째, 그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와 대안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이라는 이슈가 정책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어떤 경우에는 정책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UNDP, 2001).

2) 성별영향평가들의 유형⁸⁾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분석틀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도구이다. 성별영향평가들은 평가하고자하는 정책사업(빈곤퇴치, 난민구호, 교육사업, 노동시장참여 등)의 유형, 또는 사업이 실시되는 공간적 범위(국가, 지역사회, 가구 등), 여성문제에 접근하는 패러다임(효율성, 평등성, 형평성, 여성의 세력화 등)에 따라 상이한 분석틀이 사용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책이 성 중립적이라는 전제를 하지 않고,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남성의 욕구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여성과 남성의 삶의 경험이 다름과 차이점을 고려했는가, 정책결정에 양 집단을 고르게 참여시키고 있는가, 성별에 따라 정책결과가 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4.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인지적 예산이란 일반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수행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분석해 형평성있게 분배되도록 조절한 예산을 말한다.⁹⁾ 2001년 3월 유엔의 성 이슈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 자문관실은 국가예산에서 성 관점을 주류화하도록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김재인, 2002). 성인지적 예산 편성의 목적은 정책과 예산

8) UNDP(2001), *Leaning & Information Pack: Gender Analysis*, pp.39-65; Candida March, Ines Smyth, and Maitrayee Mukhopadhyay(1999), *A Guide to Gender-Analysis Frameworks*, Oxfam, Oxford.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9) 한계레신문, 2003. 3. 23.

결정에 있어서도 성 관점을 통합시켜, 성평등을 위한 정책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을 고려한 예산을 처음 실시한 국가는 1980년대 호주이고, 현재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정부 예산 전반에 대한 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 감시(gender analysis and gender auditing)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및 국제연합여성개발기금(UNIFEM) 등의 노력으로 각 국가에 확산되고 있다.¹⁰⁾

우리나라 역시 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성인지적 예산에 대한 분류 지침 마련의 노력을 여성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민우회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 분석을 프로젝트로 실시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이해경(2001)이 보건복지부에서 성인지적 보건복지 예산분석 및 편성, 집행 방향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5.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정책 추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 정책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성인지적 정책 확산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인지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은 성인지적 정책 기반조성에 필요한 작업이다.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성관련 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최고위직에서부터 모든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정책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위해 정책 담당자들의 성인지력 향상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1980년대 들어 유엔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의 많은 공공기관들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 분석 훈련을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평등의식 제고 및 성차별 철폐에 관련한 교육은 상당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성인지적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다루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정부 차원의 교육으로는 1999년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

10) 여성신문, 2003. 4. 4.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개발원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03년 개설되어 성인지적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력 향상과정, 성인지 정책분석 과정,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제 3 절 성별영향평가 분석틀의 유형과 구성체제

1.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성별영향평가는 1980년대부터 급격히 발전하여,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이념과 운영 양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분석틀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도구이다. 이것은 하나의 독립적 관점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의 관점으로 발전되어왔다. 발전과정 속에서 성별영향평가를 구성해온 주요 개념적 패러다임에 따라 구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은 분석 목적, 성의 개념화, 제도적 분석 방식, 사회조직적 변화의 문제, 활용방식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각 분석틀별로 작성목적과 유용성, 사용된 도구들, 평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Harvard 분석틀

Harvard 분석틀은 첫째, 양성에게 형평성 있는 자원을 배당하고, 둘째, 정책기획자들에게 더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것은 농업사회에 그 기반을 두어, 생산적·재생산적 노동의 두 가지 측면을 조사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성별 노동분업에 대해 명백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일에 대해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미시적 수준에서 자원에 대한 성별 접근과 통제를 밝힘으로써 권력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함으로써, 성별관계보다 자원배분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사회적 관계보다는 물질적 분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다. 이 분석틀은 미시적인 수

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모형(matrix)으로써, 상관성이 있는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표 2-2> Harvard 분석틀의 구성

도 구	내 용
도구 1: 활동 측면 (The Activity Prof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남성의 생산적, 재생산적 활동을 규명 • 성별, 연령, 그 외 다른 데이터를 포함 • 배당된 시간에 따라 활동 기록
도구 2: 접근과 통제 측면 (Access and Control Profile)-자원과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남성이 역할 수행에 사용한 자원을 목록화 • 자원에 대한 접근, 통제의 주체, 그 자원으로 부터 받는 혜택(외부소득, 훈련 등)과 통제의 주체를 규명
도구 3: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Influencing Fa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측면과 접근과 통제 측면에서 규명된 성별차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목록 • 시간대별 변화를 통해 미래의 변화 예측
도구 4: 프로젝트 과정분석 (The Project Cycle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분리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양성에게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반영했는지 등 프로젝트가 성인지적인지를 검토하는 질문 목록

2) Moser 분석틀

Moser 분석틀은 정책입안(planning)의 전통에서부터 발전되었으며, 정책입안 과정의 갈등을 산정함으로써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분석틀은 프로젝트에서부터 지역적 정책입안에까지 모든 수준의 계획과정에 대해 사용될 수 있으며, 여섯 개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성인지적 훈련에 사용될 수 있다.

Moser 분석틀은 불평등한 성별관계에 도전하고 여성의 세력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호소력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NGO들에서부터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책입안에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성별 욕구와 전략적인 성별 욕구의 개념은 성별관계에 대한 정책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삼중 역할 개념은 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의 광범위한 영역을 밝혀내고, 생산적, 재생산적, 지역사회적 역할간의 상호관계성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러나 Moser 분석틀은 여성과 남성의 활동들이 어떻게 상관되는지 보다는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분리된 활동에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즉 모든 사람이 삼중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종, 계급 같은 다른 유형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때로는 실질적 욕구에서 전략적 욕구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 욕구와 전략적 욕구의 엄격한 구분은 유용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¹¹⁾ Moser는 남성의 전략적 성별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후 DPU(Development Planning Unit, London University)는 Moser 틀에 남성의 실질적 욕구와 전략적 욕구를 포함시켰다.

<표 2-3> Moser 분석틀의 구성

도 구	내 용
도구 1: 성역할 규정/삼중역할 (triple r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의 시간대별 노동의 성별 분업을 보여줌 • 생산적 노동, 재생산적 노동, 지역사회의 역할로 구분
도구 2: 성별욕구 평가 (Gender Needs Asses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성별 욕구와 전략적 성별 욕구로 구분
도구 3: 자원의 통제와 가정 내에서의 결정을 분리하기; 가정 내의 자원배분과 결정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가정 내에서 자원을 통제하는지, 누가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 결정하는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는데 사용됨
도구 4: 역할의 균형 (Balancing of ro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어떻게 생산적, 재생산적, 지역사회적 역할간의 균형을 유지하는지와 관련됨
도구 5: WD/GAD 정책모형 (WD/GAD policy matr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중 역할 설명에 사용되어진 접근을 복지, 형평성, 빈곤퇴치, 효율성, 세력화로 구분
도구 6: 정책입안에서 여성을 포함한 성인지적 조직과 정책기획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적(perceived) 욕구와 반대되는 "실제 욕구"를 정책입안과정에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전략적 욕구가 여성에 의해서 규명되도록 보장함

3) Gender Analysis Matrix(GAM) 분석틀

GAM 분석틀은 노동, 시간, 자원, 사회문화적 요소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검토한다. GAM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아래서부터 위로(bottom-up)의 분석'을 장려한다. 이것은 성별 차이의 규명과 분석에 대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상이한 성별 영향을 파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규정한

11) Kate Young(1993), Planning Development with Women, Macmillan, London.

성별 역할에 대하여 도전한다. 이 분석들은 체계적이며 친숙한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남성 범주를 포함하므로 남성을 목표로 한 정책 분석에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석들의 한계는 시간대별 변화를 잡아내기 위하여 반복되어야만 하며, 여성이나 남성이 가장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법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집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분석들에는 거시적 분석이나 제도적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2-4> GAM 분석틀

프로젝트 목표:

	노동	시간	자원	문화
여성				
남성				
가구				
지역사회				

4) 여성의 평등과 세력화 분석틀(Women's Equality and Empowerment Framework)

여성의 평등과 세력화 분석틀은 정책가들이 여성의 평등과 세력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발전에 대한 개입이 세력화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의 세력화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고, 남성과 동일한 기반 위에서 생산의 요소들을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 발전과정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여성의 세력화 분석틀은 정책입안, 모니터링, 평가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정책개입이 변형적 잠재력을 가지는지 아닌지를 문제시하고, 정책과 계획에서 여성의 세력화에 대한 방침을 세우도록 하는데 유용하며, 성인지적 훈련에도 활용할 수 있다. Longwe의 분석틀은 Moser 분석틀의 실질적 성별 욕구와 전략적 성별 욕구의 개념과 몇 가지 공통적인 기반을 공유하지만, Longwe는 정책 개입에 이 두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면서 Moser의 분석틀에서 보여주는 분리된 욕구의 정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이 분석들은 시간대별 변화를 추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단지 평등의 관점으로부터만 검토되어, 성별관계에 존재하는 권리, 요구, 책임의 복잡한 체계를 고려하는데 실패했다. 불평등의 다른 형태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여성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위계 수준을 사용함으로써, 세력화가 단선적 과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표 2-5> Longwe의 분석틀

도 구	개 념	내 용
도구 1: 평등의 수준	복지 (Welfare)	• 남성에 비해 상대적인 여성의 복지 수준(소득, 음식공급, 건강관리 등)으로 정의됨
	접근 (Access)	• 토지, 노동, 훈련, 시장, 편의시설, 공공서비스 및 혜택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을 의미함 • 접근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함 •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를 위해 법적 개혁이 필요
	의식화 (Conscientisation)	• 사회적 성의 변화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 • 성인지성의 기초는 성평등의 신념임
	참여 (Participation)	• 정책의 전 과정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의미함
	통제 (Control)	• 자원과 혜택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통제를 말함
도구 2: 여성의 이슈에 대한 인지 수준	부정적 수준	• 정책목적에 여성의 이슈를 언급하지 않음 •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중립적 수준	• 여성의 이슈는 포함되어 있으나, 결과가 여성에게 긍정적일지는 의심스러운 정책을 말함
	긍정적 수준	• 정책목적이 적극적으로 여성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고, 여성지위 향상에 관심이 있음

Longwe의 틀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영역에서 여성의 세력화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통제(Control), 참여(Participation), 의식화(Conscientisation), 접근(Access), 복지(Welfare)라는 평등의 다섯 가지 수준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러한 평등의 다섯 가지 수준은 위계적이고, 더 높은 수준에 초점을 둔 정책적 발전은 여성의 세력화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Longwe의 관점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성의 세력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이슈가 정책의 목적

으로 어느 정도 인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여성의 이슈’란 남성에게 대한 평등과 관련된 모든 이슈라고 정의되었으며, 정책입안 단계에서 여성의 이슈에 대한 인지의 세 가지 수준은 부정적 수준, 중립적 수준, 긍정적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5) 능력과 취약점 분석틀(Capacities and Vulnerabilities Analysis Framework; CVA Framework)

CVA 분석틀은 인본주의적 정책개입으로써, 재난대비를 위해 고안되었다. 즉 사람들의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사업에 유용한 분석틀이다. 능력은 사람들의 물질, 육체적인 자원, 사회적·조직적 자원, 그들의 태도를 말한다. 취약점은 예상치 못한 재난 혹은 긴급상황에 맞서는 사람들의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장기적 요소들을 말한다. 이 분석틀은 재난 대비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CVA의 핵심개념은 사람들의 현존하는 강점들과 현존하는 약점들이 위기가 그들에게 도래하고 그에 반응하는데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것이다.

CVA는 단기적 재난대비를 위해 고안된 정책개입이지만, 장기적인 발전정책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시간대별 변화와 관련된 기획 및 평가에 모두 유용하다. 그리고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차원의 분석도 포함되었다는 장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성, 연령, 계층, 세습적 계급, 인종, 장애 등과 같은 사회적 차이에 대한 모든 범주와 관련하여 채택될 수 있다. 그렇지만 CVA는 성 분석과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맹적(gender-blind) 분석이나 반응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참여방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CVA 분석틀은 능력과 취약점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 즉 능력과 취약점을 각각 육체적, 사회적, 동기적인 범주로 구분한다. 그리고 현실의 복잡성을 잡아내기 위하여 다섯 가지 차원이 CVA 모형에 추가된다.

<표 2-6> CVA 분석틀

도 구	개 념	내 용
도구 1: 능력(Capacities)과 취약점(Vulnerabilities) 범주	육체적/물질적 능력과 취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환경, 기후 등의 특성뿐만 아니라, 주택, 음식, 물 공급, 소득, 자산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됨 • 이러한 자원에 대해 성별 차이가 나타남
	사회적/조직적 능력과 취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구조 및 사회체계와 관련되며, 공식적/비공식적 구조를 모두 포함함 •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은 사회구조 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함
	동기적/태도적 능력과 취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문화적 요소들에 영향을 받은 위기 반응 양상에서 나타남 • 정책개입이나 원조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짐
도구 2: 부수적 차원	생물학적 성에 의한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성 역할 때문에 욕구와 관심이 달라짐 • 여성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됨
	사회관계의 차원 분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관계의 차원으로 복지, 정치적 협력, 인종적 집단화, 연령, 지역사회 등의 요소를 분석에 포함함
	시간대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적인 변화 반영을 위해 일정시간에 평가를 반복 • 평가된 성별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함
	분석 범주들 간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범주내 변화는 다른 범주에 영향을 미침
	다양한 사회적 수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서부터 국가, 지역적 수준, 나아가 사회적 수준 분석이 평가에 사용됨

6) 인간 본위의 계획 분석틀(People Oriented Planning Framework; POP Framework)

POP 분석틀은 도피 상황의 남성난민들과 여성난민들에게 자원과 서비스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Harvard 분석틀을 응용하여 고안하였다. 이것은 더욱 적절한 원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강조되는데, 이는 변화, 참여, 분석의 중요성이다. 변화(Change)란 사람들은 갈등 혹은 다른 위기적 상황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에 착안한다. 위기는 성별관계에 대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난민인 여성, 남성, 아이들의 참여(Participation)는 프로그램의 성공 혹은

실패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피난상황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분석(Analysis)은 필수적 요소이다.

POP는 피난 상황에 맞추어 특별히 고안된 것이지만, 일반정책에 적용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다. Harvard 분석틀과 마찬가지로, POP 분석틀은 단 시간 내에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분석을 통해서 시간대별 변화에 따른 성별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며, 여성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추상적인 관념들을 포함함으로써, Harvard 분석틀보다 더 광범위한 자원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분석틀은 동질적이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사회적 삶에 대한 통제를 난민 자신이 아닌 외부 통제자에게 귀속한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난민에 대한 장기적 발전정책을 기획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분석틀은 결정력 있는 분석(The Determinant Analysis, 혹은 난민 인구측면과 배경 분석), 활동 분석(The Activities Analysis), 자원의 이용과 통제 분석(The Use and Control of Resources Analysis)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표 2-7> POP 분석틀

구 분		내 용
핵심요소	변화(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는 성역할의 변화를 초래함 • 일부 상황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저항 및 전통적 가치 강화도 일어남
	참여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난민, 남성, 여성, 아이들의 참여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함
	분석(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학적, 인구학적 분석은 프로그램 기획에 필수적임
분석도구	도구 1: 인구 및 배경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데이터 수집 • 성별관계 결정요소들(규범과 가치, 권력구조, 종교적 신념, 경제·정치적 요소들)을 평가함
	도구 2: 활동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전후의 노동분업의 변화를 설명함
	도구 3: 자원의 이용과 통제에 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rvard의 도구 2와 유사함 • 자원의 분배와 그에 대한 통제 방식을 규명함 • 새로운 상황 변화는 성별관계에 영향을 미침

7) 사회관계적 접근 분석틀(The Social Relations Approach Framework, SRA)

사회관계적 접근의 세 가지 필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복지로서의 정책개발의 목적(the goal of development as human well-being), 둘째, 사회관계의 개념(the concept of social relations), 셋째, 제도적 분석(institutional analysis)이다. 사회관계적 접근의 목적은 자원분배, 책임, 권력에 있어서 현존하는 성별 불평등을 분석하고, 여성이 스스로의 발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고안하려는 것이다. 사회관계적 접근은 프로젝트 기획과 정책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입안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사회관계적 접근은 성, 계급, 인종과 같은 다양한 불평등을 밝힘으로써 빈곤의 광범위한 상황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분석틀은 구조적 분석, 물질적 빈곤, 권력 상실 및 주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함께 한다. 또한 이 접근은 성별관계를 강조하고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욕구와 관심을 인식한다. 특히 제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사회관계적 접근은 제도들이 어떻게 상호관련 되어있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관계적 분석틀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사회관계적 접근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분석틀은 제도적 주변화를 야기시키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계급 혹은 일정영역과 같은 개별적 범주에 포함되지면서 독립된 하나의 범주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사람들간의 관계, 자원과 활동에 대한 그들의 관계, 그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제도를 통해서 재작동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분석틀에서는 도구라기보다는 개념이 사용된다. 사회관계적 접근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책들은 그 정책이 성에 대한 이슈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다루었느냐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성맹적 정책(Gender-blind policies)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러한 정책은 현존하는 성별관계를 지지하는 입장에 기울어져 있고, 따라서 여성을 배제하기 쉽다. 둘째, 성인지적 정책(Gender-aware policies)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개발의 행위자이고, 여성은 때로는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속받는다라는 것을 인식한다. 성인지적

정책은 성 중립적 정책(Gender-neutral policies)과 성 특화적 정책(Gender-specific policies)의 두 가지 정책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셋째, 성 재분배적 정책(Gender-redistributive policies)은 여성과 남성간 관계를 더욱 동등하게 창설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자원과 책임의 분배를 변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 재분배적 정책은 여성의 세력화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표 2-8> 사회관계적 접근 분석틀

개 념	내 용
개념 1: 인간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성장이나 생산력 증가보다는 인간복지에 관심을 가짐 •인간복지의 핵심요소는 생존, 안전, 자율성임
개념 2: 사회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 및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통제, 개인의 역할과 책임, 요구를 결정함 •역동적이며 거시적 수준의 변화에 의해 영향 받음
개념 3: 제도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제도에는 국가, 시장, 지역사회, 가족·친족이 포함됨 •제도는 불평등의 창출 및 감소 분석에 필수적임
개념 4: 제도적 성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맹적 정책, 성인지적 정책(성 중립적 정책과 성 특화적 정책), 성 재분배적 정책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됨
개념 5: 기초적이고 구조적 원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기획시 문제점에 대한 책임있는 즉각적, 기초적, 구조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토함

2. 성별영향평가 분석 사례

1) 캐나다의 성 분석(Gender-based Analysis: A Guide for Policy-Making)¹²⁾

이 지침서는 여성지위청에서 모든 정부정책의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다. 캐나다의 성 분석 단계는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분석 사이클은 다음과 같다.

12) www.swc-cfc.gc.ca/pubs/gbguide/gbguide_e.html



<그림 2-1> 정책발달/분석 사이클

1. 이슈의 확인, 2. 성과 파악, 3. 데이터 확인, 4. 조사연구,
5. 대안개발, 6. 정책결정, 건의, 7. 전달, 8. 분석의 질 평가

성 분석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분석의 질을 강화하고 성인지적 사고와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책결정자 및 분석자에게 정책결정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성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부여한다. 성 분석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성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다. 각 단계별로 고려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표 2-9> 캐나다의 성 분석틀

단 계	내 용
1단계: 이슈의 확인(Identifying, Defining and Refining the Iss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분석은 일반적 문제의 확인부터 시작함 • 이슈의 성질, 범위, 중요성을 결정하고, 이를 정책 안건으로 제기하는 것
2단계: 기대/예상되는 성과의 확인(Defining Desired/Anticipated Outco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에서 기대하는 목적과 예상되는 성과 제안 • 성과지표, 모니터링 과정, 성과를 확인하는 대상, 성과에 대한 책임이 고려됨
3단계: 정보/자문 데이터의 확인(Defining the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inpu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 부문에 속함 • 필요한 지식, 관련 데이터 자원, 데이터 수집과 분석, 자문위원 등을 확인함
4단계: 연구수행(Conducting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과 분석의 유형을 명료하게 밝힘 • 분석의 역할과 방법, 데이터 접근방식이 논의됨
5단계: 대안개발과 분석(Developing and Analyzing Op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된 대안을 구체화하여, 대안의 성과를 분석함 • 각 대안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분석 등이 개발됨 •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과 필요한 자원이 검토됨
6단계: 건의/정책결정(Making Recommendations/Decision-See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는 대안의 분석을 이끌어냄 •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정책환경과 관련하여 제시
7단계: 정책 전달(Communicating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전달은 정책 수용·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전달시기, 매스컴, 언어, 공적참여의 선택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함 • 협력자와 자문집단의 참여가 핵심적 부분임
8단계: 분석의 질 평가(Assessing the Quality of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과정을 검토함

2) 뉴질랜드의 성 분석(Gender Analysis)¹³⁾

뉴질랜드는 여성부의 축적된 노하우를 근간으로, 공적·사적 영역의 성 분석 체계를 제시하였다. 성 분석은 어떤 정책제안의 성과를 예견하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테스트의 일종으로 우수한 정책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원칙 하에, 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모든 정책 입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성 분석 체계를 제시하는 목적은 주요 행정부서, 정책 운영자, 분석가, 연구자, 생산 및 서비스 기획자 및 수행자들에게 성분석의 혜택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시행하는 방법을 이해시

13) www.mwa.govt.nz/site/old/pub/gender/whtga.html

키려는데 있다. 성 분석은 남성과 여성간, 혹은 다른 여성집단들(마오리 여성/퍼시픽 여성)간의 삶과 그에 따른 경험, 욕구, 이슈, 우선순위가 다름을 인식하고, 다른 정책적 전략을 통해서 이들에게 형평성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성 분석은 평등성(equality)보다 오히려 형평성(equity)을 이루려는데 목적이 있다.

뉴질랜드의 성 분석 체계는 ① 배경이 되는 이슈들, ② 각 정책과정의 행동 지침, ③ 핵심 질문으로 이루어진 성 분석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성 분석의 자료로는 ①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지침을 밝혀놓은 문서들과 정부 방침, ② 정부정책 설정 및 의무에 관한 중요한 문서인 Waitangi 협정(Treaty of Waitangi), ③ 여성을 위한 정부의 성과에 대한 여성부 의무지침과 간행물, ④ 성 분석 관련 데이터 및 연구들, ⑤ 정책과정에 대한 자문, ⑥ 현존하는 정책 검토를 위한 공동체 피드백 과정이 포함된다.

정책과정 및 관련 질문들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0> 뉴질랜드의 성 분석틀

단 계	내 용
1단계: 바람직한 성과를 파악한다 (Define Desired Outco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성별 목적을 포함하는 정책 성과를 정밀히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함 • 여성을 위한 성과에 기반을 둔 성 형평적 목적이 포함되어야 함
2단계: 문제와 이슈를 확인한다 (Identify Problems and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와 이슈를 정확히 파악한 후, 특수한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여성의 특수한 욕구, 경험, 이슈와 우선순위를 고려함
3단계: 대안을 개발한다 (Develop Op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대안의 범위를 파악하고, 정책성과와 관련하여 각 대안의 영향과 효과를 고려함 • 창조성이 요구됨
4단계: 대안을 분석하고 건의한다 (Analyse Opt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을 정하여 이슈에 우선순위를 매김 • 사회적, 경제적 혜택과 재정적 영향을 고려함 • 장기적 목적과 단기적 목적을 모두 고려함
5단계: 결정을 수행한다 (Implement Deci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 요소들(정책에 대한 책임 설정, 과정 검토, 정책전달 방법 등)을 고려함 • 정책수혜자로서 여성을 고려하고, 서비스 접근가능성, 성별 분리된 수행 전략 등을 작성함
6단계: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Monitor and Evalu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니터하고 평가함 • 성과 인중에 따른 서비스 및 정책 수행목적을 모니터함 • 사회적 이익관계망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야 함

3) 김재인(2001)의 성 분석

김재인 연구에서 성 분석의 목적은 기존의 공공정책과 프로그램, 사업 속에 내재한 성 차별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성인지적 수준을 밝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남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지적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인지적 정책을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 성 분석 모형개발의 기본방향으로, 분석대상은 정책의 전 과정으로 설정하였고, 분석방법의 기본원칙은 성의 차원을 통합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성별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나 방법론적 차원에서 여성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점수의 산출을 위한 지표의 배점이나 가중치를 두는 작업을 배제하고 양적 지표보다는 기술식(descriptive) 지표나 질적 지표를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성 분석의 일차적 담당자로서는 정책담당자를 선정하고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성 분석의 준거, 즉 성인지적 수준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과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여성의 이슈에 대한 파악, 여성의 요구 및 자문 반영의 두 가지 분석준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결과에 있어서 현재의 여성과 남성간의 성 차별적 관계를 개선하였는가와 관련하여 정책설계에서의 여성 고려, 정책결과와 성평등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성 분석의 준거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 분석 항목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1> 김재인의 성 분석틀

단 계	분석항목	내 용
1단계: 정책의제설정 단계	여성관련 문제 파악	•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의제화하는 과정
	여성의 요구파악	• 여성을 중요한 정책대상자로 인식하여 이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였는지를 파악
	여성의 자문 참여	• 정책과정에 양성에게 동등한 자문기회를 보장
	여성에 대한 영향 예측	• 정책결과가 양성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임
2단계: 정책결정단계	여성관련 목표 수립	• 기대되는 정책결과를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 세부 정책목표도 명시적인지 확인
	성인지적 정책결정	• 정책대안이 성 형평성과 평등성에 부합되어야 함
3단계: 정책집행단계	여성 정책대상집단 선정	• 정책수혜자로서의 여성을 고려하여야 함 • 수혜대상으로의 여성 비율을 분석하여야 함
	성인지적 예산 편성	• 정책의 실효성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므로, 성 별로 분리된 예산편성이 필요함
	담당자의 성인지성	• 정책담당 및 집행 주체의 성인지적 의식과 태도, 능력이 중요함
	여성에 대한 정책전달	• 정보나 서비스가 정책수혜대상 여성들에게 체계 적으로 전달되었는가를 분석함
	성인지적 정책의 협조체계	• 집행주체간, 관련기관간, 이해당사자간의 설득과 조정, 타협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 시도
4단계: 정책평가단계	여성관련 목표의 달성	• 정책 성과목표의 달성율 등의 효과성을 분석 • 정책수혜자 여성의 만족도 분석
	여성에 대한 영향평가	•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장기적 효과 분석
	평가결과의 성인지적 활용	• 정책평가의 환류 기능에 기초함 •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안과 후속정책 제시

3. 외국의 사례

1) 담당 기구

현재 외국에서 성인지적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소개와 담당 기구의 활동을 검토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앞서 정책적 적용의 함의를 찾아내는 작업에 필수적이다. 외국의 담당 기구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독립된 부서 조직형태로서 여성정책을 조정, 기획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여성문제 전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다. 여기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속한다. 둘째, 각 부서의 정책담당자들이 직접 성별영향평가(성 분석)를 담당하는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속한다. 이때 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는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셋째, 위원회의 형태로서 민·관 합동 또는 각료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기구로, 주로 위원회내의 사무처가 그 업무를 보좌하고 집행하는 조직형태로, 일본이 여기에 속한다. 정책자문, 정책수립과 집행, 정책조정, 조사 및 평가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위원회도 있고, 이 중 일부의 기능만 수행하기도 한다. 넷째, 여성문제 전담기구가 아닌 담당장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하부조직을 두고 자문과 조정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형태인데, 영국과 스웨덴이 이러한 유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각 국의 담당기구와 그 기능¹⁴⁾은 다음과 같다.

<표 2-12> 각국의 성인지적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담당 기구

국가	기 구	기 능
호주	여성지위청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정책제언, 정책시행 검토 • 여성정책 집행보다는 조정 기능에 초점을 둠 • 각 부처가 내각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가 양성에게 미치는 성별영향 보고서 검토 • 예산에 관한 자문 및 법률 모니터 • 남녀평등지표 개발 및 성별 평가
캐나다	여성지위청 (Status of Women Canada) / 성분석국 (Gender-based Analysis Directo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정책의 개발 및 지침 마련 • 모든 연방정부의 입법,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성에 기반을 둔 분석을 실시하고 여성의 평등증진을 위한 제언 담당 • 성분석 프로그램 및 방법 개발과 적용, 성 분석 훈련, 분석과정의 효율성 평가 수행 • 정책연구기금 및 여성프로그램기금 운영

(계속)

14) 김재인, 2002,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성정, 2003,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모범사례 연구, 여성부, www.osw.dpmc.gov.au, www.swc-cfc.gc.ca, www.mwa.govt.nz, www.mofat.go.kr, www.se.gov.se, www.cabinet-office.gov.uk를 참조하여 정리함

<표 2-12> 각국의 성인지적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담당 기구(계속)

국가	기구	기능
뉴질랜드	여성부 (Ministry of Women's Affai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정책자문 및 정보제공 • 여성의 사회참여 및 남녀평등을 위한 국가행동 계획 수립과 추진 • 정부부처에 성별영향평가 권고
네덜란드	평등권리정책조정부 (Department for the Coordination of Equal Rights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정책과 주류화 모니터링 •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평가 • 평등기회 정책의 개발, 집행, 평가 • 국가적 정책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조정 • 평등고용기회 정책 자문 주도
스위스	연방남녀평등청 (Federal Office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소책자 발간 등 정보제공 • 남녀평등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와 자문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
핀란드	각 부처별 담당자 (사회건강부/외교부/교육부/농림부/노동부/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성 주류화 관련 교육 • 통계 및 기본데이터 제공은 성평등국회위원회와 양성평등을 위한 옴브즈맨 사무실에서 담당함
노르웨이	각 부처별 성분석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별 2명씩의 성분석 담당자가 지명되어 이들간 네트워크 구성 • 모니터링 및 평가는 내각 위원회와 여성부에서 담당함
일본	영향조사전문조사회 (影響調査専門調査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전반적인 업무 • 정부시책이 남녀공동참여 사회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영국	여성담당장관 (Minister for Wo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관점을 정부로 통합하는 기능 담당 • 보육, 가족친화적 고용,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등에 관여함
스웨덴	남녀평등장관 (Minister for Gender Equ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정책 수행 방법 개발 • 타 정부부처의 교육 주도 • 성인지적 예산 수립 검토 • 산하에 평등문제위원회, 평등기회 옴브즈맨, 평등기회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조직됨

2) 정책적용 사례

(1) 학교중퇴 비율(School Dropout Rates)¹⁵⁾ - 캐나다

캐나다의 퀘벡(Quebec)주에서 1996-97년 사이, 소년 및 소녀의 학교중퇴 비율을 조사한 결과, 각각 23%와 12%였다. 남성이 여성의 두 배지만,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통계청에 따르면(1993), 소년들은 공부보다 일이 더 좋다, 학교는 따분하다, 돈이 필요하다, 교사들과 문제가 있다 등의 이유인 반면, 소녀들은 교과과정이 너무 어렵다, 학교가 따분하다, 임신했다, 결혼할 예정이다 등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중퇴 후, 제3차 산업(식당, 식료품가게, 장사 등)에 65.4%가 흘러들어 간다. 하지만 성별 분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소녀들이 88.7%인데 비해 소년들은 48.9%에 불과하며, 제2차 산업에는 소녀들이 7.4%, 소년들은 27.1%, 제1차 산업에는 소녀들은 2.0%, 소년들은 7.2%, 기타 부문(트럭운전, 운반, 포장 등) 또한 소녀들은 2.9%, 소년들은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다양한 분야에 좀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따라서 중퇴자수는 남성이 더 많다는 것과 중퇴 후 노동조건은 여성이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별로 다른 예산 배정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 대중교통수단 이용¹⁶⁾ - 캐나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가용 보유율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운송수단으로 대중교통에 더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성별로 이용시간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주로 출퇴근시간의 이용율이 높다. 반면 여성은 비상근직이나 임시직에 많이 종사하고 쇼핑이나 개인적 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낮시간의 이용율이 높다. 따라서 대중교통에 대한 지출을 감소하기 위해 출퇴근시간 이외의 운송수단 배당을 줄인다면, 여성의 직무능력이나, 건강관리 혹은 친구들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능력(여성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야간 대중교통수단은 여성의 신체적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화된 요구를 반영하여 대중교통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5) 김재인 외(2001),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pp.278-280.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16) www.swc-cfc.gc.ca/pubs/guidetoprograms

(3) 퇴직저축제도¹⁷⁾ - 뉴질랜드

퇴직저축제도와 관련한 분석을 통하여, 여성을 위한 퇴직저축계획(retirement saving schemes)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이미 계획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변화들이 추진되고 있다. 퇴직수당에 대하여,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연령이 높으므로 장기간 연금이 필요하다는 점, 여성의 고용수준이 남성보다 낮다는 점(1994년 노동인구가 남성 73.4%인데 비해 여성은 54.3%임), 여성의 고용패턴이 불안정하다는 점의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여성의 자녀양육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평균 총 수입이 남성의 59%수준이라는 사실 등에 따라 여성의 독립적인 퇴직저축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시도되고 있다.

(4) 사례: SET에서의 여성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 극복 전략¹⁸⁾ - 영국

최근 영국정부는 SET(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서 여성의 과소대표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2003년 무역·산업부서의 장관 보고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1994년 ‘증가하는 경향(Rising Tide)-과학, 공학, 기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극되었다(HMSO: London). 이 보고서는 학교에서 과목선택에서부터 이후 노동시장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계속되는 실패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과학기술부서의 여성부에 SET를 설립하여, SET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① 단계적으로 SET에서 경력을 쌓고 SET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다, ② SET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중단한 후 다시 복귀하려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다, ③ SET 관련 정책결정 체계의 여성대표를 증가시킨다, ④ 더 많은 여성이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등의 전략을 세웠다. 또한 SET는 정책연구, 다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7) 김재인 외(2001),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pp.280-281.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18) www.dti.gov.uk/set4women/policy/gender-mainstreaming.htm

第 Ⅲ 章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서울시 행정여건 진단

제 1 절 서울시의 행정여건

제 2 절 공무원의 성인지력 수준과 의식

제 III 장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서울시 행정여건진단

제 1 절 서울시의 행정여건

1. 행정조직 및 제도

1) 여성정책 관련 행정조직

서울시에서 여성, 즉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향에 큰 전환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정책적 관심이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부녀복지관을 대폭 정비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88년 서울시 가정복지국과 각 구청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었으며, 이와 같은 조직의 확대 개편을 계기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여성인력의 활용, 경제활동 지원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민선지방자치가 출발하여 본격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정조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1996년 부녀복지과의 명칭이 여성복지과로 바뀌었고, 여성정책보좌관이 신설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가 시장 자문기구로 발족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는 현재 2003년 2월 28일부터 제4기 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는데, 임기는 2년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 및 개발, 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관련 정보의 수집, 자문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성정책 계획 및 수립을 담당하는 여성정책분과위원회, 성매매 예방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여성복지분과위원회,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 확산을 담당하는 남녀평등분과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용 및 여성단체 지원활동을 담당하는 사회참여분과위원회 등 네 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민선 2기 출발과 함께 제1차 구조조정을 통해 여성정책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였다. 조직이원화에 따른 업무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여성정책보좌관과 가정복지국의 여성복지과를 폐지하고, 시장직속의 정규조직으로 1급 여성정책관과 여성개발담당관을 신설하였다. 여성정책관 신설 후, 소외여성 복지정책과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지원정책에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으로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2003년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정책과(복지여성국 소속)로 개편하여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여성정책과는 여성복지업무와 함께 늘푸른여성팀의 10대 청소년 선도재활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보육업무 강화를 위하여 가정복지담당관을 보육지원과로 개편하였다. 또한 별정1급으로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을 신설하여 담당업무를 복지분야까지 확대하여 담당토록 하였다. 한편 여성정책과는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로 5개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 중부, 북부여성발전센터와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5개 사업소를 직영하고 있고 서부, 동부여성발전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기관으로 2002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있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현황은 아래의 현황표와 같다.

<표 3-1> 여성정책담당부서 인력현황(2003. 1)

(단위: 명)

구분	계	여성 정책과	보육 지원과	남부여성 발전센터	중부여성 발전센터	북부여성 발전센터	여성보호 센터	아동복지 센터
계	164	27	21	18	11	12	34	41
일반직	83	17	18	8	3	7	7	23
계약직	11	4		1	3		2	1
별정직	10	3	2	1			3	1
기능직	60	3	1	8	5	5	22	16

출처: 서울특별시(2003), 2002 서울여성백서, p.21. 재인용.

2) 여성정책 관련 제도

서울시 제도 중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2001년 3월 20일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IULA(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의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이를 IULA에 통보하였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IULA는 1913년에 설립된 세계최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연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민서비스 향상, 인간적 주거환경 조성,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 IULA 선언은 북경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에 관한 규약」과 「유엔여성선언문 및 북경행동강령」에 명시된 원칙을 상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IULA 선언의 정신을 여성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성인지적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서울시 제도로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을 구체화하여 1999년 7월 31일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총 5장 34개조로, 각 장은 총칙, 여성정책,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 및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례에는 성 분리 통계, 성평등 교육, 경제적 지원, 여성위원회, 기금운용 등 성인지적 정책의 기반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정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표된 「새서울여성정책3개년 계획」(2000~2002)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서울시 여성정책의 중기계획으로, 4가지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현이 가능한 12개 과제 4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총 4,012억원의 예산이 3개년간 투입되었다. 그리고 민선 3기인 2003년에는 서울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시책에 따라 「여성정책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5개 분야별로 14개 과제 4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수립된 계획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2>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 제도 구성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2000~2002)		여성정책 4개년 계획(2003~2006)	
남녀평등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 홍보 및 남녀평등의식 제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확대 여성공무원 지원 및 육성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기반 및 문화확산 남녀차별 관행 개선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단체 지원·여성지도자 육성
여성의 사 회참여 확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인적자원 의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력양성을 통한 경쟁력강화 여성창업지원 기반구축
여성의 삶 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의 건강·복지증진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10대 가출·성매매 선도재활사업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여성건강의료 서비스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부모가정 및 아동 복지증진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요보호여성보호 및 사회복귀지원 	보육서비스 수 준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보육 기반구축 맞춤형 보육확대 및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아동복지증진 과 안전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의 증진 어린이 안전의식 향상과 환경개선

출처: 서울특별시(2003), 2002 서울여성백서, pp.10-19. 재구성함.

2. 성별 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1) 성별 통계

서울시의 성과 관련된 통계로는 1999년부터 발행해온 「서울여성백서」가 있다. 여기서는 제1장에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정책의 조직 및 인력, 여성위원회 현황, 제2장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여성공무원 현황 및 지원, 제3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활동, 여성발전기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실업, 여성자원봉사 현황과 관련 사업 실태, 제4장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 관련 시설 및 실태, 여성의 건강·복지증진 관련 사업 및 활동, 제5장 보육시설 현황과 서비스 운영실태, 제6장 소외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저소득 가정 및 성폭력 보호 사업 실태 등의 다양한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서의 문제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성만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성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성인지적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별 분리통계로 확장하여 수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6조 (통계·자료의 성별표기)에는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7조 (여성 정보 제공)의 2항에는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연구자료 구축

서울시에서 성인지적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별도의 연구는 아직 시행된 바 없다. 현재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를 중심으로 하여, 성인지적 정책 도입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본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본격적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여성부에서 이와 유사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히 선도적인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성인지적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자료의 축적이 촉구된다.

3.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2조 3항에서 ‘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평등의식 과정’을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등의식 과정은 21세기 지식경영사회와 여성, 남녀평등의식, 정책사례별 성역할 분석 및 실습, 여성정책의 방향과 현황, 여성 CEO와의 만남, NGO와의 대화, 여성관련 법규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책사례별 성역할 분석 및 실습’에서 성 관점의 정책 소개와 성 분석의 방법, 분석항목과 지표, 성 분석 체크리스트, 외국의 성 분석 사례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수에 비하여 참여인원이 매우 적은 실정이고(2003년 참여자는 72명임), 과정의 신청방법이 자율적 선택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공무원 수료비율

이 높았다. 그리고 직급에 있어서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많으며, 정책결정과는 거리가 있는 기능직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명목상의 교육보다는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고위직 남성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 개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성인지적 예산

서울시에서 성인지적 예산과 관련한 작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성인지적 예산편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경험이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2002년 행정자치부 지원으로 수행한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대상으로 주어진 자료들이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수행한 예산분석은 여성정책과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서울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2002)은 성별 인구현황(인구, 학력, 가구형태), 여성정책의 목표 및 수행체계(목표와 근거, 여성정책의 업무구성,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여성정책 예산분석(예산분석 및 여성발전기금사업분석),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의 성 분리 작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강력히 제안하였다. 그 외에 자치구 단위에서 「서울시 도봉구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서울시 양천구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이 실시되었다.

「서울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내용 중 여성정책 예산분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현황에 있어서 전체예산 대비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이 2000년 0.97%(104,135백만원)에서, 2001년 1.03%(116,271백만원), 2002년 1.15%(134,722백만원)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석이 실시된 8월 현재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어 0.05% 증가한 1.20%(155,597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예산을 성과목표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 보육서비스 확충 부분에 48.4%, 가족복지 및 여성, 아동보호와 자립지원의 강화 26.0%, 여성능력개발지원 및 성평등의식 제고가 19.1%를 차지하였다. 향후 여성정책 관련 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정책사업에 이러한 성인지적 예산을 적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3> 2002 서울시 여성정책 성과목표별 예산 및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율(%)
전략 I	여성능력개발지원과 성평등의식 제고	29,664	19.1
성과목표 1-1	여성능력개발시설의 확충과 운영 강화	29,573	19.0
성과목표 1-2	여성사회참여기회의 확대	비예산	-
성과목표 1-3	성평등 의식 제고	91	0.1
전략 II	여성사회참여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	75,372	48.4
성과목표 2-1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290	0.2
성과목표 2-2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수준향상	75,082	48.2
전략 III	가족복지 및 여성, 아동보호와 자립지원 강화	40,391	26.0
성과목표 3-1	(폭력)예방 및 상담서비스 충실	1,918	1.2
성과목표 3-2	(여성, 아동)보호 및 자활지원 서비스 확대	38,473	24.8
일반예산	인건비, 기본경비	10,170	6.5
성과목표	일반예산	10,170	6.5
합 계		155,597	100.0

출처: 한국여성민우회(2002), 서울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재인용.

제 2 절 공무원의 성인지력 수준과 의식

1. 조사개요

1) 표본추출

본 조사는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알아보고 현 정책운영의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영향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의 대상을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우선,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다음으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평등의식 과정(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내용 포함)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서울시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조사는 19개 부서에서 직급별 인원에 비례하여 선정하였다. 현재 서울시의 직제는 시장 아래 3부시장, 4정책보좌관, 12실·국, 10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시장·부시장 및 정책보좌관, 시의회의 사무처, 도시관리추진단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부서는 대변인 중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비상기획관, 정보화기획단, 경영기획실, 행정국, 재무국, 복지여성국, 산업국, 문화국, 환경국, 교통국,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건설기획국, 주택국, 소방방재본부가 해당된다. 1차조사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을 모집단 비례로 각각 634명, 21명, 45명씩 총 70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성별 의견이 중요하므로, 여성은 전체 표본의 30%를 직급에 비례하여 임의로 추출하였고, 정책결정에 더 영향력있는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수를 50 대 50으로 할당하였다. 단 별정직과 계약직은 5급 이상 공무원 모집단의 수가 표본의 50%에 미치지 못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수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의 30%가 되지 않아, 전수를 조사하였다.

2차조사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평등의식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전체를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참여자수는 72명이었고, 이들은 서울시 본청보다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기타 사업소의 공무원이 많았고, 주로 6~9급의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기간을 살펴보면, 1차조사는 2003년 5월 6일부터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시되었으며, 2차조사는 5월 22일 수행하였다. 일부 불성실한 조사표를 제외한 조사의 회수율은 1차조사는 679명으로 97.0%였으며, 2차조사는 64명으로 88.9%로 나타났다.

<표 3-4> 표본설계 및 회수율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모집단	서울특별시 본청소속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평등의식과정 수료 공무원
표본크기	700명	72명
표본추출방법	층화비례추출법	전수조사법
회수율	97.0%(679명)	88.9%(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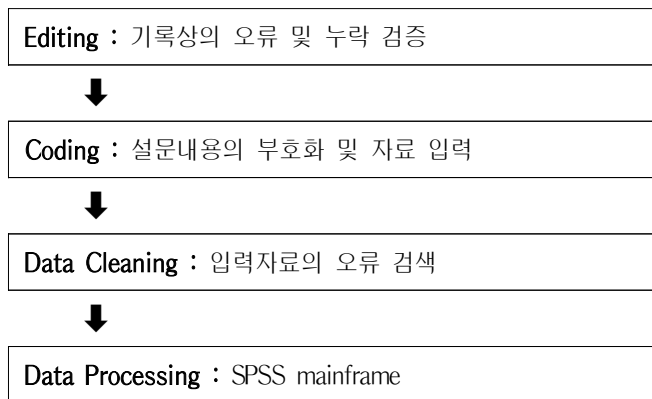
<표 3-5> 1차조사의 직군별, 직급별 표본수

(단위: 명)

직군별	직급별										전체
	2급	3급	4급	5급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6급이하	
일반직	6	10	63	238	317	169	133	12	3	317	634
별정직	1	1		6	8	4	7	2		13	21
계약직					15	5	10	13	2	30	45

주: 계약직은 가급...마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급은 5급 이상에, 나급..마급은 6급..9급에 각각 상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Data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자료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된다.



<그림 3-1> 자료처리 과정

2) 표본의 특성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2.7%(540명)가 남성이고 27.3%(203명)가 여성이었다. 표본추출에서는 30%를 할당하였으나, 여성의 휴직 빈도가 높았고 비정규직

이 많아 인사변동이 심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1차조사는 남성이 73.0%, 여성이 27.0%였으며, 2차조사는 68.8%가 남성, 31.2%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33.5%인 30대, 21.0%인 50대 이상이었으며, 20대는 4.6%로 매우 적었다. 평균연령은 42.2세였다. 1차 조사와 2차조사의 연령분포를 비교하면, 1차조사에 비하여 2차조사에 20대와 30대가 훨씬 많아, 상대적으로 2차조사 응답자 연령층이 젊다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졸이 53.7%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대학원 재/졸 역시 27.8%로 전체의 80% 이상이 고학력자였다. 또한 1차조사 응답자의 학력이 2차조사의 응답자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군별로는 일반직이 88.9%로 가장 많았고, 계약직 4.3%, 기능직 3.7%, 별정직 2.4%로 조사되었다. 1차조사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기능직을 제외하였으나, 평등의식 교육과정에 참여한 2차조사 응답자들 중에는 기능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직급별 분포는 5급 이상이 38.2%, 6급 이하가 61.8%였다. 1차조사 응답자 중 5급 이상은 41.2%, 6급 이하는 58.8%로, 이는 표본추출에서 가정한 5급 이상 응답자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4급, 5급 공무원의 응답 거절 비율이 높았다는 점과 출장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차조사에서는 전체의 93.5%가 6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 및 훈련 참여에 고위직 공무원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근속년수별로는 20~25년 이하가 20.6%였고, 25년 이상이 1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비교적 장기 근속자들이 많다. 현재 부서의 근속년수는 2년이 초과(25개월 이상)된 응답자가 23.7%에 불과하였다. 여성관련 부서의 재임경험은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0.3%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표본추출과정에서의 통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성별이나 직급별로 소수인 여성이나 5급 이상의 조사 비중이 모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됨으로써 이후 설문조사 내용 분석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표 3-6>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 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계	679	100.0	64	100.0	743	100.0
성별	679	100.0	64	100.0	743	100.0
남성	496	73.0	44	68.8	540	72.7
여성	183	27.0	20	31.2	203	27.3
연령별	670	100.0	64	100.0	734	100.0
20대	30	4.5	4	6.3	34	4.6
30대	220	32.8	26	40.6	246	33.5
40대	282	42.1	18	28.1	300	40.9
50대 이상	138	20.6	16	25.0	154	21.0
학력별	672	100.0	63	100.0	735	100.0
고졸 이하	72	10.7	23	36.5	95	12.9
2년제대학교 재/졸	32	4.8	9	14.3	41	5.6
대학교 재/졸	367	54.6	28	44.4	395	53.7
대학원 재/졸	201	29.9	3	4.8	204	27.8
직군별	677	100.0	60	100.0	737	100.0
일반직	622	91.9	33	55.0	655	88.9
별정직	18	2.7	-	-	18	2.4
계약직	32	4.7	-	-	32	4.3
기능직	-	-	27	45.0	27	3.7
기타	5	0.7	-	-	5	0.7
직급별	678	100.0	62	100.0	740	100.0
5급 이상	279	41.2	4	6.5	283	38.2
6급 이하	399	58.8	58	93.5	457	61.8
근속년수별	666	100.0	62	100.0	728	100.0
5년 이하	74	11.1	2	3.2	76	10.4
6~10년 이하	103	15.5	17	27.4	120	16.5
11~15년 이하	107	16.1	21	33.9	128	17.6
16~20년 이하	107	16.1	8	12.9	115	15.8
20~25년 이하	146	21.8	4	6.5	150	20.6
25년 이상	129	19.4	10	16.1	139	19.1
현재부서 근속년수별	657	100.0	61	100.0	718	100.0
6개월 이하	148	22.5	7	11.5	155	21.6
7~12개월 이하	263	40.0	14	23.0	277	38.5
13~24개월 이하	105	16.0	11	18.0	116	16.2
25개월 이상	141	21.5	29	47.5	170	23.7
여성관련부서책임경험별	667	100.0	60	100.0	727	100.0
있다	69	10.3	4	6.7	73	10.0
없다	598	89.7	56	93.3	654	90.0

한편 1차조사의 부서별 표본수는 다음 <표 3-7>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모집단과

비례한 층화비례 표본추출의 결과이며, 일부 미회수인 경우는 제외되었다.

<표 3-7> 1차조사의 부서별 표본수

(단위: 명, %)

부서	빈도	백분율
경영기획실	53	7.8
행정국	56	8.2
감사관	30	4.4
비상기획관	22	3.2
소방방재본부	11	1.6
산업국	49	7.2
교통국	60	8.8
도시계획국	46	6.8
건설계획국	42	6.2
주택국	36	5.3
재무국	37	5.5
정보화기획단	35	5.2
기술심사담당관	10	1.5
언론담당관	5	0.7
홍보기획관	16	2.4
문화국	41	6.0
복지여성국	56	8.3
환경국	55	8.1
청계천복원추진본부	19	2.8
계	679	100.0

3) 설문 내용 및 측정변수

본 설문조사의 문항은 정책과정 및 정책평가 이론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성인지적 정책의 입안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성인지적 정책의 이해도’, 둘째, 성인지적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성인지적 정책 수행에 관한 의견’, 셋째, 성인지적 정책의 평가와 이에 대한 제도화에 관련된 ‘성별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의견’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각 영역별로 중지표와 세부지표를 정리한 결과가 <표 3-8>이다.

<표 3-8> 영역별 지표 및 척도

영역	중지표	세부지표
성인지적 정책의 이해도	관련 개념에 대해 들어본 경험, 인지 정도, 인지 경로	생물학적 성(sex)/사회적 성(gender)의 차이
		성인지적 정책
	관련 법/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 인지 정도	성분석, 양성평등분석, 성별영향평가
		여성발전기본법(1995)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제4차 분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1995)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 비준(1984)
		모든 중앙부처 여성정책책임관 제도
		6개 중앙부처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국제연맹(ILA)의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을 채택(2001)		
성인지적 정책 수행에 관한 의견	시책추진 경험	경험 유무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명
		시책 추진 시기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성과
		성별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현재 추진 중인 시책/ 추진 예정인 시책	성별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책 유무
		시책명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할 의향 성별영향을 고려할 의향이 없는 이유
	시책의 필요성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필요 정도
	시책추진의 애로점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시 애로점
	전문가 개입의 적절 단계	전문가 혹은 타부서의 개입이 적절한 단계
	자원의 필요성 및 현황	성별통계 자료
		자문가능한 전문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관련 법률 구비 및 제정		
성별영향평가 정책지침		
성별영향평가 정책지표		
국내 및 해외 관련사례		
예산 지원		
상급자의 이해와 실행의지		
유관기관간의 협조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계속)

<표 3-8> 영역별 지표 및 척도(계속)

영역	중지표	세부지표
성인지적 정책수행에 관한 의견 (계속)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적용 가능성	인문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비상기획관, 정보화기획실, 경영기획실, 행정국, 재무국, 복지여성국, 산업국, 문화국, 환경국, 교통국,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건설기획국, 주택국, 소방방재본부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 유무
		교육 및 훈련 주관처
		교육 및 훈련의 업무적용에 도움 정도
교육 및 훈련 진행 대상에 관한 의견		
성별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의견	제도의 도입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반대 이유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의 적정시기
	평가의 주체	평가주체로 참여할 집단에 관한 의견
	제도의 효과	정책의 효율성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형평성
		성인지적 정책의 확산
		양성평등사회에 기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남성의 삶의 질 향상		

각 영역별 지표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는지에 대한 ‘영역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표 3-9> 참조), 신뢰도 수준이 모두 알파값 .70 이상인 것으로 판명되어, 각 지표가 신뢰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표 3-9> 영역별 지표의 신뢰도

영역	문항수	Cronbach's alpha 값
성인지적 정책의 이해도	9	.94
성인지적 정책 수행에 관한 의견	44	.93
성별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의견	9	.78

4) 분석방법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서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통계 및 분석적 통계기법을 시도하였다. 1차조사와 2차조사의 각 세부지표별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검증(T-Test)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외에 2개 집단별(성별, 직급별, 여성관련부서 재임경험별 등)의 차이 검증에도 교차분석과 T검증을 하였다. 한편 집단내 인구사회학적 배경별(연령별, 교육수준별 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ANOVA)를 이용하였다.

2. 성인지적 정책의 이해도

1)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의 이해도

(1)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해 들어본 경험

<표 3-10>을 보면,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해 얼마나 들어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관련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은 1차조사 응답자에 비해 2차조사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2차조사 응답자의 특성이 성인지적 정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집단이라는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0>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해 들어본 경험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χ^2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				
들어본 적 있다	66.3	77.8	67.3(499)	3.464
들어본 적 없다	33.7	22.2	32.7(243)	
계	100.0	100.0	100.0(742)	
성인지적 정책				
들어본 적 있다	27.4	53.2	29.6(219)	18.210***
들어본 적 없다	72.6	46.8	70.4(522)	
계	100.0	100.0	100.0(741)	
성별영향평가, 성분석, 양성평등분석				
들어본 적 있다	35.6	54.1	37.1(274)	8.205**
들어본 적 없다	64.4	45.9	62.9(464)	
계	100.0	100.0	100.0(738)	

***p < .001, **p < .01

항목별로 들어본 경험이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67.3%), ‘성별영향평가, 성 분석, 양성평등분석’(37.1%), ‘성인지적 정책’(29.6%)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인지적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성 분석, 양성평등분석’의 개념에 대해서는 1차조사와 2차조사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각각 $\chi^2=18.210^{***}$, $\chi^2=8.205^*$). 또한 각 개념별로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 여성관련 부서 재임경험이 있을 경우 들어본 경험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3-1>, <부록표 3-2>, <부록표 3-3> 참조).

(2)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 정도(들어본 경우만)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개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인지 정도 평균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3.40점, ‘성인지적 정책’은 3.33점, ‘성별영향평가, 성 분석, 양성평등분석’은 3.14점이었다. 따라서 5점 척도를 고려하면 3점(보통)와 4점(조금 알고 있음)의 사이에 위치한 평균으로, 성인지적 정책에 관한 개념들에 대하여 보통보다 조금 더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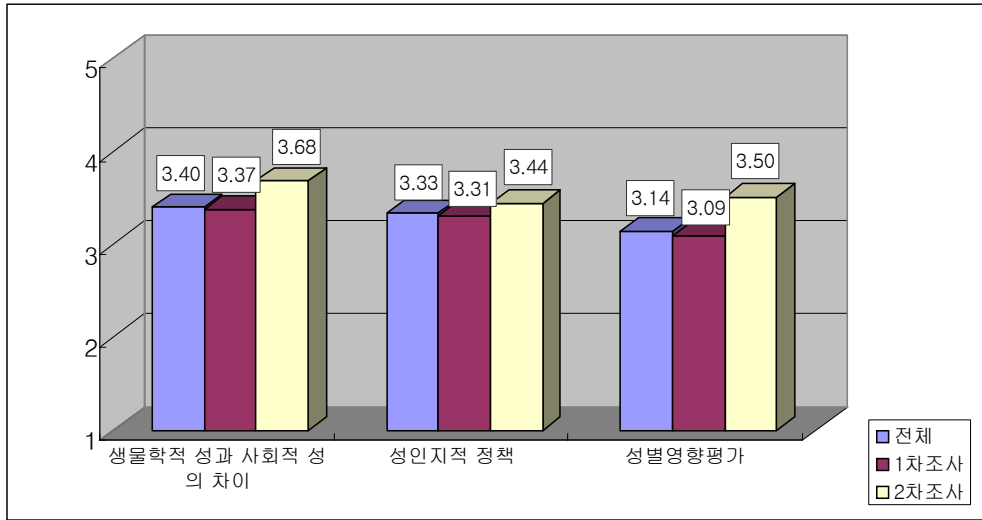
들어본 경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들어본 경험은 ‘성인지적 정책’(29.6%)보다 ‘성별영향평가, 성 분석, 양성평등분석’(37.1%)이 더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오히려 ‘성인지적 정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와 ‘성별영향평가, 성 분석, 양성평등분석’의 개념의 인지 정도는 1차조사와 2차조사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2차조사 응답자들의 인지 정도가 조금 더 높았다(각각 $T=-2.203^*$, $T=-2.426^*$).

<표 3-11>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 정도 평균비교

구분	전체	1차조사	2차조사	T값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	3.40	3.37	3.68	-2.203*
성인지적 정책	3.33	3.31	3.44	-0.712
성별영향평가, 성분석, 양성평등분석	3.14	3.09	3.50	-2.426*

주: 5점 척도(1: 전혀 모름,,5: 잘 알고있음)

*p < .05



<그림 3-2>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정도

(3)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 경로

전체 분포를 보면, 성인지적 개념에 대해서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해서’ 인지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각각 57.5%, 49.5%, 45.2%), 다음은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였다(각각 13.8%, 15.6%, 15.4%). 1차조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2차조사는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리고 1차조사의 결과,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가 두 번째로 많았으나, ‘성인지적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성 분석, 양성평등분석’과 관련해서는 ‘여성부 및 관련부서의 발간책자나 보고서를 통해서’가 다음으로 많았다. 따라서 여성부 및 관련부서의 보고서가 성인지적 정책과 직접 관련된 개념의 인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2>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 경로(들어본 경우만 응답)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			
관보나 서울시 소식지를 통해서	1.2	2.5	1.3 (5)
업무지침을 통해서	3.2	5.0	3.4 (13)
주변 사람들로부터	4.7	-	4.2 (16)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해서	61.0	27.5	57.5(221)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9.6	50.0	13.8 (53)
여성부 및 관련부서의 발간책자나 보고서를 통해서	5.2	5.0	5.2 (20)
인터넷을 통해서	5.2	5.0	5.2 (20)
기타	9.9	5.0	9.4 (36)
계	100.0	100.0	100.0(384)
성인지적 정책			
관보나 서울시 소식지를 통해서	0.7	-	0.1 (1)
업무지침을 통해서	6.4	7.1	6.6 (11)
주변 사람들로부터	5.0	-	4.2 (7)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해서	55.8	17.9	49.5 (83)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6.4	60.7	15.6 (26)
여성부 및 관련부서의 발간책자나 보고서를 통해서	15.0	7.1	13.8 (23)
인터넷을 통해서	5.7	3.6	5.4 (9)
기타	5.0	3.6	4.8 (8)
계	100.0	100.0	100.0(168)
성별영향평가, 성분석, 양성평등분석			
관보나 서울시 소식지를 통해서	0.6	-	0.1 (1)
업무지침을 통해서	5.0	7.4	5.3 (11)
주변 사람들로부터	4.4	-	3.9 (8)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해서	49.2	18.5	45.2 (94)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8.3	63.0	15.4 (32)
여성부 및 관련부서의 발간책자나 보고서를 통해서	12.7	11.1	12.5 (26)
인터넷을 통해서	9.9	-	8.8 (18)
기타(서적 등)	9.9	-	8.8 (18)
계	100.0	100.0	100.0(208)

주: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2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음.

2)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

(1) 관련 법/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

가장 많이 들어본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제도는 ‘여성발전기본법(1995)’이었고

(58.7%), 다음은 ‘여성정책책임관제도 및 여성정책담당관제도’로(55.9%), 이 두 법/제도에 대해서만 과반수 이상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국제연맹(IULA)의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 채택’은 서울시의 제도 채택임에도 불구하고 들어본 경험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22.1%).

<표 3-13> 관련 법/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χ^2
여성발전기본법(1995)				
들어본 적 있다	62.7	58.2	58.7(432)	0.604
들어본 적 없다	37.3	41.8	41.3(304)	
계	100.0	100.0	100.0(736)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들어본 적 있다	36.6	30.9	31.6(232)	1.077
들어본 적 없다	63.4	69.1	68.4(503)	
계	100.0	100.0	100.0(735)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1995)				
들어본 적 있다	24.4	24.3	24.4(179)	0.000
들어본 적 없다	75.6	75.7	75.6(556)	
계	100.0	100.0	100.0(735)	
UN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 비준(1984)				
들어본 적 있다	38.3	27.9	29.0(213)	3.784*
들어본 적 없다	61.7	72.1	71.0(521)	
계	100.0	100.0	100.0(734)	
모든 중앙부처 여성정책책임관제도/ 6개 중앙부처 여성정책담당관제도				
들어본 적 있다	62.2	55.1	55.9(410)	1.503
들어본 적 없다	37.8	44.9	44.1(324)	
계	100.0	100.0	100.0(734)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국제연맹(IULA)의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을 채택				
들어본 적 있다	22.0	22.1	22.1(162)	0.001
들어본 적 없다	78.0	77.9	77.9(572)	
계	100.0	100.0	100.0(734)	

*p < .05

전반적으로 1차조사 응답자가 2차조사 응답자보다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관련 법/제도는 성인지적 정책 교육 커리큘럼에서 제외되

있거나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 비준(1984)’을 제외하고는 1차조사와 2차조사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지적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에 대한 교육이 좀더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제도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평균 3.89)과 ‘여성정책책임관제도/여성정책담당관제도’(평균 3.07)로, 이 두 법/제도에 대해서만 보통(3.0) 이상 인지하고 있었다. 즉, 들어본 경우에도 그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제도의 인지 정도에 있어서는 1차조사와 2차조사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14>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평균비교

구분	전체	1차조사	2차조사	T값
여성발전기본법	2.94	2.92	3.13	-1.179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3.89	2.89	2.82	0.028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2.74	2.73	2.91	-0.538
UN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 비준	2.78	2.77	2.91	-0.679
모든 중앙부처 여성정책책임관제도 6개 중앙부처 여성정책담당관제도	3.07	3.06	3.19	-0.775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국제연맹(ULA)의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을 채택	2.89	2.87	3.25	-1.057

주: 5점척도(1: 전혀 모름,,5: 잘 알고있음)

3. 성인지정책 수행에 관한 의견

1)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한 경험

(1)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한 경험 유무

과거 또는 현재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부서가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전체의 10.6%에 불과하였다. 이는 서울시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이 현재까지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차조사와 2차조사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시기는 주로 1996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부록표 3-4>참조).

<표 3-15>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추진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시책추진 경험 있다	11.0	6.6	10.6
시책추진 경험 없다	89.0	93.4	89.4
계 (명)	100.0 (673)	100.0 (61)	100.0 (734)

$\chi^2=1.160$

직급별로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 경험을 비교하면 5급 이상의 경우 13.9%인 반면 6급 이하는 8.7%로, 5급 이상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인원 부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구분한 후 다시 성별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아래 <표 3-16>과 같이 5급 이상의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5급이상 여성은 38.9%, 남성은 12.2%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한 경험이 훨씬 많았다. 그러므로 고위직급의 여성공무원이 충원되어야만,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6> 성별/직급별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5급 이상			6급 이하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있다	12.2	38.9	13.9	8.6	8.7	8.7
없다	87.8	61.1	86.1	91.4	91.3	91.3
계 (명)	100.0 (263)	100.0 (18)	100.0 (281)	100.0 (267)	100.0 (183)	100.0 (450)
χ^2	10.064**			0.002		

**p < .01

(2)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한 시책명

부서별로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표 3-17>로 정리하였다. 서울시의 부서 중 ‘복지여성국’이 관련 행사나 지원사업,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월등히 많은 성 관점을 통합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행정국과 감사관, 환경국 등도 시책에 성별영향 반영을 상당수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책명 중 각 부서마다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이나 구성비율, 채용 및 승진 등의 인사관련 시책이 많았다.

<표 3-17> 부서별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명

구분	부서	시책명(시행시기)
1차조사	홍보기획관	- 여론조사(2000)
	감사관	- 성비를 고려한 인사정책(1990)
		- 설계시공시 성별 편의시설 반영(1999)
		- 위원회 구성 및 운영(2000)
		- 감사 분야(2000)
		- 여성장애인 복지(2001)
	- 수방대책 점검	
비상기획관	- 무허가 건물단속(1960) - 야간근무(1998)	
교통국	- 모자보건법에 의한 영유아사업, 임신부보호사업(1999)	
정보화기획단	- 여성우선순위채용(2002)	
경영기획실	- 법령용어 중 여성차별적 용어개정(1999)	
	- 위원 위촉(2002)	
	-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에 여성변호사 추천(2002)	

(계속)

<표 3-17> 부서별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명(계속)

구분	부서	시책명(시행시기)
1차조사 (계속)	환경국	-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고려(1995) - 공원 화장실 설계시(1995) - 주민의식동향조사(2000) - 시정참여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행정국	- 승진심사, 보직경로(1995) - 여성채용목표제(1995) - 창업관련(2000)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2001) - 대체인력 수입(2001) - 승진관련 여성공무원 우대(2002)
	재무국	- 시민위원회 위원위촉시 일정수 여성 위촉(1998) - 위원회 구성비율(2002)
	복지여성국	- 가정도우미(1990) - 여성정책 수립(1996) - 위원회에 여성위원 가입(1997) - 위원회에 여성참여 제고방안 추진(1998) - 정책결정여성참여위원회(1999) - 인사위원회, 여성위원회 참여(1999) - 서울시 여성정책3개년계획(1999) - 여성자원봉사학교 운영(1999) - 여성공무원 승급제도 등 여성정책 전반(2000) - 위원회 여성참여율 30% 달성(2000) - 여성주간행사(2000) - 남녀직원배치(2001) - 저소득시민자활근로사업(2001)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2001) -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2001)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도우미 지원(2003)
	산업국	-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우대(2001) - 회의개최 및 행사개최시(2001) - 재택근무(2002)
	문화국	- 일본 젊은 여성관광객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2001)
	청계천복원추진본부	- 시민의 날 행사(1996)
	기술심사담당관	-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정(2000) - 여성휴게실(2000)
	도시계획국	- 현장현업분야(1980) - 공채시험(1999)
	건설기획국	- 규제업무의 대민접촉시(1998)
	주택국	- 모자가정 주택지원(1998) - 여직원 특별휴가 실시(2003)
	소방방재본부	- 위원회 구성시(1990)
	2차조사	

주: 부서는 현재 응답자의 부서이며, 이전 근무부서가 현 소속부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경험이 현재 소속부서에서 시행된 것은 아님.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때 사용한 방법을 모두 표시하게 한 결과, ‘부서의 내부지침의 작성과 활용’을 전체의 34.7%가 선택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다음은 ‘성별통계의 작성과 활용’(30.7%), ‘전문가 자문’(30.7%)의 순으로 응답율이 높았다. 따라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단기에 성인지적 정책을 도입하는 데는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부록표 3-5>참조).

(3)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효과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 즉 ‘효과적이었다’(54.5%)와 ‘매우 효과적이었다’(11.7%)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에 비하여 많았다.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집행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성과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8>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효과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효과가 없다	1	1.3
거의 효과가 없다	4	5.2
그저 그렇다	21	27.3
효과적이다	42	54.5
매우 효과적이다	9	11.7
계	77	100.0

(4) 시책에 성별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

시책에 성별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항목은 ‘우리 부서 업무와는 무관하므로’(80.4%)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직접 부서의 업무에 적용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을 받은 2차조사 응답자들 역시 전체 비율에 비하면 조금 낮기는 하지만 67.3%가 부서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 ‘방법을 잘 몰라서’(18.4%)와 ‘예산이나 인력 등의 자원이 부족해서’(10.2%)가 1차조사보다는 훨씬 많이

나타났다.

<표 3-19> 성별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우리부서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81.6	67.3	80.4
방법을 잘 몰라서	8.9	18.4	9.6
성인지적 정책에 대해 반대하므로	1.4	-	1.3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1.1	-	1.0
예산이나 인력 등의 자원이 부족해서	1.4	10.2	2.1
기타	5.7	4.1	5.5
계 (명)	100.0 (564)	100.0 (49)	100.0 (613)

주: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χ^2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음.

2)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할 시책에 관한 의견

(1)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할 시책 유무

소속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 있는 시책 중 성별영향을 고려할 사업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6%에 불과하였다. 서울시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성별영향을 고려할 시책이 무엇이고 성별영향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사료된다.

<표 3-20>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 유무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성별영향을 고려할 시책이 있다	9.7	8.6	9.6
성별영향을 고려할 시책이 없다	92.0	91.4	90.4
계 (명)	100.0 (672)	100.0 (58)	100.0 (730)

$\chi^2 = 0.068$

한편 5급 이상 공무원이 6급 이하보다는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할 시책이 있다

고 보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5급 이상의 경우 여성의 43.8%가 성인지적 시책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남성은 12.9%에 그쳐 성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즉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부록표 3-6>참조).

(2)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명

부서별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을 살펴보면 부서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과거의 추진경험이 있는 시책들과 비교할 때(<표 3-17> 참조)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 여성의 이슈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기획관, 정보화기획단,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도시계획국, 건설기획국, 소방방재본부 이상 6개 부서는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할 시책이 무엇인지 응답하지 못함으로써, 소속부서의 시책을 성 관점으로 전혀 통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3-21>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명

구분	부서	시책명
1차조사	언론담당관	- 여성대상 매체 분석
	감사관	- 구성인원에 대한 성비 고려 - 감사분야
	비상기획관	- 야간근무 - 여성용화장실 비데 설치
	경영기획실	- 성인지적 예산편성 - 위원회, 법률고문 등에 여성참여 - 여성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
	행정국	- 상위직 여성공직자 진출을 위한 인재양성 - 인사 분야 - 후생복지 분야 - 인사발령시 남녀비율 고려
	산업국	- 여성기업 우대
	문화국	- 청소년 시책 - 영화진흥사업 - 여성가치관 평가시
	재무국	- 위원회 구성시 여성참여율 제고

(계속)

<표 3-21>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명(계속)

구분	부서	시책명
1차조사	복지여성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모자녀 보육시설 확충 - 가족복지, 부부양성평등 프로그램 - 위원회의 여성참여 - 정책결정시 여성위원회 활동 - 여성노인 취업활성화 시책 - 여성노숙자 편의시설 - 자활사업 - 여성장애인 복지 시책 - 여성장애인 취업정책 - 여성을 위한 기술교육센터
	환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성조사 - 공원내 이용프로그램
	교통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여성전용공간 - 교통위반차량 단속활동
	기술심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신규 또는 추가 위촉시
	주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관 분야 - 모부자가정 주택지원 - 남녀특성상 나타나는 비교우위의 성별차이를 제도에 반영 - 심의위원 구성비율
2차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탁아문제 - 보건소여직원 자녀보호시설 - 남녀평등교육

3)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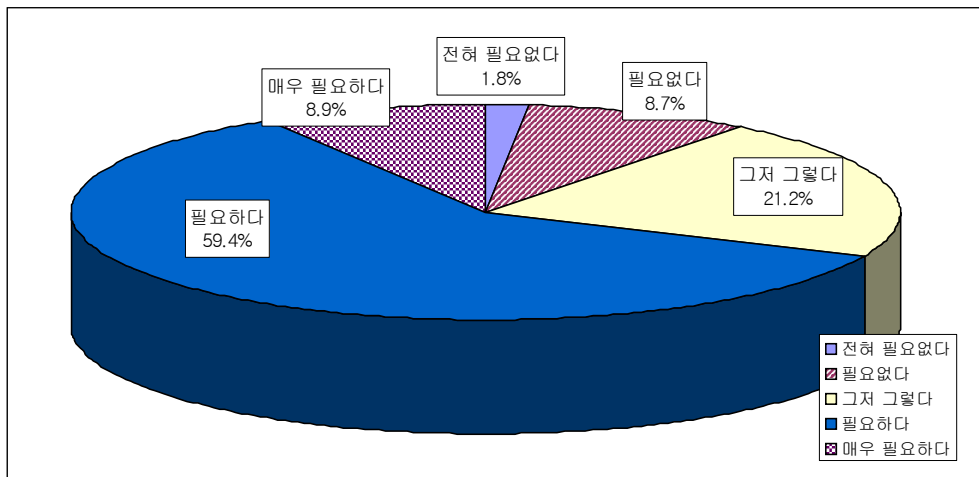
일반시책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요소를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집행 하듯이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인 ‘전혀 필요없다’(1.8%)와 ‘필요없다’(8.7%)가 전체의 10.5%인데 반해, ‘필요하다’(59.4%)와 ‘매우 필요하다’(8.9%)는 긍정적 의견이 68.3%로 지배적이었다. 특히, 2차조사의 경우 필요없다는 의견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교육 후에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22>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전혀 필요없다	1.9	-	1.8
필요없다	9.4	-	8.7
그저 그렇다	21.8	14.8	21.2
필요하다	58.8	67.2	59.4
매우 필요하다	8.1	18.0	8.9
계 (명)	100.0 (678)	100.0 (61)	100.0 (739)

주: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χ^2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음.



<그림 3-3>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 필요성을 성별·연령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전체와 1차조사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남성 평균은 3.56점인 반면 여성은 3.90점이었고 ($T=-5.224^{***}$), 1차조사 응답자 남성은 3.53점이었고 여성은 3.86점으로($T=-4.945^{***}$)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평균 비교시, 20대(3.88), 30대(3.76), 40대(3.58), 50대(3.57)의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F=3.610^*$). 1차조사 결과는 20대가 평균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3.55로 오히려 50대(3.62)보다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F=3.482^*$).

<표 3-23>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의 평균비교

구분	전체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3.65	3.62	4.03
성별			
남성	3.56	3.53	3.95
여성	3.90	3.86	4.21
T값	-5.224***	-4.945***	-1.643
연령별			
20대	3.88	3.87	4.00
30대	3.76	3.73	4.04
40대	3.58	3.55	4.12
50대 이상	3.57	3.62	3.94
F값	3.610*	3.482*	0.263

주: 5점 척도(1: 전혀 필요없다,,,5: 매우 필요하다)

***p < .001, *p < .05

다음 <표 3-24>를 살펴보면, 여성관련 부서 재임경험에 따라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매우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27.4%로 경험이 없는 응답자(6.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필요없다’와 ‘전혀 필요없다’의 부정적인 응답 역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3.7%(각각 11.0%와 2.7%)로 10.0%인 경험이 없는 경우(각각 1.7%와 8.3%)보다 더 많아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매우 극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여성관련 부서의 재임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성인직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표 3-24> 여성관련 부서 재임경험별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재임경험 있음	재임경험 없음	전체
전혀 필요없다	2.7	1.7	1.8
필요없다	11.0	8.3	8.6
그저 그렇다	13.7	22.3	21.4
필요하다	45.2	60.8	59.2
매우 필요하다	27.4	6.9	9.0
계	100.0	100.0	100.0
(명)	(73)	(650)	(723)

$\chi^2 = 36.494^{***}$, $^{***}p < .001$

4)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시 가장 큰 애로점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39.3%), ‘관련 법/제도의 미비’(19.7%), ‘인력 부족’(12.9%)이었다. 1차조사와 비교할 때, 2차조사에서는 ‘유관기관의 협조 부족’(14.5%), ‘예산 부족’(11.3%), ‘리더의 의지 부족’(11.3%)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25>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시 가장 큰 애로점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관련 법/제도의 미비	19.3	24.2	19.7
인력 부족	14.0	1.6	12.9
예산 부족	6.5	11.3	6.9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39.5	35.5	39.3
리더의 의지 부족	9.5	11.3	9.6
유관기관 협조 부족	5.0	14.5	5.8
기타	6.2	1.6	5.8
계 (명)	100.0 (664)	100.0 (62)	100.0 (726)

$\chi^2 = 20.740^{***}$, $***p < .001$

5) 전문가 및 타부서의 개입이 적절한 단계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 및 타부서가 도움을 준다면 어느 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책입안단계’가 76.6%로 가장 압도적으로 선택되었고, 다음은 ‘정책결정단계’(14.0%)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와 같이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무원들이 정책과정 초기의 전문적인 개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26> 전문가 및 타부서의 개입이 적절한 단계(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체	669	100.0	62	100.0	731	100.0
정책입안단계	531	79.4	38	61.3	569	76.6
정책결정단계	86	12.9	18	29.0	104	14.0
정책집행단계	60	9.0	12	19.4	72	9.7
정책점검 및 평가단계	65	9.7	9	14.5	74	10.0
기타	13	1.9	1	1.6	14	1.9

주1: 빈도는 항목별로 표시한 경우만 계수한 것이고, 백분율은 각각 1차조사 669명, 2차조사 62명, 전체 731명에 대한 비율임.

주2: 무응답 12명 제외하였음.

6)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과정에서의 자원의 필요성

<표 3-27>을 보면,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에 필요한 자원의 모든 항목 평균이 3.00을 넘어,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상급자의 이해와 실행의지’(3.47),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3.41), ‘담당공무원의 전문성’(3.36), ‘유관기관의 협조’(3.35) 등이 전체 평균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러한 자원에 대한 필요가 더욱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편 1차조사와 2차조사의 각 항목별로 평균차이가 유의하였고, 전체적으로 2차조사의 평균이 더 높았다. 1차조사의 순위는 전체 평균 순위가 동일하였으나, 2차조사의 경우 ‘상급자의 이해와 실행의지’(4.03)에 이어서, ‘예산 지원’(3.98), ‘유관기관의 협조’(3.88), ‘관련 법률 구비 및 제정’(3.77) 등의 항목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즉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은 보다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자원의 필요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27> 시책추진과정에서 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비교

구분	전체	1차조사	2차조사	T값
성별통계 자료	3.20	3.17	3.56	-2.713**
자문 가능한 전문가	3.28	3.24	3.72	-3.327***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3.36	3.33	3.75	-2.938**
관련 법률 구비 및 제정	3.28	3.24	3.77	-3.909***
성별영향평가 정책지침	3.16	3.12	3.64	-3.734***
성별영향평가 정책지표	3.15	3.10	3.66	-4.018***
국내 및 해외 관련 사례	3.24	3.21	3.67	-3.292***
예산 지원	3.29	3.23	3.98	-5.181***
상급자의 이해와 실행의지	3.47	3.42	4.03	-4.385***
유관기관간의 협조	3.35	3.30	3.88	-4.231***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	3.15	3.11	3.64	-3.878***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3.41	3.36	3.93	-4.269***

주: 5점척도(1: 전혀 불필요,,5: 매우 필요)

***p < .001, **p < .01

7) 현 서울시 부서에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적용 가능성

현 서울시의 19개 부서 중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이 4.29로 유일하게 4.00(적용 가능하다)를 넘으면서 다른 부서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다음은 ‘문화국’(3.68), ‘홍보기획관’(3.50), ‘정보화기획단’(3.39), ‘행정국’(3.38), ‘산업국’(3.31), ‘언론담당관’과 ‘환경국’(3.25), ‘재무국’(3.21), ‘경영기획실’(3.21)의 순이었다. 이 중 홍보기획관과 정보화기획단은 앞으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할 시책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들 부서에 대한 적용 지침 제공이나 홍보 등이 요망된다(<표 3-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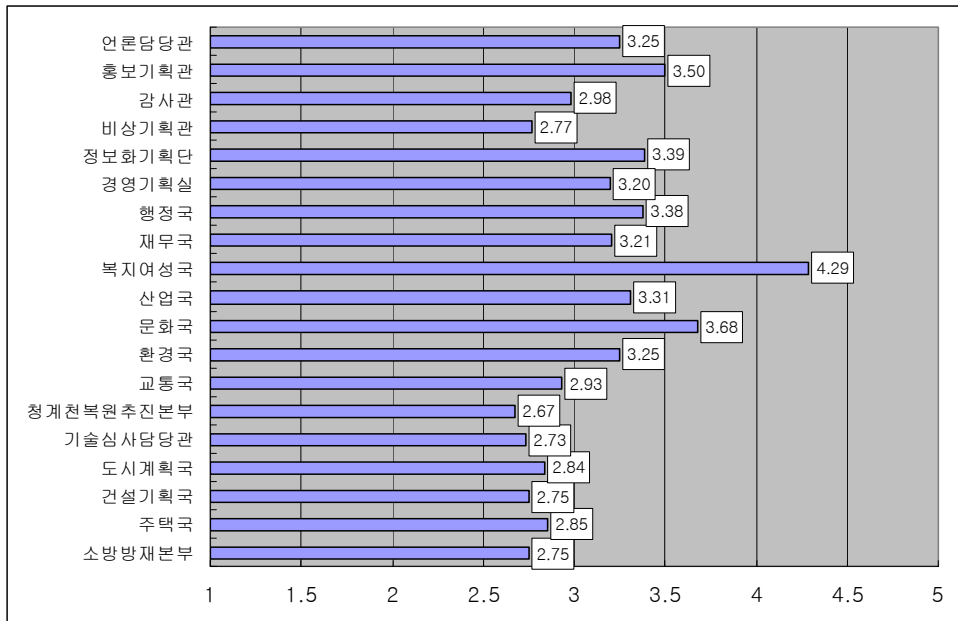
그리고 위에 제시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모두 3.00 이하의 평균을 나타내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사실상 성인지적 정책이나 성별영향평가는 모든 부서의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개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3-28> 현 서울시 부서에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적용 가능성 평균비교

구분	전체	1차조사	2차조사	T값
언론담당관	3.25	3.21	3.78	-5.974***
홍보기획관	3.50	3.46	3.93	-4.706***
감사관	2.98	2.95	3.32	-3.073**
비상기획관	2.77	2.75	3.00	-2.139*
정보화기획단	3.39	3.35	3.82	-3.755***
경영기획실	3.20	3.16	3.68	-4.429***
행정국	3.38	3.33	3.96	-6.232***
재무국	3.21	3.16	3.84	-5.471***
복지여성국	4.29	4.28	4.47	-1.752
산업국	3.31	3.29	3.48	-1.661
문화국	3.68	3.64	4.09	-3.881***
환경국	3.25	3.21	3.78	-4.047***
교통국	2.93	2.89	3.44	-4.117***
청계천복원추진본부	2.67	2.63	3.18	-4.748***
기술심사담당관	2.73	2.68	3.25	-4.952***
도시계획국	2.84	2.79	3.40	-5.206***
건설기획국	2.75	2.71	3.25	-4.720***
주택국	2.85	2.81	3.33	-4.464***
소방방재본부	2.75	2.72	3.18	-3.891***

주: 5점척도(1: 전혀 적용할 수 없다,,5: 매우 적용가능하다)

***p < .001, **p < .01, *p < .05



<그림 3-4> 현 서울시 부서에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적용 가능성

8) 성별영향 관련 교육 및 훈련

성별영향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전체의 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차조사의 대상자들은 평등의식 교육과정 중 성인 지적 정책이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율이 72.9%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공무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을 좀더 명확히 밝히고, 커리큘럼이나 교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서울시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조사에서는 3.1%만이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확충해야 함 또한 이슈화된다.

<표 3-29>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경험 있다	3.1	27.1	5.0
경험 없다	96.9	72.9	95.0
계 (명)	100.0 (676)	100.0 (59)	100.0 (735)

$\chi^2 = 65.447^{***}$, $***p < .001$

한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 실시할 대상에 관한 의견으로는,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도입이 시급한 부서를 우선적으로’가 55.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성별영향을 고려한 정책 도입은 ‘우리 부서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연관하여 숨겨진 의미를 읽어볼 수도 있다. 2차조사에서는 1차조사에 비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필수과정으로’(33.3%)와 ‘고위직급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15.0%)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율이 훨씬 높았다. 특히 이번 2차조사의 평등의식교육 대상자가 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임을 감안하면, 5급 이상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부록표 3-9> 참조).

4.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1)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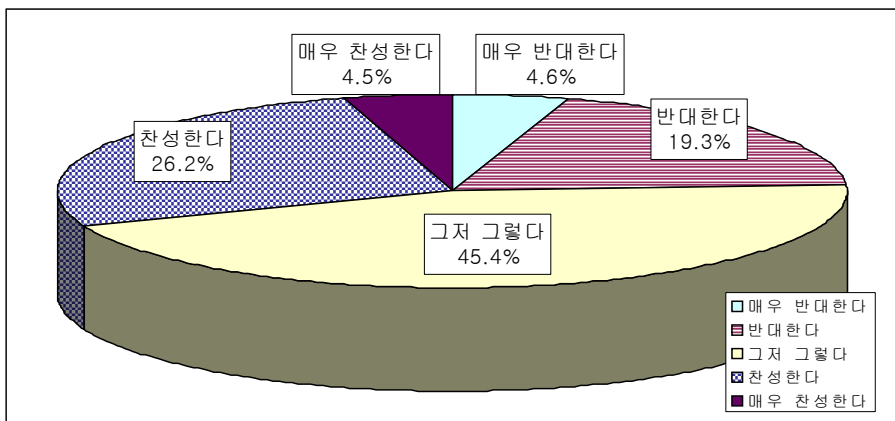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찬성을, 즉 ‘매우 찬성한다’(4.5%)와 ‘찬성한다’(26.2%)의 비율이 30.7%인데 비해, 반대하는 비율은 23.9%(‘매우 반대한다’(4.6%), ‘반대한다’(19.3%))를 차지하여, 찬성율이 조금 더 높았다. 또한 1차조사와 2차조사의 결과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차조사는 찬성율(26.9%)과 반대율(25.6%)의 차이가 1.3%인 반면, 2차조사는 찬성율이 72.5%로 반대율(4.8%)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2차조사의 응답자들은 교육의 효과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0>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매우 반대한다	5.0	-	4.6
반대한다	20.6	4.8	19.3
그저 그렇다	47.5	22.6	45.4
찬성한다	23.6	54.8	26.2
매우 찬성한다	3.3	17.7	4.5
계	100.0	100.0	100.0
(명)	(674)	(62)	(736)

$\chi^2 = 65.900^{***}$, $***p < .001$



<그림 3-5>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한편 성별로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전체 평균이 2.92로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한 데 반하여, 여성은 3.45로 찬성하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다(T=-7.203***). 이러한 결과는 1차조사와 2차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더 긍정적이었다. 2차조사의 남성응답자들은 평균 3.60으로 상당히 높았으나, 4.40인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여성의 높은 지지에는 미치지 못했다.

<표 3-31>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평균비교

구분	전체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3.07	2.99	3.85
남성	2.92	2.87	3.60
여성	3.45	3.34	4.40
T값	-7.203***	-6.396***	-4.422***

주: 5점 척도(1: 매우 반대한다,,5: 매우 찬성한다)

***p < .001, **p < .01, *p < .05

여성관련 부서 재임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찬성하는 비율이 ‘찬성한다’ 31.5%와 ‘매우 찬성한다’ 12.3%로 총 43.8%를 차지하여, 재임경험이 없는 경우(‘찬성한다’(25.6%)와 ‘매우 찬성한다’(3.5%)로 총 29.1%)보다 훨씬 더 제도 도입에 대한 호응이 좋았다. 재임경험이 없는 경우는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47.0%로 가장 많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뚜렷한 주관에 없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32> 여성관련부서 재임경험별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

(단위: %, 명)

구분	재임경험 있다	재임경험 없다	전체
매우 반대한다	8.2	4.3	4.7
반대한다	16.5	19.6	19.3
그저 그렇다	31.5	47.0	45.4
찬성한다	31.5	25.6	26.2
매우 찬성한다	12.3	3.5	4.4
계	100.0	100.0	100.0
(명)	(73)	(648)	(721)

$\chi^2 = 18.150^{***}$, $^{***}p < .001$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서'가 39.4%로 가장 많아,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가 과중해지므로'(15.2%)와 '시기상조이므로'(15.2%), '평가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1.5%)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로 등장했다(<부록표 3-10>참조).

2)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시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시기로는 '2~3년 후'가 32.1%, '4~5년 후'가 30.4%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비교할 때 1차조사의 응답자가 2차조사보다 좀더 천천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제도에 대해서 이해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33>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적당한 도입시기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내년부터	14.5	30.5	15.8
2~3년 후	31.2	42.4	32.1
4~5년 후	30.9	25.4	30.4
6~10년 후	14.2	-	13.0
11년 이후	9.3	1.7	8.6
계	100.0	100.0	100.0
(명)	(648)	(59)	(707)

주: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χ^2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음.

3)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평가주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을 때 평가주체로는 '외부 전문가'(40.4%), '여성정책담당 부서'(36.3%), '부서별 자체평가'(28.1%)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차조사 결과는 전체와 동일한 순서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2차조사는 '여성정책담당부서'(42.9%), '일반시민'(34.9%), '외부 전문가'(33.3%)의 순서로 적절한 평가주체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다. 평가주체는 단 한 집단만 참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34> 적절한 평가주체(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체	659	100.0	63	100.0	722	100.0
부서별 자체평가	186	28.2	17	27.0	203	28.1
여성정책담당부서	235	35.7	27	42.9	262	36.3
외부전문가	271	41.1	21	33.3	292	40.4
시민단체	89	13.5	14	22.2	103	14.3
일반시민(남성과 여성)	129	19.6	22	34.9	151	20.9
기타	10	1.5	1	1.6	11	1.5

주1: 빈도는 항목별로 표시한 경우만 계수한 것이고, 백분율은 각각 1차조사 659명, 2차조사 63명, 전체 722명에 대한 비율임.

주2: 무응답 21명 제외하였음.

4)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효과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효과를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에 대한 효과가 3.39, ‘효과성’이 3.23, ‘효율성’이 3.14로 나타나, 형평성에 대한 효과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사회적 파급효과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3.62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양성평등사회에 기여’는 3.54, ‘성인지적 정책의 확산’은 3.50이었고, ‘남성의 삶의 질 향상’은 3.0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평가받았다. 즉 성별영향평가란 여성과 남성을 상이한 특성과 관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은 향상하지만, 남성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크게 향상을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2차조사의 평균점수가 1차조사보다 훨씬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차조사에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4.15)과 ‘양성평등사회에 기여’(4.02)에 대해서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3-35>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평균비교

구분	전체	1차조사	2차조사	T값
정책의 효율성	3.14	3.10	3.63	-4.753***
정책의 효과성	3.23	3.19	3.65	-4.129***
정책의 형평성	3.39	3.36	3.77	-3.928***
성인지적 정책의 확산	3.50	3.47	3.87	-3.712***
양성평등사회에 기여	3.54	3.49	4.02	-5.042***
여성의 삶의 질 향상	3.62	3.57	4.15	-5.795***
남성의 삶의 질 향상	3.06	3.02	3.52	-3.910***

주: 5점척도(1: 전혀 효과가 없다,,5: 매우 효과적이다)

***p < .001

5. 정책적 시사점

1) 성인지적 정책 이해도 증진 방안

성인지적 정책 관련 개념 및 법·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나 인지 정도 수준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줌에 따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 증진의 필요성을 절실하다. 특히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추진 의향이나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여성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인지수준은 더 낮았다. 또한 직급별로도 하위직 공무원이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여성과 하위직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제공의 방법으로는 우선 효과적인 발간책자나 보고서 작성 및 배포의 방법이 있다. 보직순환이 가능한 여성관련 부서의 재임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행 평등의식 교육 과정에서는 성인지적 정책 관련 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 내용을 포함한 커리큘럼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여성개발원내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문 교육을 받은 강사 초빙과 프로그램 도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별영향을 고려한 정책 수행 활성화 방안

성인지적 정책의 수행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하고, 또한 추진 의사가 분명하여야 한다.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추진 경험과 수행 의향에 있어서 5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의 응답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므로,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충원이 성인지적 정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여성부서 재임경험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역시 성인지적 정책 수행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데는 여성부서 재임 경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성인지적 정책 필요성에 대해 67%가 동의하고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의 성과면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66%인 반면, 시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인력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는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사례 소개와 정책 수행 방법 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특히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서별, 분야별 사례의 소개가 업무에 직접적 연관하여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조직구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노력은 여성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주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시적인 결과로 1차조사와 2차조사의 응답자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교육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행정기반 자원으로 가장 시급한 항목은 상급자의 이해와 실행의지,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교육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고위직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이해와 실행의지를 고무시키고, 정책적 이해를 돕는 교육과 교육자료 제작으로 공무원들을 성인지 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현재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자원 구비 현황을 살펴볼 때, 국내 및 해외관련 사례, 성별영향평가 정책 지침, 성별영향평가 정책 지표 등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초적인 자료의 구비가 우선되어야 성인지적 정책의 단기간내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단계 중에서는 전문가 및 타부서가 개입할 적절한 시기는 초기단계로, 정책입안단계에서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책입안단계에서 젠더 전문가

가 적극 개입하여, 성 분리 통계를 수집하였는지,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욕구를 별도로 고려하였는지, 정책목표에 양성을 고르게 반영하였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적용이 가능한 서울시의 부서로는 복지여성국, 문화국, 홍보기획관, 행정국, 산업국, 언론담당관, 환경국, 재무국, 경영기획실 순이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부서부터 단계적으로 성인지적 정책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저항을 줄이는데 타당성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서들에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해외사례, 지침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책 적용 후 효과성 측면을 평가하여 이를 홍보한다면 순차적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찬성율이 31%인데 비해 2차조사의 찬성율은 73%로 조사되어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평가제도 도입에 앞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편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와 ‘업무가 과중해지므로’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응답자가 많아,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부서별 평가와 기존의 평가제도에 편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볼 수 있다.

적정 도입시기는 향후 2~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 기간동안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가주체로는 외부전문가,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일단 서울시에서 여성관련 부서 중 한 부서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여기에 외부 젠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초기 공무원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성인지적 정책 도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여성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정책임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성인지적 정책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긍정적 사례를 모은 책자의 발간도 도움이 될 것이다.

第Ⅳ章 서울시정의 성별영향평가

- 제 1 절 성별영향평가틀 구성의 기본방향
- 제 2 절 서울시 성별영향평가틀 구성
- 제 3 절 서울시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사례
- 제 4 절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제언점

제 IV 장 서울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 1 절 성별영향평가틀 구성의 기본방향

1. 평가 목적과 평가 범위

성별영향평가란 성을 기준으로 정책의 가치와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평가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¹⁹⁾ 성별영향평가는 성이라는 변수가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에 중요한 또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는 전제 하에, 성별에 따른 정책의 차별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란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사회적 논의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며,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이론적 기반, 정보나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서울시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공무원의 37%만이 성별영향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으며,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것에서 알 수 있다.

모든 정책평가가 그렇듯 성별영향평가도 평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정책평가제도 도입 초기에는 평가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이해 부족,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평가제도가 정착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평가제도 도입단계에서 평가기능은 정책 수립과 집행의 핵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의사소통 지원, 학습기회 등에 초점을 둘

19) 정책평가를 하는 연구자에 따라 정책과 사업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거나 또는 구분하는 입장이 있다. 정책과 사업을 구분하는 경우 정책은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보며, 사업은 정책수단이 구체화된 것으로 하위수준의 정책으로 본다. 정책평가와 사업평가를 혼용하여 정책과 사업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정책과 사업이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 동질하다는 점에서 같은 개념으로 본다. 정책 자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데,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 사업을 개념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으나, 정책의 대부분이 여러 개의 하위 시책이나 사업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서울시의 성별영향평가는 개별적 시책이나 사업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를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로 본다. 서순복(200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평가제도의 실태와 한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pp.83-105., 김재인 외(2002), 여성정책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44-45.

필요가 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정책평가제도인 성과주의예산제도, 심사평가제도, 목표관리제에 비해 공무원의 이해부족, 무관심, 저항의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제도 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²⁰⁾

서울시의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서울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일차적 목적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본격적 도입 이전에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과정을 통해 평소에 보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학습,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별영향평가가 정책 과정의 각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사고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며, 그리고 정책이 초래할 성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과와 관련된 정보제공 기능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²¹⁾

이러한 평가목적 또는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의 범위는 정책과정 평가와 정책성과 평가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조사에서도 77%의 공무원들이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시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제공이란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서울시 성별영향평가들은 정책입안·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정책 전 과정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정책단계는 성별영향평가지표를 활용할 일차적 대상자가 공무원이므로 현실적으로 정책형성이 이루어지는 정책입안·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3단계로 분류하기로 한다.

20) 서울시는 2001년부터 각 실·국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전면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가 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심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운영에 따른 인사와 예산운영권을 실·국장에게 부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이의 평가장치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 [서울특별시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이러한 정책평가제도를 적극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형식적인 자체평가,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자료제출 기피와 제출된 자료의 부실, 평가담당부서의 인력 부족,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 부족, 부적절한 평가지표이다. 평가제도도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제도도 정착되기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책 성별영향평가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시 통합성과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1) 정책평가의 일반적 목적 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정부업무의 책임성 확보, 행정개혁 활용, 행정체제와 업무의 적합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김명수, 2000, 공공정책평가론.

이러한 평가목적과 평가범위를 고려하여 서울시 성별영향평가들은 일반정책의 입안과 결정, 집행, 평가라는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여성개발원의 성분석 모형을 준거로 하여 구성하였다.

2. 평가기준

성별영향평가는 개념상으로는 양성의 동등한 혜택과 평등을 위한 것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출발점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캐나다, 뉴질랜드, 국제기구의 성분석 모형의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여성에 초점을 두고 여성을 부각하고 있다. 캐나다의 성분석 모형은 양성의 평등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면, 뉴질랜드의 경우 여성에 초점을 둔 형평성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성별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이 성평등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두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증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성별영향평가는 장기적으로는 양성의 동등한 혜택과 평등을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에 초점을 둔 형평성을 우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지표는 여성에 초점을 두어 구성한다.

3. 평가의 주체

정책평가의 주체와 관련해서 내부관리유형, 시민주도유형, 내부관리유형과 시민주도유형이 통합된 거버넌스 유형 세 가지가 있다. 서울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논의가 막 시작되려는 현 상황을 고려하고, 평가의 초기 목적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하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지원, 학습기회 제공임을 감안한다면,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의 초기 평가주체는 전문가가 평가에 포함된 내부관리유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시 여성정책과에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전문가가 여성정책과와 평가대상 사업부서 실무자와 공조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로서 제안된 정책이 향후 정책형성에 환류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사업담당 실무부서와 여성정책과에서 평가한다. 전문가가 포함된 내부관리유형으로 3년 간 서울시 정책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연구자료가 축적되면서 성별영향평가 모형도 정교화시킬 수 있다.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연구의 축적으로 정책 유형별로 일정한 유형의 성별영향평가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평가주체가 거버넌스유형으로 갈 수 있게 된다.

4. 평가의 측정

환경이나 교통, 인구영향평가와 달리 성별영향평가에서 다루는 문제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많아서 지표의 계량화와 평가결과의 계량화가 어렵다. 그리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라는 주제 자체가 현재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사례연구는 극히 소수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정책 성별영향평가 사례는 전무하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성별영향평가의 속성과 함께 성별영향평가의 계량화를 논의할 만큼 이론적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표 계량화와 평가결과의 계량화를 고려하여 서울시 성별영향평가들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평가결과를 계량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결과 내용에 대한 논의, 평가영역별 가중치 부여, 평점 척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각 평가자들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평가 시기

정책평가는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처럼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획이 집행된 이후에 하는 사후평가가 있다. 인구, 교통,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구나 교통,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정책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영향평가 내용도 사회문화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집행, 정책평가 전 과정에 걸쳐 평가를 하도록 평가틀을 구성하였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인구, 교통, 환경영향평가처럼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 전반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 상황을 감안하면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2-3년 동안에는 성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전략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환류하는 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서울시 정책사업의 대부분은 3-4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사업이므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그 다음해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에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성복지정책보좌관 하에 성분석지원팀이 조직되면, 서울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을 해당부서와의 협의 하에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2 절 서울시 성별영향평가틀 구성

1. 정책과정 단계별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1) 정책입안과 결정단계

정책입안과 결정단계에서는 여성 관련 이슈와 문제 확인, 여성 관련 목표와 성과 예측이란 두 가지 평가영역으로 구성한다. 정책입안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여성 관련 이슈와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과 관련된 성별 통계 및 정보를 확보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슈와 문제 분석을 위해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활용하였는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여성 이슈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단체나 젠더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수렴 정도라는 두 가지를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정책과 관련해 여성 이슈나 문제가 확인된 후, 정책목표에 여성 관련 목표와 성과 예측이 포함되어야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여성 관련 목표와 여성 관련 성과지표 설정 여부, 정책결정 여성 참여 수준을 평가지표로 하여 여성 관련 목표와 성과 예측 영역을 평가한다.

2) 정책집행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정책전달과 예산·인력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여성 관련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정책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정책전달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전달 평가영역에서는 여성을 고려하여 정책홍보를 하였는지, 정책 전달을 하는데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 특히 여성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하였는지를 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예산과 인력 평가영역에서는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수준과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자의 성인지 수준을 지표로 설정한다.

3) 정책평가

정책평가단계에서 평가영역은 성과달성과 평가결과의 환류라는 두 영역으로 구성한다. 성과달성 영역 평가는 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한 여성 관련 성과지표 달성도, 그리고 정책이 여성능력향상·사회참여·성평등 향상에 미친 영향(outcome)이란 두 가지 성과지표로 평가한다.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로 제시된 정책제안들이 향후 정책형성에 피드백이 되어야만 성별영향평가의 의의가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평가결과의 활용과 확산, 향후 정책환류 조치를 평가지표로 설정한다.

서울시 성별영향평가들은 정책입안·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3단계로 구분되어 정책 단계별로 평가영역이 설정되었고, 평가영역에 따라 총 1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는 체제로 이루어졌다(<표 4-1> 참조).

<표 4-1> 서울시정의 성별영향평가틀

정책단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정책입안·결정	여성 관련 이슈와 문제 확인	① 정책과 관련한 성별 통계 및 정보의 확보, 활용 수준 ② 여성단체나 젠더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정도
	여성 관련 목표와 성과 예측	③ 여성 관련 목표 설정 여부 ④ 성과지표에 여성 관련 성과지표 설정 여부 ⑤ 정책결정에 여성 참여 수준
정책집행	정책전달	⑥ 정책 홍보에 여성대상집단 포함 여부 ⑦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정도
	예산과 인력	⑧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수준 ⑨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수준
정책평가	성과달성	⑩ 여성 관련 성과목표 달성도 ⑪ 여성능력향상, 사회참여, 성평등에 미친 영향
	평가결과의 환류	⑫ 평가결과의 활용과 확산, 향후 정책 환류를 위한 조치의 시행 여부

2. 평가 판단을 위한 지침

1) 정책입안·결정단계

(1) 여성 관련 이슈와 문제 확인

- ① 정책과 관련된 성별 통계 및 정보의 확보, 활용 수준
 - 정책과 관련된 여성 이슈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통계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였는가?
 -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소득계층, 혼인상태, 직업, 교육 수준 등) 통계자료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였는가?
 -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욕구와 경험의 차이점에 대해 자료 및 정보

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는가?

② 여성단체나 젠더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정도

- 정책과 관련해 여성단체나 젠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수렴을 했는가?
- 하였다면 누가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몇 회에 걸쳐 참여하였는가?

(2) 여성 관련 목표와 예측

③ 여성 관련 목표 설정 여부

- 정책 목표 설정과 목표집단에 여성과 관련된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는가?
- 정책 목표집단에 여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는가?

④ 여성 관련 성과지표 설정 여부

- 정책성과 예측에 여성을 목표로 하는 성과지표가 포함되어 있는가?
- 결정된 목표와 성과가 양성간의 평등과 형평성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는가?

⑤ 정책결정에 여성 참여 수준

- 정책방향과 사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추진위원회, 자문회의 등에 참여한 여성들은 누구이며,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였는가?

2) 정책집행단계

(1) 정책 전달

⑥ 정책 홍보에 여성대상 집단 포함여부

- 정책대상자가 사업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여성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홍보를 하였는가?
- 하였다면 수혜자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였는가?(활용매체 수, 홍보 횟수)

⑦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정도

- 성인지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과 NGO에 대한 파악을 하고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연계 노력을 한 기관의 수와 연계방법)

(2) 예산과 인력

⑧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수준

-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는가?(예산 총액에서 여성 관련 예산 비율)

⑨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수준

- 정책담당자가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정책담당자가 성인지적 교육 및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 업무담당자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3) 정책평가

(1) 성과 달성

⑩ 여성 관련 성과목표 달성도

- 여성과 관련하여 제공한 서비스의 양이나 질의 수준에 대한 측정을 하였는가?
- 하였다면 목표 달성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⑪ 여성 능력향상, 사회참여, 성평등에 미친 영향

- 정책이 여성의 능력향상, 사회참여, 성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가?
- 어떠한 평가가 나왔는가?

(2) 평가결과의 환류

⑫ 평가결과의 활용과 확산, 향후 정책 환류를 위한 조치의 시행 여부

- 여성 관련 성과목표와 영향평가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개선방안과 향후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점이 제안되었는가?
- 평가결과의 활용과 확산, 정책 환류를 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하였는가?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였는가?

제 3 절 서울시 정책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사례

개발된 성별영향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문화국 체육청소년과의 대안교육사업을 성별영향평가하였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 부서 중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업무가 많은 부서로 복지여성국에 이어 문화국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청소년 시책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문조사결과와 캐나다의 10대 학교 중퇴에 대한 성분석 사례에서 대안교육사업이 학교를 중퇴한 10대 여성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어,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서울시대안교육사업을 평가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외 대안교육사업을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서울시가 대안교육사업을 실시한지 3년이 지나면서, 탈학교 10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사업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대안교육사업 2004-2007년 향후 3개년 계획에서 대안교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안교육사업 1차(2001-2003년)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평가결과를 향후 계획에 환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대안교육사업이므로 평가사례로 선정하였다.

1. 서울시 대안교육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과정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2000년 11월에 하면서부터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1년 1월 대안교육사업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민

간, 청소년시설 운영자들이 모여 교육사업의 추진방향과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2001년 4월에는 서울시의 대안교육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로 서울시대안교육센터가 발족되었으며,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하고, 연세대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2)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은 학교 부적응, 가정문제,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만남과 배움을 통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배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가 대안교육사업을 위해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 2003년 지원한 총예산은 622,500천원(시 보조금 600,000천원, 시 기금 22,500천원)이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대안교육시범사업 운영, 대안교육 관련 정책 개발, 커리큘럼 개발, 교사교육 등이 있다. 2001년에는 대안교육 시범사업으로 3개 대안학교를 운영지원하였으나, 2003년 현재 8개 학교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향후 2004-2006년 기간 동안 서울시 대안교육 시범학교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표 4-2>는 향후 2004-2006년 서울시대안교육사업계획을 정리한 것이며, <표 4-3>은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8개 대안학교의 교육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2> 향후 2004-2006년 서울시 대안교육사업계획

연도	주요과제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도시형 대안학교 모델 내실화: 현장별 특성화 / 민간현장에너지의 공공화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선정, 평가 및 운영지원 방식 현장 및 참여청소년 확대: 총 14개 /500여명(현장 6곳 확대) 인력개발 관리: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양화 모색: 총 20개 /1000여명(현장 6곳 확대) 구 단위 이하 지역별 네트워크 긴밀화: 학습네트워크 및 지원 시스템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 교환학생제도 및 해외 지원봉사, 자기성찰 여행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안정화: 총 30개/1600여명(현장 10곳 확대) 학력 인정: 위탁교육과정/대안학교 인가 추진/방과후 대안학교 형태 대안교육센터의 공간분리, 독립: 인력개발, 학습정보센터, 네트워킹 센터 기능 강화

출처: 서울시(2003), 서울시 체육청소년과 내부자료

<표 4-3> 대안학교 교육내용

대안학교 현장명	참여청소년수	주요 내용
난나공연예술학교	11명(남 4, 여 7)	- 예술체험, 공연기획, 공동창작, 현장문화공연 등 공연예술 중심으로 특화
민들레청소년사랑방	30명(남 15, 여 15)	-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쉼과 자기길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 대안교육현장으로 연계하는 역할 - 또래상담, 동아리활동 등
수서디딤돌학교	22명(남 16, 여 6)	- 검정고시, 체험학습, 기초직업교육, 직업체험, 인턴십 등
스스로넷미디어스쿨	25명(남 13, 여 12)	- 방송, 영화, 라디오, 웹마스터, 플래쉬애니메이션 등 미디어 분야로 특화
하자작업장학교	52명(남 19, 여 33)	- 웹, 영상, 생활디자인, 대중음악작업 등의 전문 직업프로그램 특화
도시속작은학교	29명(남 14, 여 15)	- 검정고시 및 상담, 학습지도, 문화활동, 진로적성 지도 등
은평씨앗학교	10명(남 6, 여 4)	- 검정고시 및 인성교육, 체험교육 등
꿈꾸는아이들의학교	17명(남 10, 여 7)	- 검정고시 및 인성교육, 체험교육 등

출처: 서울시대안교육센터(2002), 2002 사업보고서, 서울시대안교육센터, p.18.을 재정리함

2. 평가 방법

1)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와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 작성한 대안교육사업 관련 자료,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탈학교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자료 산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내부자료를 수집하였고,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입안·결정, 집행단계에서 정책과 관련한 성별 정보 확보와 활용 수준에 대한 평가, 여성단체나 젠더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정도 평가, 여성 관련 목표 설정 여부,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2) 관련 분야 실무자 심층면접조사

문헌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담당자의 성인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서울시대안교육사업의 성인지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안교육사업에 관련된 실무자 10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서울시 체육청 소년과 공무원 1인,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실무자 3인, 대안학교 실무자 4인, 미혼모 시설 실무자 1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실무자 1인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실무자의 경우 전화면접을 하였고, 나머지 9인에 대한 면접조사는 연구원이 2003년 9월 5일~22일에 걸쳐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비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실무자가 이에 자유롭게 대답하는 심층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실무자의 허락을 받아 면접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면접 후에 기록·정리하였다.

3) 대안학교 교사 간담회 개최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서 일하는 길잡이교사 5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2003년 9월 27일에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대안교육사업에 대한 교사의 성인지 수준과 대안교육사업의 성과달성 평가, 대안학교의 성인지적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였다.

4) 대안학교 재학생 설문조사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의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안학교 재학생 설문조사는 서울시대안교육센터의 지원을 받고있는 8개 학교와 지원을 받지 않는 2개 학교를 포함하여 총 10개 학교 학생을 전수조사 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13일~20일이며, 189명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표 4-4> 평가영역별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방법
정책입안·결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센터 사업보고서 분석(2001, 2002) • 서울시 체육청소년과 내부자료 분석 • 교육통계연보(2001-2003) 분석 •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1999-2003) 분석 • 실무자 심층면접조사 • 교사간담회 내용 분석
정책집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센터 사업보고서 분석(2001, 2002) • 실무자 심층면접조사 • 교사간담회 내용 분석
정책평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심층면접조사 • 교사간담회 내용 분석 • 대안학교 재학생 설문조사

3. 평가 결과

1) 정책입안·결정단계

(1) 여성 관련 이슈와 문제 확인

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단계에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를 확인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첫째, 사업과 관련해 성별 통계 및 정보를 확보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업 입안과 결정에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둘째, 여성단체나 젠더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하였는가를 지표로 삼아 평가하였다.

① 대안교육사업과 관련한 성별 통계 및 정보의 확보, 활용 수준

서울시대안교육센터에서는 대안학교 학생 현황만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안교육이 필요한 중퇴청소년에 대한 자료는 가출청소년 숫자를 제외하고는 성별로 구분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는 대안교육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성별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대안교육사업의 입안·결정단계에서 여성 관련 이슈와 문제를 확인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사업보고서(2001)에는 탈학교 청소년 증가추세를 보여주면서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확인을 위해 <표 4-5>와 같은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성별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 가출 청소년수가 남성보다 많은 것과 관련해 아무런 해석이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2002년 사업보고서의 탈학교 청소년 통계자료, 대안학교 재학생과 길잡이 교사 현황자료에서도 성별 분리 통계자료를 수록하지 않고 있다(<표 4-6> 참조).

<표 4-5> 2001년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중도탈락 청소년 통계자료

(단위: 명)

구분		1997	1998	1999
중도탈락청소년(중, 고)	중	7,029	4,900	4,988
	고	15,792	12,324	12,596
	계	22,821	17,224	17,584
가출청소년	남	3,166	2,344	3,035
	여	4,429	3,322	3,879
	계	7,595	5,666	6,914
학생비행	절도	1,307	1,533	973
	폭행상해	2,598	2,072	2,855
	음주흡연	6,579	11,254	17,175
	성폭행, 기타	2,764	0,969	5,156

출처: 서울시대안교육센터(2001), 2001 사업보고서, 서울시대안교육센터, p.5.

<표 4-6> 2002년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중도탈락 청소년 통계자료

(단위: 명)

구분	합계	중학생	일반고	실업고
총 재학생	3,742,325	1,831,152	1,259,975	651,198
총 중퇴생	66,995(1.8%)	17,270	17,437	32,289
해외이민 등1)	12,403	6,442	4,923	1,038
순 중퇴생2)	54,592(1.4%)	10,828(0.6%)	12,514(0.9%)	31,251(4.7%)

출처: 서울시대안교육센터(2002), 2002 사업보고서, 서울시대안교육센터, p.6.

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단계에서 여성 관련 이슈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수의 성별자료,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동기에 대한 성별통계자

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교육통계연보(1999-2003)]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2001-2003)]를 분석하였다. [서울교육통계연보]와 [교육통계연보]에서는 탈학교 청소년수와 중도탈락 원인을 성별로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내용에서 중도탈락 원인을 모호하게 구분하고 있어 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서울교육통계연보(1999~2003)]에서는 학교중단 원인을 사망, 질병, 가사, 품행, 기타라는 단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4-7> 참조). [교육통계연보(2001~2003)]에서는 2001년부터 학교중단 원인을 사망, 질병, 가사, 품행 외에 부적응, 유학/이민, 기타로 조금 더 세분화하고 있지만 가사, 품행, 부적응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중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해석을 하기 어렵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의 사업보고서는 성별 구분없이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질병, 사망, 유학/이민 중퇴생을 제외한 나머지 탈학교 청소년을 대안교육사업 대상인 순 중퇴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교육통계연보]와 [교육통계연보]에 대한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단계에서 성별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입안과 결정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청소년 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산출하는 통계자료 내용자체가 부실하다는 근본적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표 4-7>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중단 학생 관련 통계자료(2003. 4 현재)

(단위: 명)

구분	합계		사망		질병		가사		품행		기타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14239	6269	106	46	604	292	4208	1773	929	429	8392	3729
중학교	5277	2331	49	20	206	100	1162	563	216	97	3644	1551
일반계	5099	2213	36	14	287	129	1597	715	98	41	3081	1314
실업계	3863	1725	21	12	111	63	1449	495	615	291	1667	864

출처: 서울시교육청(2003), 서울시교육통계연보, 서울시 교육청.

아래 <표 4-8>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01년-2003년 동안 학교를 중단한 서울시 청소년 성비에서 남학생이 29,379명(56.9%), 여학생이 22,278명(43.1%)으로 남학생 수가 많다. 이 중 사망과 질병, 유학/이민 외에 가사, 품행,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두

어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이 20,042명(57.8%), 여학생이 14,643명(42.2%)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그 수가 많다.

<표 4-8> 서울시 제적·중퇴 및 휴학 학생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총계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1	합계	19392	5992	3171	2821	6219	3761	2458	7181	4365	2816
	사망	115	37	22	15	50	30	20	28	19	9
	질병	662	162	88	74	384	224	160	116	57	59
	가사	5726	1544	806	738	2075	1285	790	2107	1475	632
	품행	757	72	31	41	33	13	20	652	365	287
	부적응	5852	1189	619	570	1196	864	332	3467	2024	1443
	유학/이민	4663	2601	1434	1167	1950	1036	914	112	55	57
	기타	1617	387	171	216	531	309	222	699	370	329
2002	합계	18026	6422	3490	2932	6323	3763	2560	5281	2859	2422
	사망	82	33	22	11	36	22	14	13	8	5
	질병	601	159	81	78	350	176	174	92	43	49
	가사	5350	1937	1053	884	1891	1075	816	1522	977	545
	품행	801	40	17	23	37	22	15	724	225	499
	부적응	4553	943	487	456	1083	769	314	2527	1401	1126
	유학/이민	5328	2849	1591	1258	2362	1330	1032	117	61	56
	기타	1311	461	239	222	564	369	195	286	144	142
2003	합계	14239	5277	2946	2331	5099	2886	2213	3863	2138	1725
	사망	106	49	29	20	36	22	14	21	9	12
	질병	604	206	106	100	287	158	129	111	48	63
	가사	4208	1162	599	563	1597	882	715	1449	954	495
	품행	929	216	119	97	98	57	41	615	324	291
	부적응	2753	651	385	266	667	462	205	1435	698	737
	유학/이민	4811	2666	1538	1128	2063	1086	977	82	42	40
	기타	828	327	170	157	351	219	132	150	63	87

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1~2003),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 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단계에서 탈학교 청소년에 관한 성별 정보의 확보와 활용은 없었으며, 대안학교사업과 관련해 여성 관련 이슈와 문제에 대한 확인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대안교육사업 초기단계에서 서울시 탈학교 청소년 중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수는 몇 십 명 수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성별 구분이 의미가 없었고, 따라서 교육사업 입안과 결정단계에서 성 관

런 이슈와 문제 확인을 위한 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별로 다른 욕구 수렴 같은 것은 어렵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전체 학생으로 보니까, 전체 학생을 보고서 일년에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학생 수요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성별로 구분된 자료는 없어요. 연령별 구분은 되어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남녀평등 이런 부분이 아직 잘 안되어 있어서, 그냥 혼합해서 정리하는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서울시 실무자).

일년에 탈학교 학생이 7만이라고 하는데, 대안학교사업이 이제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서울시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이 현재 150명에서 200명도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을 놓고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나누기에는 대안학교 학생 수 자체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사례수가 너무 적고 다양하여 성별로 유형이라는 것을 분류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대안학교 실무자).

대안학교 실무자, 미혼모 시설 실무자, 청소년성교육 전문가들은 서울시 대안교육사업 수혜를 받는 청소년의 수가 적은 한계점이 있지만 여학생이 학교를 중단하는 이유, 또는 중단 이후에 남학생과 다른 차이점으로 임신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이를 대안교육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를 해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학교를 중도탈락한 이후에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학생들은 남자아이들과 달리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교육기회를 놓칠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점에서 임신을 하였거나 미혼모가 다닐 수 있는 특화된 대안학교의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대안학교 실무자).

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면 원조교제로 가기 쉽고, 또는 원조교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기도 해요. 요새는 아이들이 낙태를 쉽게 하기는 하지만, 하야튼 학교를 그만두는 여학생들이 갖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교사들이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여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새 생각합니다(대안학교 실무자).

지금은 임신이라는 것이 학교에 알려지면 거의 자퇴를 하도록 유도하죠. 임신으로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는 통계상으로 잡힐 수가 없어요. 이왕 학교를 그만두는데 누가 임신해서 학교를 중단한다고 그러겠어요. 스티그마가 되니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제 경험상으로 담임선생님을 잘 만난 경우, 방학에 출산한 경우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학교를 70일 이상 결석하면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데 임신 진단서를 낼 수는 없고 해서, 결국은 임신하게 되면 아이들이 알

아서 자진퇴학을 하죠. 직장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스스로 나가죠. IMF 이후 10대 미혼모들이 늘어나다가 작년부터 10대가 줄어들었는데, 미혼모가 되는 연령이 낮아져 14, 15, 16세도 꽤 있어요. 15세 미만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성교제에 의한 임신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의 미혼모 프로그램을 보면 미혼모 쉼터에 학교가 같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직업훈련을 받도록 해야죠. 임신을 한 아이들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죄책감도 늘어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출해서 아이를 낳고 집으로 돌아가도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문제학생으로 찍히고 해서 학교 적응이 어렵죠. 우리도 10대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특성을 고려한 대안학교가 필요해요(미혼모 시설 실무자).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여학생들은 원조교제나 성매매로 갈 경우가 많고, 성매매로 보호시설에 들어와 있는 10대들도 있어요. 이런 시설에 있는 10대 대상의 대안 교육사업이 필요하죠(청소년성교육 전문가).

② 여성단체나 젠더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정도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0년 11월에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실무자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서울시가 받아들여 서울시대안교육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 4월 12일에 서울시대안교육센터를 개설하였다.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4-9>와 같다.

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포럼, 실무자와 전문가 회의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 참여자 가운데 연세대학교 조한혜정 교수를 비롯한 5명 정도의 젠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안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탈학교 청소년 문제 자체가 당시에는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탈학교 청소년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11월 대안교육 현장요구 파악 및 시범사업 제안에서는 학교밖에 나와 있는 10대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성별 차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2001년 2월 17일 청소년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탈학교 청소년 상황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여기서도 성별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2001년 2월 25일에 열린 분야 전문가 자문 모임에서는 탈학교 청소년의 현황과 대상에 대한 이해가 주제로 논의되기는 했으나, 성별 차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1년 4월 3일에 가진 1차 현장 전문가 자문모임에서 10대의 탈학교 유형과 욕구, 필요한 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1년 4월 13일에 실시된 2차 현장 전문가 자문모임에서는 대안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이 논의에서 청소년성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원조교제경험 10대를 위한 특화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 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단계에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안은 2003년에 3개 대안학교에서 ‘성평등교육과 성교육’ 커리큘럼을 실시하는 수준에서 의견이 반영되었고, 2003년 11월 현재 대안교육센터에서 성평등 커리큘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표 4-9> 서울시 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과정(서울시대안교육센터 설립 과정)

일 시	내 용
2000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 현장요구 파악 및 시범사업 제안(서울시립직업체험센터 실무자) • 학교밖에 나와있는 10대의 다양성 확인
2001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시행 확정 - 서울시/서울시교육청/민간이 모여 추진방향과 협력사항 논의
2001년 2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일본의 탈학교 청소년들의 상황과 대안에 대한 논의
2001년 2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 전문가 자문모임(서울시/현장/대학/언론/기업 참여) - 탈학교 청소년 현황과 대상에 대한 이해
2001년 2월 26/27일, 3월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서울시 실무자 관계기관 협의 3회 - 시설별 대안교육프로그램 특성화와 네트워크 모델 개발 논의
2001년 3월 7일 2001년 4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교육청 도시형 대안학교 교사 모임 - 서울시대안교육센터와 도시형 대안학교 네트워크 논의
2001년 3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 길찾기 전화 상담팀 미팅
2001년 3월 20/29일 2001년 4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 실무자 회의 3회
2001년 4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현장 전문가 자문모임 - 보호관찰 10대, 쉼터의 탈학교 10대의 욕구와 이들과 관계맺는 방식과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논의
2001년 4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현장 전문가 자문모임 - 흠집짓기, 농사 등 대안프로그램 협력 가능성 논의 - 원조교제경험 10대 특화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논의
2001년 4월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연세대학교 위탁계약 체결(2001. 4. 6.~2004. 4. 5)

출처: 서울시대안교육센터(2001), 2001 사업보고서, 서울시대안교육센터, pp.10-13. 재정리함.

(2) 여성 관련 목표와 성과 예측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의 여성 관련 목표와 성과예측 평가를 위해 여성 관련 목표 설정 여부, 성과지표에 여성 관련 성과지표 설정 여부, 정책결정에 여성 참여 수준이란 세 지표를 준거로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해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사업보고서 및 자료 분석, 서울시 체육청소년과 담당공무원 및 대안교육센터 담당자 면접조사를 하였다.

① 여성 관련 목표 설정 여부

서울시와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업무보고서에는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의 목표집단으로 '건강이나 유학준비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제외한 학교밖 청소년 또는 학교에 적이 있으나 돌봄과 대안적 학습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목표는 탈학교 10대들이 스스로 자기 길 찾기를 해내고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의 목표와 목표집단에 여성 관련 목표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생소해 하거나 현재로서는 사업규모 자체가 성별 목표를 설정할 수준이 못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 실무자는 성별 집단을 별도로 고려한 정책목표 설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학에 관심이 있다는 대안교육센터 실무자의 경우 남녀차이가 나는 점에서 특화된 사업을 생각해보는 정도이지, 성인지적 시각으로 사업을 고려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대안교육사업 규모 자체가 성별 구분을 해서 접근할 만큼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은 우리 모든 게 다 그럴겠지만, 아직은 뭐 여성위주로 정책 목표를 정한다, 남성위주로 정책을 한다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동등하게 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남학생, 여학생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전체적인 탈학생으로만 봐야지, 아직은 뭐 남학생한테 잘 해주고, 여학생한테 잘 해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학생 위주로만 해서. 글썽요. 앞으로 뭐 전체적으로 도입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꼭 남녀구분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해당되는 학생이고 그걸 원하는 학생이라면, 남학생이 많아도 좋고, 여학생이 많아도 좋고. 남학생이 많은데, 여학생이 적다 뭐 그런 건 아니죠. 그걸 꼭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서울시 실무자).

내 스스로가 여성학에 관심도 있고 강의도 해보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을 고려한 접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의료와 관련해 여학생들 산부인과 진료사업 그런 거는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커리큘럼상 성교육 그 정도는 했고. 특

별히 뭐... 살아가는 경험 중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면 그런 것을 고려한 어떤 특화된 커리큘럼을 생각해보는 정도지, 지금 워낙 남녀를 구별해서 무엇을 할 만큼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서울시대안교육센터 실무자)

② 성과지표에 여성 관련 성과지표 설정 여부

대안교육사업 목표와 목표집단에 여성 관련 목표가 없으므로 성과지표에서도 여성 관련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대안학교 커리큘럼 중 ‘건강증진사업’이나 ‘성교육 간담회’에서 성별 구분에 대한 접근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성과지표로 적극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여성 관련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나, 향후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다면 여성 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남자, 여자 이렇게 따지는 건 없는데, 이제 뭐 통계적으로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해 나가겠죠. 앞으로 조사를 해서 여학생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남학생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게 나오면 이제 커리큘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대안학교 학생수가 적어 그렇게 구분해서 교육하기는 어렵죠. 대안교육사업이 확대되어 앞으로 대안학교 학생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여학생, 남학생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남성이나 여성을 따로 생각하는 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서울시 실무자).

③ 정책결정에 여성 참여 수준

서울시대안교육사업 결정을 위해 대안교육 추진자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고 위원회가 대안교육사업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추진자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 4인, 시의원 2인, 시교육청 1인, 평생교육시설 1인, 언론계 1인, 대안교육 참여자 2인, 기업인 1인, 서울시 1인 총 13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여성은 3명으로 위원회의 23%를 차지하였다.

2) 정책집행단계

(1) 정책 전달

서울시대안교육사업 집행단계의 성별영향평가는 대안교육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 사업 수혜자로서 여성을 고려한 홍보를 하였는지, 그리고 성인지적 사업추진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수준을 평가지표로 삼아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해 서울시 실무자,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대안학교 실무자와의 면접조사를 하였고,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였다.

① 정책홍보에 여성대상집단 포함 여부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의 핵심은 대안학교 운영이므로 대안학교 홍보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대안학교 홍보사업은 대안학교 개별 홍보사업에 크게 의존하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와 서울시 대안교육센터가 협조하는 방식의 홍보를 하였다. 홍보 방식은 각 대안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안교육사업이 현재 초기단계인 만큼 사업홍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성별 수혜자를 인식하여 대안교육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은 없었다. 대안학교 실무자들은 개별 학교 단위로 대안학교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를 알게 되고 찾아오는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듣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001년 8월~12월 기간에 대안교육센터로 대안학교 상담을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전화나 면접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없다(서울시대안교육센터 2001사업보고서, p.3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의 주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나 자체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대안학교 모집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신문에 좀 날 수 있게끔 서울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하고. 단시일에 홍보가 되게끔 그렇게 협조는 하고 있어요. 지난 상반기때 보도자료 낸 거 하나 있어요(서울시 실무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가 자기가 학교를 나온 이후에 뭘 해야겠다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다가 대안학교를 알게되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접 데리고 오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고, 사실 일년에 7만 정도가

탈학교한다고 추정하는데,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통로를 찾지 못하고, 대안학교 현장으로 연결이 안되는 큰 문제가 있죠. 거꾸로 현장의 입장에서는 매번 학생들을 모집할 때마다 고전을 해야 해요. 외부에서 볼 때는 하자 정도 같은 경우에만 큰 어려움이 없고, 다른 대안학교 현장들은 다 힘들어하죠(대안학교 실무자).

②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정도

서울시 체육청소년과 2003년도 대안교육프로그램사업 운영계획서를 분석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수준을 평가한다. 연계 협력 사업으로 대안학교간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학교와 기업체, 의료기관,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있다. 대안학교에서는 직업 인턴십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업체와 연계하고 있다. 의료기관과는 소녀클리닉 프로그램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성교육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소녀클리닉 사업은 대안교육사업의 하나로 예산이 책정되거나 계획되었던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제안한 사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부 대안학교에서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와의 연계사업도 3개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졌다. 대안학교 실무자들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대안교육사업의 예산으로 이들 사업들이 지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여자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건, 예전에 소녀클리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각 학교별로 주변의 의료기관이랑 연계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산부인과 한 곳과 연결되어서 여자아이들만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게 정기적으로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의료기관이랑 연계되었으면 해요(대안학교 실무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17세 이상 아이들 대상으로 특화된 성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성교육을 실시할까 해요. 남학생, 여학생별로 어떤 식으로 성교육에 접근해야 할지 보다는 연령별로 특화된 성교육을 하려고 해요(서울시대안교육센터 실무자).

(2) 예산과 인력

①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수준

2003년 대안학교사업 예산 중 여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항목은 없었다. 대안교

육사업 실무자 면접조사에서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의 의의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았다.

지금 현재는 여성 예산 그런 건 안되어 있어요. 전체 학생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앞으로 여성사업 예산편성 계획은?) 아유, 그렇게 하면 안되죠. 뭐 여학생이라고 해서 예산을 따로 넣고 그럴 수는 없고. 우리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대안학교 지원은 현재 교사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요(서울시 실무자).

②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수준

대안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실무자,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실무자, 대안학교 실무자의 면접조사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수준을 평가하였다. 대안교육사업 실무자들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안교육사업을 고려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대안교육사업이 일어나는 현장인 하자센터의 경우 연령 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을 안한다를 공식적인 약속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들의 70.8%가 여성이면서, 양성평등 사고와 성인지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안학교 실무자들은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학생의 성취동기 장려,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이해, 양성간 이해를 강조하는 커리큘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높은 성인지 수준과 이러한 교육내용은 학생들이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면접 내용들은 서울시 실무자와 대안학교 교사들의 성인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 성별영향평가 그런 내용의 교육을 받아 본 적은 없고. 지난번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교육하는 게 있어서 거기 3박4일 한번 갔다왔고. 거기서도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10월달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교육 한 번 갈 거고. 성인지적 내용은 전혀 없고. 주 내용이 탈학교 청소년들 문제를 위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쪽이지, 아직까지는 특히 여성을 주제로 하는 교육은 뭐...(서울시 실무자)

여기는 꼭 페미니즘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이제 성차별, 나이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같은 것은 안한다, 차별 자체를 없애는 문화를 많이 강조하므로 사회일반과 비교해서 여기는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초기에 교사들이 남자가 많아 여학생들 역할모델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는 안하지만 여자아이들의 역할모델을 찾는 프로그램도 했어요. 여자아이들이 소녀들을 위한 페미니즘이란 프로젝트를 해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여자아이들이 점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남자아이

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분위기를 못견뎌서 휴학하는 남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자아이들에게 불편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게 불편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아이들과 너도 뭔가를 해봐라, 소모임을 해봐라 그랬는데 남학생들이 실제 모임을 만들고 하지는 않았어요. 남자아이들이 오하려 자진해서 성 감수성을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남자교사가 소년들의 페미니즘 같은 것들을 구상하는 사람도 있어요(대안학교 실무자).

우리학교는 프로젝트나 행사를 할 때 남자 학생 주도적으로 추진되면, 여자아이들 특히 연령이 낮은 여학생에게 행사를 준비하라고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연령 여학생에게 참여기회를 주려고 하는거죠(대안학교 실무자).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를 교사들이 하면서 청소년 양성평등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저희가 양성평등이 정확히 무언지 모르는 단계에서 교육을 하기가 그렇고, 교사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교사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다음 학기에는 양성평등교육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개별 학교단위로는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대안학교 실무자).

저희 학교는 어머니들이 가장인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혼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렸거나 한 경우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자기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 양성평등에 대한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대안학교 실무자).

저희 학교에서 얼마 전 소녀 클리닉 프로그램을 하면서 엄마들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사를 해주는데 어머니들이 우리 애 어린데 벌써 산부인과 검사를 왜 시키느냐고 항의했어요. 젊은 어머님들인데도 산부인과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를 안 시키겠다는 어머니들이 많았던 거죠. 검진 후에 개별로 결과 통보를 해주었더니 나중에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더군요(대안학교 실무자).

저희 학교에서 예전부터 기획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학기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자아이들끼리의 **girl's club**, 남자아이들끼리의 **boy's club**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끼리 선생님들과 같이 수도도 떨면서 남성, 성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려보고, 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알고당도않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또 모르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도 같이 배워가고 스테디하고. 또 성공한 여성이나 굉장히 좋은 사회 예술인 여성들을 찾고 만나고 스테디하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라던가, 사회는 좀 남성 위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런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 안에는 산부인과나 그런 의료 서비스 받을 수도 있고, 또 시설도 방문해서 아이들과 얘기해서 미혼모라던가 그런 아이들도 좀 찾아보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런 **girl's club**을 기획하고 있어요. 남자들끼리, 남자애들도 이성관계나 여자를 볼 때 그 눈이 참 어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남자선생님들과 같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꾸고, 아니면 새롭게 자기 것을 찾아가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대안학교 실무자).

3) 정책평가 단계

(1) 성과달성

대안교육사업의 성과달성 평가를 위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수, 대안교육사업이 여학생과 남학생의 능력향상, 사회참여, 양성평등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지표로 삼아 평가하였다. 성과달성 평가를 위해 대안학교 재학생 설문조사와 실문자 면접을 실시하였다.

① 여성 관련 성과목표 달성도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에 여성과 관련된 성과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상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없다. 대신 대안학교에 다니는 성비를 기준으로 여성 관련 성과목표를 평가하기로 한다. 2002년 대안학교 참여 학생 성비는 남학생이 48.8%, 여학생이 51.3%이다. 2003년 1학기 대안학교 참여 학생은 남학생이 44.9%, 여학생이 56.1%이다. 가사, 품행,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두어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서울시 탈학교 청소년 중 남학생(57.8%)이 여학생(42.2%)에 비해 그 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8 참조>). 이러한 성비 추정치와 대안학교 참여학생 성비를 비교하여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을 평가하면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은 양성평등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여성 관련 성과목표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10>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성별, 연령별, 가족사항 등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과반수 이상이 고등학교 학령기였고(57.5%), 20세 이상도 22.8%나 차지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시점은 남녀 모두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는 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속했다. 기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59.2%, 여학생 50.5%가 12개월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더 오래 다닌 학생수가 많았다. 가족관계는 양부모가족이 남학생은 62.9%인데 비해 여학생은 49.4%로, 여학생의 경우 편모, 편부, 조부모/친척 동거, 시설에서 사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4-10> 대안학교 재학생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계	97	51.3	92	48.7	189	100.0
연령별	97	100.0	91	100.0	188	100.0
16세 이하(중학교 학령기)	19	19.6	18	19.8	37	19.7
17-19세(고등학교 학령기)	56	57.7	52	57.1	108	57.5
20세 이상	22	22.7	21	23.1	43	22.8
학교를 그만둔 시점	96	100.0	92	100.0	188	100.0
중학교 1	13	13.5	14	15.2	27	14.4
중학교 2	10	10.4	9	9.8	19	10.1
중학교 3	10	10.4	15	16.3	25	13.3
고등학교 1	40	41.7	31	33.7	71	37.8
고등학교 2	16	16.7	16	17.4	32	17.0
고등학교 3	2	2.1	3	3.3	5	2.7
기타	5	5.2	4	4.3	9	4.8
재학기간별	93	100.0	87	100.0	180	100.0
12개월(1년) 이하	55	59.2	44	50.5	99	55.0
13개월 이상	38	40.8	43	49.5	81	45.0
가족관계별	97	100.0	89	100.0	186	100.0
양부모가족	61	62.9	44	49.4	105	56.4
편모가족	17	17.5	17	19.1	34	18.3
편부가족	6	6.2	7	7.9	13	7.0
조부모/친척 동거	1	1.0	4	4.5	5	2.7
형제자매와 동거	3	3.1	3	3.4	6	3.2
친구와 동거	6	6.2	4	4.5	10	5.4
시설	-	-	6	6.7	6	3.2
독거(자립)	3	3.1	4	4.5	7	3.8

② 여성능력향상, 사회참여, 성평등에 미친 영향

대안교육사업이 여성능력 향상, 사회참여, 성평등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위해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우선 성과지표 달성과 관련하여, 대안학교의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의견과 대안학교의 청소년복지에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나는 대안학교가 없었다면 다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에 대하여 전체 평균이 3.6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각각 3.66점과 3.65점으로

성별 차이는 없었다. 즉 양성 모두에게 교육기회 제공의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나는 대안학교가 청소년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의 항목에 대하여는 평균 4.48점으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학생은 4.29점, 여학생은 4.67점으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안교육사업의 필요성과 유익성에 대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1> 성별 성과지표 달성 관련 의견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T값
나는 대안학교가 없었다면 다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3.66	3.66	3.65	.046
나는 대안학교가 청소년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4.48	4.29	4.67	-3.165**

주: 5점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5: 매우 동의함)

**p < .01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능력 배양과 삶에 대한 자신감 및 자존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결과, 각각 평균이 3.91점과 3.90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대안교육사업으로 학생들의 사회참여 능력과 자신감 및 자존심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가지 항목에서 모두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높았으나, 특히 '나는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취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있다'의 항목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4.07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경우 사회참여의 통로에서 여성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을, 대안학교 재학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 극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4-12> 성별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관련 의견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T값
나는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취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있다	3.91	3.76	4.07	-2.141*
나는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심이 생겼다	3.90	3.82	3.99	-1.217

주: 5점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5: 매우 동의함)

*p < .05

대안학교가 어느 정도 취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재학기간을 통제하여 본 결과 다음 <표 4-13>과 같다. 12개월 이하인 경우 3.78 점인데 비하여 13개월 이상은 4.04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안학교에 오래 다닌 학생일수록 스스로 사회참여에 대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3> 재학기간별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관련 의견

구분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T값
나는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취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있다	3.91	3.78	4.04	-1.806*

주: 5점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5: 매우 동의함)

*p < .05

한편 성을 통제하고 기간별로 비교하면, 여학생들이 대안학교의 취업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 향상면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남학생은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학생은 12개월 이하가 3.84점에서 13개월 이상의 경우 4.28점으로 0.44점의 큰 차이를 보였다.

<표 4-14> 성 통제시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에 대한 재학기간별 비교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평균	3.76	3.73	3.76	4.07	3.84	4.28
T값	- .132			-2.505**		

주: 5점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5: 매우 동의함)

**p < .01

아래 <표 4-15>와 같이 오래 다닌 재학생일수록 자신감과 자존심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가 62.2%(‘조금 동의함’ 29.4%와 ‘매우 동의함’ 32.8%)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또한 ‘매우 동의함’의 경우 12개월 이하는 28.3%인 반면, 13개월 이상은 38.3%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15> 재학기간별 자신감과 자존심 향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전체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동의하지 않았음	1.0	7.4	3.9
보통	40.4	25.9	33.9
조금 동의함	30.3	28.4	29.4
매우 동의함	28.3	38.3	32.8
계	100.0	100.0	100.0
(명)	(99)	(81)	(180)

$\chi^2 = 8.855^*$, * $p < .05$

다음으로 대안학교가 성평등의 기회제공 및 성평등 의식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을 보면 성평등의 기회 제공의 부분에서 4.28점, 성평등 의식 부분에서 4.10점으로, 성평등 관련 점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하면 성평등 기회제공에 있어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들이 4.42점으로 4.14점인 남학생에 비하여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는다는데 더욱 동의하고 있다.

<표 4-16> 성별 성평등 관련 의견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T값
대안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28	4.14	4.42	-2.102*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4.10	4.03	4.17	-1.089

주: 5점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5: 매우 동의함)

* $p < .05$

<표 4-17>을 보면, 재학기간에 따라서 성평등 기회제공 및 성평등 의식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안학교가 성과 무관하게 평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성평등 의식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4-17> 재학기간별 성평등 관련 의견

구분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T값
대안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28	4.13	4.44	-2.337*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4.10	3.97	4.25	-2.057*

주: 5점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5: 매우 동의함)

*p < .05

성평등 기회제공과 관련하여 재학기간을 통제했을 경우,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12개월 이하인 경우만 남학생 평균이 3.96점, 여학생은 4.34점으로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대안학교의 분위기에 재학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학생들이 성평등 기회제공의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결과로 보여진다. 오히려 오래 다닐수록 이러한 시각에 변화를 가져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된다.

<표 4-18> 재학기간 통제시 성평등 기회 제공에 대한 성별 비교

구분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평균	4.13	3.96	4.34	4.44	4.37	4.51
T값	-1.821*			-.847		

주: 5점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5: 매우 동의함)

*p < .05

위의 <표 4-18>과 일맥상통하게, 성을 통제하고 재학기간별로 비교하면 남학생의 경우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오래 다닌 남학생이 대안학교의 평등한 기회제공에 동의하는 입장이 더 뚜렷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19> 성 통제시 성평등 기회제공에 대한 재학기간별 비교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평균	4.14	3.96	4.37	4.42	4.34	4.51
T값	-1.880*			-1.012		

주: 5점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5: 매우 동의함)

*p < .05

한편 성평등 의식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의식 부분의 성장은 여학생의 경우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평등한 기회 제공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은 여학생들에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고 똑같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20> 성 통제시 성평등 의식에 대한 재학기간별 비교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평균	4.03	3.98	4.11	4.17	3.95	4.37
T값	- .555			-2.444*		

주: 5점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5: 매우 동의함)

*p < .05

대안교육이 양성 모두의 능력향상과 성평등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대안학교 현장 실무자의 양성평등 의식과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는 대안학교의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들 수 있다. 다음 면접 내용은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저희들이 뭐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 있는 성차별을 여기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들어오면 학교의 문화에 조금 더 여자아이들이 잘 적응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있어요(대안학교 실무자).

대안학교는 워낙 조그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큰 학교들은 질서유지, 관리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남자여야 한다는 게 같이 돌아가면서 그런 문화를 계속 재생산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대안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의식적인 성평등 이런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데 남성적 파워가 발휘가 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걸 바꾸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정책과 연결을 시키려면, 그런 문화같은 것들을 잘 형식적으로 연계해서 보급한다던가 그런 건 가능하겠죠. 학생수 줄여주는 방법 이런 것도 방법이겠죠. 일단 이렇게 뭔가 사회가 커지고 조직화 되면서 남자들의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마초적인 문화 자체가 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규모의 문화, 평등의 문화 같은 것,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소리지르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대안학교 실무자).

여성, 남성 구분해서 대안교육사업에 대한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는데, 성의 관점에서 대안교육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가출을 한 청소년을 봐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기개입이나 접근 자체가 신속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가출 이후에 비행과 결합하는 속도라고 할까, 특히 성매매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여자아이들한테 사회문화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관점에서 대안학교사업을 본다면 참 참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무언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남학생과 여학생이 공평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비행의 가속화 문제 같은 것에 여학생이 훨씬 더 위험하다면, 대안학교가 그런 의미에서는 여성들에게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대안학교 실무자).

‘일대일 맞춤형학습’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욕구 조사를 해서 ‘저는 이번에 수학, 영어, 과학, 국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다 연결을 해요. 한 아이 당 4-5명, 또는 8명이 넘는 선생님이 맞춤형학습을 해주시면, 각 아이들별로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니까(대안학교 실무자).

대안학교가 그냥 중퇴 후 아이들을 놔두는 것보다는 학교를 거침으로써 성평등이나 그런 쪽에 기여한다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애들한테도 인턴십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죠. 본인이 관심만 있으면. 인턴십에는 차별은 없어요. 저희가 그 아이들을 놓고 기관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성별이나 기관이나 그런 거에다가 아이들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아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원하고 거기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어떠시냐’고 해서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성에 따른 차별은 없어요(대안학교 실무자).

<표 4-21> 평가결과 개요

단계	평가영역	평가결과
정책입안 및 결정	여성 관련 이슈와 문제확인	<p><input type="checkbox"/> 성별 통계 및 정보의 확보와 활용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학교 청소년 현황과 탈학교 이유에 대한 성별 정보를 확보하지 않았음. 가출 청소년수 성별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사업입안과 결정에 활용한 것은 아니고 단순 제시에 그침. •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업중단 학생수와 중단이유에 대한 성별자료를 산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내용이 학교 중단이유를 정확히 보여주지 않고 있어, 기존 통계자료가 갖는 한계성이 있음. •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임신이나 원조교제 경험으로 학교를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학교를 중단한 이후에도 여학생은 임신·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한 학업기회 접근성이 낮을 수 있음. 10대 미혼모, 성매매 경험이 있는 10대 여성을 위한 대안교육사업이 필요함. <p><input type="checkbox"/> 여성단체, 젠더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젠더 전문가인 여성이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논의하거나 의견수렴을 한 것은 아님. 전문가자문모임에서 청소년성문제 전문가가 원조교제경험 10대를 위한 사업제안을 하여 여성 관련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사업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음.
	여성 관련 목표와 성과예측	<p><input type="checkbox"/> 여성 관련 목표 설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대안교육사업 목표와 목표집단에 여성 관련 목표 설정은 없음. 실무자들은 성별 목표 설정에 대해 시기상조이거나 대안교육사업 규모자체가 적어 성별 목표를 설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봄. <p><input type="checkbox"/> 여성 관련 성과지표 설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사업 목표와 목표집단에 여성 관련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성 관련 성과지표도 없음. <p><input type="checkbox"/> 정책결정에 여성 참여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추진자문위원회 13명 중 여성은 3명임.
정책집행	정책전달	<p><input type="checkbox"/> 정책홍보에 여성 대상집단 포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별로 사업홍보를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대안교육센터가 이를 지원해주고 있음. 학교별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 신문보도를 통한 홍보가 주를 이룸. • 대안교육사업 초기단계(2001. 8-12) 상담사례를 보면 상담자는 어머니가 가장 많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대안학교를 인지하는 경로는 주변사람을 통해서가 가장 많음.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은 없으며, 여성과 관련된 홍보를 고려하지 않았음.

<표 4-21> 평가결과 개요(계속)

단계	평가영역	평가결과
정책집행	정책전달	<p><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에서는 기업체,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연계협조를 얻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직업 인턴십 커리큘럼으로 기업체와 연계하며, 의료기관과는 소녀 클리닉 커리큘럼으로 연계, 청소년성문화센터와는 양성평등과 성교육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여성에게 특히 필요한 직업체험, 의료체험, 성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은 잘되고 있으나, 이들 연계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이 미미하여 한시적으로 일부 학교에서만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산·인력	<p><input type="checkbox"/>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대안학교 관련사업에서 여성 관련사업을 위한 예산 항목은 없음. <p><input type="checkbox"/>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센터나 대안학교 실무자의 양성평등의식이나 성인지 수준은 높음. 대안교육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으나,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보임. • 서울시 실무자의 경우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며, 성인지 수준은 낮음. 성인지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나오면 실천할 수 있다는 입장임.
정책평가	성과달성	<p><input type="checkbox"/> 여성 관련 성과목표 달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교육사업에 여성과 관련된 성과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상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없음. 대안학교 학생 성비 구성으로 여성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면 2002년 대안학교 학생의 여성비율은 51.3%, 2003년은 56.1%로 여성 관련 성과달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p><input type="checkbox"/> 여성 능력향상, 사회참여, 성평등에 미친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은 학교를 중단한 10대 여성과 남성, 양성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양성 모두의 능력향상, 자신감과 자존감, 성평등 의식 확산에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안학교 재학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여학생일수록 대안교육 성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대안교육사업이 청소년복지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양성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4-21> 평가결과 개요(계속)

단계	평가영역	평가 결과
정책평가	성과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양성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대안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양성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 양성 모두 그렇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대안학교를 오래 다닌 여학생일수록 더 긍정적이었음. • 대안교육사업이 양성평등적이면서 여성 친화적 성과를 거둔 이유로는 대안학교 길잡이 교사들의 성인지적 수준이 높은 것과 동시에 학생 개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대안교육체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제 4 절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제안점

1. 10대 여성 임신, 출산, 성매매 경험을 고려한 대안교육사업 필요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의 정책입안·결정, 집행과정에서 성별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미했으나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성 모두의 능력향상, 사회참여, 성평등 확산에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여성의 경우 10대 남성과 달리 임신과 출산, 성매매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새로운 학업기회 접근에 제약을 가질 수 있다. 교육기회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10대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대안교육사업이 필요하다.

서울시대안교육사업 향후 3개년 계획(2004-2007년)에 의하면 현재 8개인 대안교육현장을 2004년 14개, 2005년 20개, 2006년 30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다. 대안교육사업 현장 확대계획에 미혼모와 성매매 10대 여성을 고려한 대안교육사업을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며, 성과지표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대안학교사업 확대추진계

획 관련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미혼모나 성매매 여성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실무자나 관련 전문가, 청소년성교육 전문가를 30% 이상 참여시켜 자문 및 의견수렴을 받는다.

2.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

대안교육사업 예산에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보급을 위한 예산항목을 자체 책정하여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전 대안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여성정책과의 대안교육사업 지원사항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은 중고등학교를 중도탈락한 남학생과 여학생, 양성 모두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성평등 의식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를 중도탈락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대안교육사업의 필요성과 긍정적 영향에 대해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여성정책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를 그만 둔 시점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가 34.3%, 여학생은 중학교가 41.3%로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를 조기에 그만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안학교 남학생들이 양(兩)부모와 사는 비율은 62.9%, 여학생은 49.4%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를 더 빨리 중도탈락한 비율이 높고, 양부모 가족 비율이 더 낮은 이러한 사실은 대안학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대안교육사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양성 모두의 능력향상과 성평등 확산에도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고려하여 서울시 여성정책과는 서울시대안교육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사업 예산규모가 적어 학교를 중단한 10대 미혼모와 10대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정책과에서 2004년부터 이들 여성을 위한 대안교육사업 예산을 별도 지원하도록 한다. 여성정책과

는 미혼모 시설과 성매매 여성 보호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 10대 여성에 초점을 둔 대안교육사업을 위해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서울시대안교육센터는 기존에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10대 미혼모와 10대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여성정책과는 대안학교 여학생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성평등교육사업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업실무자의 성인지력 및 상향식(bottom-up) 의사소통의 중요성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사례연구가 거의 전무한 만큼, 어떤 정책사업이 양성평등적 성과를 산출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증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서울시대안교육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는 성인지적 정책 수행과 관련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대안교육사업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여성과 관련한 이슈와 문제 확인, 여성 관련 목표, 여성을 고려한 사업예산 편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안교육사업이 양성 모두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성평등 의식 확산에 높은 성과를 거둬고 동시에 여성 친화적 성과를 달성한 이유는 대안교육사업 실무자들과 서울시대안교육센터장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대안교육사업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경우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대안교육현장에서의 이러한 양성평등 문화와 함께 대안학교가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개별 학생이 가진 욕구를 커리큘럼에 적절히 반영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즉 양성평등적 사업성과를 낳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사업 실무자의 높은 양성평등의식과 상향식 의사전달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개별학생들의 욕구를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일이 교육현장 길잡이 교사의 개인적 노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대안교육센터와 체육청소년과는 주기적으로 길잡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第 V 章 정책 제안

제 1 절 제도 및 행정조직 정비

제 2 절 성별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제 3 절 공무원 성인지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제 4 절 성별영향평가 실시 방식

제 V 장 정책 제안

제 1 절 제도 및 행정 조직 정비

1.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항 포함

1) 필요성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정책의 성별분석, 성별영향평가 관련조항을 포함시켜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2) 내용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를 (정책의 분석과 평가 등)으로 수정한다. 그리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를 다음의 내용으로 수정한다. ① 시장은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정책에 대해 당해 정책이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목표관리제나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 추진방법

- **1단계:** 여성정책과에서 서울시여성위원회에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과 의견수렴을 한다.
- **2단계:** 여성정책과에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2. 성과주의 예산 및 심사평가제도에 성인지적 항목 첨가

1) 필요성

성인지적 시정운영이 실제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하는 각 부서에서 정책입안부터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계획서 또는 심사평가보고서 작성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과 항목이 포함되고 이것이 평가에 고려된다면 단기간에 시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적 정책이 확산될 수 있다.

2) 추진방법

- **1단계:** 복지여성정책보좌관, 여성정책과에서 심사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성과계획서와 심사평가제도에 성인지적 항목을 첨가하는 방안에 대한 협동 연구와 업무협의를 한다. ‘서울특별시기획및심사평가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에 성인지적 관련항목을 첨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2단계:** 여성정책과는 심사평가담당관의 협력 하에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계획서와 심사평가보고서 작성에 성인지적 항목을 첨가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작성하도록 한다.

3. 성인지 정책 지원팀 설치

1) 필요성

성인지적 시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성인지적 정책이나 성별영향평가는 생소한 개념이다.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향후 여성정책의 주요 방향이 될 것이므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2) 추진방법

성인지 정책지원팀은 성인지적 정책수립을 위해 각 부서별 공무원 지원,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복지정책보좌관하에 젠더 전문가가 포함된 성인지 정책 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4. 여성정책부서 경력 통로화

1) 필요성

여성정책관련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수준이 높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여성정책과 업무 중에서 부서간 조정 및 연계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므로 여성정책부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여성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협조와 역할 또한 주요해질 것이다. 여성정책과를 핵심적인 경력통로화로 만들어 남성 공무원의 선호도가 낮은 여성정책과의 근무를 유도한다.

2) 추진방법

여성복지정책보좌관, 여성복지국장은 인사과와 협의하여 여성정책과 근무를 유도하는 인사관련상의 제반 방안을 강구한다.

제 2 절 성별통계 및 연구자료 구축

1. 원자료의 성별 통계 생산

1) 필요성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건의 하나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성별

로 분리된 통계자료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부서별로 생산되는 원자료를 성별 분리 통계자료로 작성하고, 서울통계연보를 비롯해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통계자료집에 성별로 분리 통계자료를 수록한다.

2) 추진방법

여성정책과는 서울시 각 부서별로 산출되는 원자료와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통계자료집을 중심으로 성별 분리 통계 작성현황을 분석한다. 성별 분리 통계 작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에 성별통계 작성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과는 서울시 성인지적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여성정책과는 서울시 성별 분리 통계의 작성과 통계자료집 발간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담당관과 협의한다.

2. 서울여성백서의 성별통계 자료 수록 강화

1) 필요성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원자료의 성별 분리 통계 작성 외에 여성문제를 파악하고 이슈화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 수집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서울여성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서울여성백서에 여성문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통계자료(women-specific)를 수록하여, 서울여성백서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2) 추진방법

- **1단계:** 여성정책과는 서울여성백서의 향후 편집방향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한다. 자문팀에서 도출된 편집방향과 내용구성 제안을 서울시여성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받는다.
- **2단계:** 여성정책과는 2004년에 발행될 서울시여성백서에 수록할 여성통계자료 항목을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항목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한다.

3. 성별영향평가 연구 축적과 홍보책자 발간

1) 필요성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나 시민들이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성인지적 사고와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무원의 9.6%만이 소속부서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책이 무엇이며, 시책에 성별영향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시민이 성별영향평가를 이해하고 향후 정책형성에 평가결과를 피드백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축적하고,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용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추진방법

- **1단계:** 2004-2007년 4개년 계획으로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한다. 여성정책과는 연구위탁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위탁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무원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04년에는 복지여성국, 문화국, 홍보기획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실시한다. 2005년에는 정보화기획단, 행정국, 산업국, 언론담당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006년에는 환경국, 재무국, 경영기획실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007년에는 3년간 축적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일반, 또는 분야별로 적용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하고, 공무원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발간한다. 그리고 3년간의 성별영향평가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들이 정책에 환류되었는가에 대한 정책평가를 한다.
- **2단계:** 2008년부터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의 성인지정책지원분석팀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사업별 성별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한다.

제 3 절 공무원 성인지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1) 필요성

성인지적 시정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수립과 집행의 핵심에 있는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수준과 관심도이다. 서울시 공무원의 성인지력 수준은 낮으며,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 낮아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시 저항도 클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는데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인지적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의 확대와 강화로 공무원의 성인지력을 높이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성이면서 연령이 높은 공무원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이었다.

서울시공무원은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에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정책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나 일반인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2) 추진방법

- **1단계:**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서울시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정책,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을 의뢰한다. 여성정책과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평등의식교과목과 교육과정에 개발한 커리큘럼을 반영하도록 서울시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한다.
- **2단계:** 평등의식교육과정 외에 5급 이상 남성공무원, 여성정책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정책관련 전문과정을 개설한다. 여성정책과는 교육참여유도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국 인사과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3단계:** 서울여성재단은 시민단체 종사자들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관련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학 강좌에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제 4 절 성별영향평가 실시 방식

1. 평가대상 사업부서의 평가 참여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형성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의 학습, 정보제공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정책평가제도 도입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공무원들의 학습기회 및 정보제공의 극대화,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 평가 대상 사업부서의 공무원을 평가 전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해당 부서 공무원을 참여시키고,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평가결과의 향후 사업환류 논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여성정책과는 외부 전문기관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면서, 평가과정에 해당사업 부서 공무원들이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한다.

2. 성별영향평가 실시단계와 실시 주체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시기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의 32.1%는 2-3년 후, 30.4%는 4-5년 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행정여건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2004-2008년 초기단계에서는 여성정책과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내부관리유형 방식으로 추진한다. 초기단계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연구의 축적, 평가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증진과 확산, 평가지표에 대한 합의와 정교화된 평가모형 개발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성분석지원팀(신설 필요)의 지원을 받아 부서별로 정책입안에서부터 정책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하도록 한다. 2010년에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사업에 대한

시상과 홍보, 실무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사업을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강남식(1994),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5, 한국 여성연구소, pp.40-60.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희(2001), 예산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특성: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pp.1-19.

김경희 외 (2001), 정부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

김명수(2000),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김선욱(2000), 독일여성정책,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김선욱 외(1996), 북경여성회의의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소연(2000),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성인지적 정책 추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2001), 미국 정부업무의 평가: 연방·주·지방정부 성과평가의 현황, 한국정책 분석평가,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pp.109-132.

김애령(1999),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A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2), 성인지적 통계구축: 여성의 활동과 지위를 반영한다, 여성부.

김양희(200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 쟁점,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철 외(2002),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진단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인 외(1998), 현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및 새정부의 단기 여성정책 추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_____ (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_____ (2001),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_____ (2002),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점선(2001), 여성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정자(1997), 사회정책 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홍 외(2000),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정책 영향평가 연구: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김현숙(2003), 양성평등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과제 제안,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pp.8-13.

김홍숙 외(2001), 성인지적 관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연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문영세(2001), 정책평가의 이론적 고찰,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 정책분석평가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pp.1-26.

문유경(2000), 성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_____ (2001), 여성보건복지: 현상과 통계, 보건복지부.

박성정 외(2003),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 모범사례 연구, 여성부.

- 박혜자(2000),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와 새 시대의 역할,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
- 백선희(2000), 성 주류화의 관점에서 본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분석과 자활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제안, 한국사회복지학 43, pp.76-105.
- 보건복지부 역(1998), 여성정책 주류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안, 보건복지부; Council of Europe(1998), Gender Mainstreaming: Conceptual Framework, Methodology, and Presentation of Good Practice.
-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지침, 보건복지부.
- 서복순(200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평가제도의 실태와 한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 서울시대안교육센터(2001), 2001 사업보고서,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_____ (2002), 2002 사업보고서, 서울시대안교육센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서울시 통합성과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특별시(1999), 새서울여성정책3개년계획, 서울특별시.
- _____ (2003), 2002 서울여성백서,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2003), 2003학년도 평등의식과정, 서울시공무원교육원.
- 신정혜(1994),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오택(200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pp.27-47.
- 양현미(2003),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pp.1-7.
- 여성부(2002),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_____ (2002), 각국의 여성관련 행정기구 현황, 여성부.
- _____ (2002),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길라잡이, 여성부.
- _____ (2003), 성인지적 예산분석 시범실시 계획안, 여성부
- 오철호 외(2001), 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 모형과 방법론: 하나의 가설적 탐색, 국가 보
화평가의 과제와 평가방향, 2001년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Proceeding Paper, pp.141-172.
- 윤선영(1999), 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각 외(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이숙(2002),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적 정책추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02), 성 인지적 관점의 보육정책 형성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
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도(200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평가주체와 평가방식을 중
심으로,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01), 성인지적 보건복지 예산분석 및 편성·집행의 방향, 보건복지부.
- 장하진(2001), 여성정책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전망, 한국행정학회 제10권 제3 호 ,
pp.144-161.
- 장하진(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여성부.
- 장하진 외(2001), 성 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 연구, 한국여성연구소.
- 전지혜(200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공부조 효과 연구: 빈곤감소효과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2000), 여성주의적 직무평가를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인순(2002), 서울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한국여성민우회.
- 차의환(1999),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 한도숙(2000),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한혜경(2000), IMF 이후 빈곤 및 실업대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6 , pp.215-234.
-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1999), 공무원을 위한 여성정책 결정 가이드, 행정자치부.
- 허신욱(2000), 정책평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기관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미(2001), 여성정책과 젠더 정치(gender politics): 복지국가 및 후발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통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pp.75-113.

2. 해외문헌

- Candida March, Ines Smyth, and Maitrayee Mukhopadhyay(1999), *A Guide to Gender-Analysis Frameworks*, Oxfam, Oxford.
- Commonwealth Secretariat(1999), *Gender Management System Handbook*.
- Johanna Schalkwyk(2000), Exercises in Gender Mainstreaming, *Gender in Development Monograph Series #8*.
- Kate Young(1993), *Planning Development with Women*, Macmillan, London.
- Molyneux(1985), Mobilization Without Emancipation?: Women's Interests, the State, and Revolution in Nicaragua, *Feminist Studies*, 11, Summer: pp.227-253.

- Rubery, J.(2002), Gender mainstreaming and gender equality in the EU: the impact of the EU employment strategy,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Vol 33 Issue 5.
- True, J. & Mintrom, M.(2001), Transnational Networks and Policy Diffusion: The Case of Gender Mainstream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pp.27-58.
- UN/Daw(1998),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 United Nations Division for Advancement of Women. Expert Group Meeting Report.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
- UNDP(2001), Learning & Information Pack-Gender Analysis.
- UNDP(2000), Learning & Information Pack-Gender Mainstreaming.
- Wilson, Elizabeth(1977), *Women & the Welfare State*, London: Tavist Publications.
- Yeates, Nicola, Gender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31.

3. 인터넷 사이트

- Barnett, Babara(1998), Planning from a gender perspective, www.skillscenterait.ac.th
- Miller, C. & Razavi, S.(1998), Gender Analysis: Alternative Paradigms, www.undp.org/gender/resources/monof.html
- www.ausaid.gov.au/keyaid/gender.cfm
- www.ausaid.gov.au/media/release.cfm
- www.ausaid.gov.au/publication/pdf/guidetogenderanddevelopment.pdf

www.cabinet-office.gov.uk

www.dti.gov.uk/set4women/policy/gender-mainstreaming.htm

www.dti.gov.uk/set4women/policy/index.htm

www.dwp.gov.uk

www.mofat.go.kr

www.mwa.govt.nz

www.mwa.govt.nz/site.old/pub/gender/whtga.html

www.odin.dep.no/bfd/engelsk/regelverk/rikspolitiske/004041-990030

www.odin.dep.no/odinarkiv/norsk/dep/krd/2002

www.odin.dep.no/ud/engelsk/publ/rapporter/032001-990250

www.osw.dpmc.gov.au, www.ausaid.gov.au/keyaid/gender.cfm

www.se.gov.se

www.swc-cfc.gc.ca/pubs/gbaguide/gbaguide_e.html

www.swc-cfc.gc.ca/pubs/guidetoprograms

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decision.htm

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institu.htm

www.un.org/womenwatch/daw/csw/nmagree.htm

www.un.org/womenwatch/daw/followup/bfbeyond.htm

www.un.org/womenwatch/daw/followup/question.htm

www.un.org/womenwatch/daw/followup/session/presskit/fs8.htm

www.undp.org/gender/capacity/gm_info_module.html

www.undp.org/gender/resources/mono6.html

4. 기타 자료

여성신문, 2003. 4. 4.

한겨레신문, 2003. 3. 23.

부 록

- 부록 1 공무원 대상 1·2차조사 설문지
- 부록 2 서울시대안학교재학생 설문지
- 부록 3 공무원 대상 조사결과표
- 부록 4 대안학교재학생 조사결과표

부록 1 공무원대상 1·2차조사 설문지

--	--	--	--

일련번호

--

조사자코드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성별영향 평가 체계 연구」 설문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올해 연구과제로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성별영향 평가 체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공무원의 성인지적(性認知的)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알아보고 현 정책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성별영향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서울시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어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통계처리에만 사용하고, 절대로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저희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담당자: 연구위원 신 경 희 (02-2149-1255)
연구원 박 민 정 (02-2149-1259)
팩 스: 02-2149-1289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e-mail: skhee@sdi.re.kr
pmj@sdi.re.kr

* 다음의 질문에 한 문제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에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일반사항

*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2) 출생연도	19__년
3)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중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고졸 <input type="checkbox"/> ③ 2년제 대재 <input type="checkbox"/> ④ 2년제 대졸 <input type="checkbox"/> ⑤ 대재 <input type="checkbox"/> ⑥ 대졸 <input type="checkbox"/> ⑦ 대학원재 <input type="checkbox"/> ⑧ 대학원졸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현 소속부서	_____ (국,실,단) _____ (과)
2) 직군	<input type="checkbox"/> ①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②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③ 전문계약직 <input type="checkbox"/> ④ 기능직
3) 직급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경우) <input type="checkbox"/> ① 1급 <input type="checkbox"/> ② 2급 <input type="checkbox"/> ③ 3급 <input type="checkbox"/> ④ 4급 <input type="checkbox"/> ⑤ 5급 <input type="checkbox"/> ⑥ 6급 <input type="checkbox"/> ⑦ 7급 <input type="checkbox"/> ⑧ 8급 <input type="checkbox"/> ⑨ 9급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전문계약직 공무원 경우) <input type="checkbox"/> ① 가급 <input type="checkbox"/> ② 나급 <input type="checkbox"/> ③ 다급 <input type="checkbox"/> ④ 라급 <input type="checkbox"/> ⑤ 마급
4) 근속기간	_____ 년
5) 현재부서 근속기간	_____ 년
6) 여성관련부서* 재임경험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 여성관련부서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보좌관, 여성복지과, 여성개발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등을 말함.

B. 성인지적 정책(性認知的 政策, Gender-Perspective Policies)의 이해도

1. 다음 용어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셨다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표해 주시고,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보기 중 선택하여 적어주십시오(인지 정도와 인지 경로는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만 표시).

항목	들어본 경험		인지정도					인지경로 아래 보기 중 선택하여 기입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혀 모름	② 거의 모름	③ 보통	④ 조금 알고있음	⑤ 잘 알고있음	
1)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의 차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성인지적 정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성분식(gender analysis) 양성평등분석(gender equality analysis)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nalysis)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보기 >								
① 관보나 서울시소식지를 통해서 ② 업무지침을 통해서 ③ 주변 사람들로부터 ④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해서 ⑤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⑥ 여성부 및 관련부서의 발간책자나 보고서를 통해서 ⑦ 인터넷을 통해서 ⑧ 기타								

<<용어설명>>

- * 성인지적 정책: 정책수립 및 집행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의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을 말함.
- * 성분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정책의 실천 수준을 파악하거나 측정하는 정책 평가 및 정책분석 방법을 말함.

2. 귀하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국가, 국제기구, 서울시의 다음과 같은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다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표해 주십시오.

항목	들어본 경험		인지 정도(들어보신 경우만 표시)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혀 모름	② 거의 모름	③ 보통	④ 조금 알고있음	⑤ 잘 알고있음
1) 여성발전기본법(1995)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1995)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UN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 비준(1984)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모든 중앙부처 여성정책책임관제도 / 6개 중앙부처 여성정책담당관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국제연맹 (IULA)의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 선언문'을 채택(2001)	①	②	①	②	③	④	⑤

C. 성인지적 정책 수행에 관한 의견

3. 과거 또는 현재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소속부서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있다(☞ 3.1.1로 ↓) ② 없다(☞ 3.2.1로)

(3번의 ① 응답자만)

3.1.1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실시한 시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분야나 주제를 중심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1.2 그렇다면 그 시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_____년

3.1.3 그 시책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성별통계의 작성과 활용 ② 전문가 자문 ③ 해외사례 참조
④ 유관기관의 협조 ⑤ 국내정책 참조
⑥ 부서의 내부지침 작성과 활용 ⑦ 기타(_____)

3.1.4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행한 것이, 그 시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 ① 전혀 효과가 없다 ② 효과가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효과적이다 ⑤ 매우 효과적이다

(3번의 ② 응답자만)

3.2.1 반영하지 않으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① 우리 부서의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② 방법을 잘 몰라서
③ 성인지적 정책에 대해 반대하므로 ④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⑤ 예산이나 인력 등의 자원이 부족해서 ⑥ 기타(_____)

4. 귀하의 소속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에 있는 시책사업 중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까?

- ① 있다(☞ 4.1.1로 ↓) ② 없다

(4번의 ① 응답자만)

4.1.1 있다면 어떤 시책입니까? _____

4.1.2 이 사업에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1.2-1로 ↓)

(4.1.2번의 ② 응답자만)

4.1.2-1. 서울시 분야별 시책에 성별영향을 고려할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① 시기 상조 ② 부서업무와 관계없음 ③ 남성 역차별 우려
④ 관련법이나 제도의 미비 ⑤ 인력부족 ⑥ 예산부족
⑦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⑧ 기타(_____)

5. 국가나 서울시의 일반시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일반시책 과정에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6. 서울시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할 경우,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 법/제도의 미비 ② 인력 부족 ③ 예산 부족
④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⑤ 리더의 의지부족 ⑥ 유관기관 협조부족
⑦ 기타(_____)

7. 시책에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 및 타부서가 도움을 준다면, 어떤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정책입안단계 ② 정책결정단계 ③ 정책집행단계
④ 정책점검 및 평가단계 ⑤ 기타(_____)

8. 다음은 귀 부서의 시책 추진과정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조건을 열거한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자원이나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있는지 각 항목별로 현황을 평가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필요성					현황				
	①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매우 필요	①매우 부족	② 부족	③ 보통	④ 충분	⑤매우 충분
1) 성별통계 자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자문 가능한 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관련 법률 구비 및 제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성별영향평가 정책지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성별영향평가 정책지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국내 및 해외 관련사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예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상급자의 이해와 실행의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유관기관간의 협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현재 서울시 부서입니다. 각 부서별로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적용 정도				
	① 전혀 적용할 수 없다	② 거의 적용할 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적용 가능하다	⑤ 매우 적용 가능하다
1) 언론담당관	①	②	③	④	⑤
2) 홍보기획관	①	②	③	④	⑤
3) 감사관	①	②	③	④	⑤
4) 비상기획관	①	②	③	④	⑤
5) 정보화기획단	①	②	③	④	⑤
6) 경영기획실	①	②	③	④	⑤
7) 행정국	①	②	③	④	⑤
8) 재무국	①	②	③	④	⑤
9) 복지여성국	①	②	③	④	⑤
10) 산업국	①	②	③	④	⑤
11) 문화국	①	②	③	④	⑤
12) 환경국	①	②	③	④	⑤
13) 교통국	①	②	③	④	⑤
14) 청계천복원추진본부	①	②	③	④	⑤
15) 기술심사담당관	①	②	③	④	⑤
16) 도시계획국	①	②	③	④	⑤
17) 건설기획국	①	②	③	④	⑤
18) 주택국	①	②	③	④	⑤
19) 소방방재본부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시책 추진과정에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업무상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10.1로 ↓) ② 아니오

(10번의 ① 응답자만)

10.1 귀하가 받으신 교육 및 훈련은 어디서 주관한 것이었습니까? _____

10.2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1.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서울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체 공무원에게 필수과정으로
 ②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③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우선적으로
 ④ 고위직급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⑤ 기타(_____)

D. 성별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의견

12. 심사평가제도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 집행, 분석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한다(☞ 12.1로↓) ② 반대한다(☞ 12.1로↓) ③ 그저 그렇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12번의 ①, ② 응답자만)

12-1.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업무가 과중해지므로 ②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③ 시기상조이므로 ④ 성별영향 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⑤ 기타(_____)

13. 만약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면, 도입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년부터 ② 2~3년 후 ③ 4~5년 후 ④ 6~10년 후 ⑤ 11년 이후
14. 만약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면, 다음 중 평가주체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누구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부서별 자체평가 ② 여성정책담당부서 ③ 외부전문가
④ 시민단체 ⑤ 일반시민(남성과 여성) ⑥ 기타(_____)
15. 서울시 시책추진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면, 다음 각 항목별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효과정도				
	① 전혀 효과가 없다	② 거의 효과가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효과적이다	⑤ 매우 효과적이다
1) 정책의 효율성	①	②	③	④	⑤
2) 정책의 효과성	①	②	③	④	⑤
3) 정책의 형평성	①	②	③	④	⑤
4) 성인지적 정책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5) 양성평등사회에 기여	①	②	③	④	⑤
6) 여성의 삶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7) 남성의 삶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 다음 빈칸에 이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 바쁘신 중에도 저희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서울시대안학교재학생 설문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서울시 만들기를 위해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서울시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와 관련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의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2) 출생연도	19__년
3) 학교를 그만둔 시점	<input type="checkbox"/> ① 중 1 <input type="checkbox"/> ② 중 2 <input type="checkbox"/> ③ 중 3 <input type="checkbox"/> ④ 고 1 <input type="checkbox"/> ⑤ 고 2 <input type="checkbox"/> ⑥ 고 3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4) 대안학교를 다닌 기간	_____개월
5) 함께 살고있는 사람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②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③ 형제나 자매 <input type="checkbox"/> ④ 할아버지나 할머니 <input type="checkbox"/> ⑤ 친척 <input type="checkbox"/> ⑥ 친구 <input type="checkbox"/> ⑦ 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⑧ 혼자 산다

1. 이전에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집안문제로 가출을 해서(가정내 불화, 부모님과의 문제 등)
- ② 집안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 ③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교과과정에 대한 불만, 수업에 흥미없음 등)
- ④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교사나 친구와의 문제, 학원내 폭력 등)
- ⑤ 교칙위반 등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 ⑥ 기타(_____)

2. 다음은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았음	② 그렇지 않았음	③ 보통	④ 조금 그랬음	⑤ 매우 그랬음
1) 나는 학교를 그만둔 후 곧 하고 싶거나 해야할 일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를 그만두면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교를 그만둘 때 이것 때문에 내 장래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민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대안학교에 대한 의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1) 나는 대안학교가 없었다면 다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심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4) 대안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안학교가 청소년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바쁘신 중에도 저희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공무원대상 조사결과표

<부록표 3-1>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직급별				
5급 이상	73.1	26.9	100.0(283)	7.229*
6급 이하	63.6	36.4	100.0(456)	
전체	67.3	32.7	100.0(739)	
여성관련부서 재임경험별				
있음	84.9	15.1	100.0 (73)	11.557***
없음	65.2	34.8	100.0(653)	
전체	67.2	32.8	100.0(726)	

***p < .001, **p < .01, *p < .05

<부록표 3-2> '성인지적 정책'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직급별				
5급 이상	37.1	62.9	100.0(283)	12.135***
6급 이하	25.1	74.9	100.0(455)	
전체	29.7	70.3	100.0(738)	
학력별				
고졸 이하	24.7	75.3	100.0 (93)	15.082**
2년제대재/졸	29.3	70.7	100.0 (41)	
대재/졸	25.6	74.4	100.0(395)	
대학원재/졸	40.2	59.8	100.0(204)	
전체	29.7	70.3	100.0(733)	
여성관련부서 재임경험별				
있음	53.4	46.6	100.0 (73)	21.058***
없음	27.5	72.5	100.0(652)	
전체	30.1	69.9	100.0(725)	

***p < .001, **p < .01

<부록표 3-3> '성별영향평가, 성 분석, 양성평등분석'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직급별				
5급 이상	42.4	57.6	100.0(283)	5.453*
6급 이하	33.8	66.2	100.0(452)	
전체	37.1	62.9	100.0(735)	
학력별				
고졸 이하	38.0	62.0	100.0 (92)	12.761**
2년제대재/졸	24.4	75.6	100.0 (41)	
대재/졸	33.2	66.8	100.0(394)	
대학원재/졸	46.3	53.7	100.0(203)	
전체	37.0	63.0	100.0(730)	
여성관련부서 재임경험별				
있음	63.0	37.0	100.0 (73)	22.765***
없음	34.5	65.5	100.0(649)	
전체	37.4	62.6	100.0(722)	
교육경험별				
있음	55.6	44.4	100.0 (81)	13.005***
없음	35.0	65.0	100.0(654)	
전체	37.3	62.7	100.0(735)	

***p < .001, **p < .01, *p < .05

<부록표 3-4>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추진 시기

(단위: 명, %)

시기	1990년 이전	1991~ 1995년	1996~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빈도	7	5	31	11	7	2	63
백분율	11.1	7.9	49.2	17.5	11.1	3.2	100.0

<부록표 3-5> 성별영향을 고려할 때 사용한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75	100.0
성별통계의 작성과 활용	23	30.7
전문가 자문	23	30.7
해외사례 참조	12	16.0
유관기관의 협조	26	34.7
국내정책 참조	18	24.0
부서의 내부지침의 작성과 활용	35	46.7
기타	8	10.7

주1: 빈도는 항목별로 표시한 경우만 계수한 것이고, 백분율은 응답자 전체 75명에 대한 비율임.

주2: 무응답 3명 제외하였음.

<부록표 3-6> 직급에 따른 성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시책 유무

(단위: %, 명)

구분	5급 이상			6급 이하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있다	12.9	43.8	14.6	5.3	8.2	6.5
없다	87.1	56.2	85.4	94.7	91.8	9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64)	(16)	(280)	(265)	(182)	(447)
χ^2	11.503***			1.557		

***p < .001

<부록표 3-7>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시기 상조	1.6	-	1.5
부서업무와 관계없음	75.5	60.5	74.3
남성 역차별 우려	5.1	-	4.7
관련 법이나 제도의 미비	4.0	5.3	4.1
인력 부족	2.5	7.9	2.9
예산 부족	0.2	2.6	0.4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7.3	13.2	7.8
기타	3.8	10.5	4.3
계	100.0	100.0	100.0
(명)	(449)	(38)	(487)

주: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χ^2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음.

<부록표 3-8> 시책추진과정에서 자원의 구비 현황에 대한 평균비교

구분	전체	1차조사	2차조사	T값
성별통계 자료	2.56	2.56	2.54	0.161
자문 가능한 전문가	2.34	2.35	2.15	1.812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2.32	2.32	2.27	0.506
관련 법률 구비 및 제정	2.39	2.40	2.29	1.023
성별영향평가 정책지침	2.28	2.29	2.18	1.082
성별영향평가 정책지표	2.29	2.29	2.23	0.576
국내 및 해외 관련 사례	2.26	2.27	2.13	1.389
예산 지원	2.29	2.30	2.13	1.610
상급자의 이해와 실행의지	2.42	2.43	2.29	1.199
유관기관간의 협조	2.38	2.38	2.36	0.163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	2.41	2.43	2.20	2.149*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2.36	2.36	2.27	0.861

주: 5점척도(1: 매우 부족,,,5: 매우 충분)

*p < .05

<부록표 3-9> 교육 및 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전체
전체 공무원에게 필수과정으로	16.6	33.3	18.0
성별영향을 고려한 시책도입이 시급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55.9	46.7	55.0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우선적으로	13.0	5.0	12.4
고위직급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13.0	15.0	13.2
기타	1.5	-	1.4
계 (명)	100.0 (668)	100.0 (60)	100.0 (728)

$\chi^2 = 13.319^{**}$, $**p < .01$

<부록표 3-10>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업무가 과중해지므로	25	15.2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65	39.4
시기상조이므로	25	15.2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13	7.8
평가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	11.5
기타	18	10.9
계	165	100.0

부록 4 대안학교재 학생 조사결과표

<부록표 4-1> 성별 학교를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집안문제로 가출을 해서	5.3	6.5	5.9
집안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4.3	2.2	3.2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35.1	35.8	35.5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41.5	32.6	37.1
교칙위반 등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6.4	10.9	8.6
기타	7.4	12.0	9.7
계	100.0	100.0	100.0
(명)	(94)	(92)	(186)

$\chi^2 = 3.799$

<부록표 4-2> 재학기간별 학교를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구분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전체
집안문제로 가출을 해서	5.1	7.6	6.2
집안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4.1	2.5	3.4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27.6	45.6	35.6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42.8	30.4	37.3
교칙위반 등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12.2	2.5	7.9
기타	8.2	11.4	9.6
계	100.0	100.0	100.0
(명)	(98)	(79)	(177)

$\chi^2 = 12.256^*$, *p < .05

<부록표 4-3> 재학기간별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의 상황

구분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T값
나는 학교를 그만둔 후 곧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이 생겼다	3.60	3.39	3.79	-2.020*
학교를 그만두면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하다	2.85	2.84	2.85	- .067
나는 학교를 그만둘 때 이것 때문에 내 장래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민을 했다	2.78	2.87	2.64	1.079

주: 5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았음,,,5: 매우 그랬음)

*p < .05

<부록표 4-4> 성 통제시 기간별 '나는 학교를 그만둔 후 곧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이 생겼다'에 대한 의견

구분	남성			여성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전체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평균	3.54	3.45	3.63	3.66	3.32	3.93
T값	- .661			-2.105*		

주: 5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았음,,,5: 매우 그랬음)

*p < .05

<부록표 4-5> 성별 '나는 학교를 그만둘 때 이것 때문에 내 장래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민을 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전혀 그렇지 않았음	32.0	19.6	25.9
그렇지 않았음	12.4	30.5	21.2
보통	14.4	13.0	13.8
조금 그랬음	29.9	23.9	27.0
매우 그랬음	11.3	13.0	12.2
계	100.0	100.0	100.0
(명)	(97)	(92)	(189)

$\chi^2 = 10.882^*$, *p < .05

<부록표 4-6> 재학기간 통제시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성별 비교

구분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평균	4.39	4.16	4.68	4.58	4.39	4.74
T값	-2.964**			-2.215*		

주: 5점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5: 매우 동의함)

**p < .01, *p < .05

Abstract

Gender-sensitive policies can be defined as those designed to heighten gender equity and equality in policy-making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varied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as well as differences, between genders. This definition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demands placed on men and women's lives within society are different, and as such, so are their experiences. While many different factors, such as social status, location, and ag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formulating a policy, a gender-sensitive policy has as its objective the improvement of the equ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ies, by including the issue of gender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concept of gender-sensitive policies has become accepted worldwide as an important strategy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democracy, and a gender equal society.

To introduce gender-sensitive policies within more general ones, four condition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need to be put into pla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at can take the lead in instituting gender-sensitive policies need to be established, gender segregation statistics as well as a database of research materials, need to be set up, government officials' gender awareness must be raised, and a gender impact evaluation must be established.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o establish the above-mentioned administrative environment conditions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order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gender-sensitive policies.

To attain these objectives, four different studies were carried out:

First, theoretical studies related to various aspects of gender-sensitive policies, such as, their development, necessity, and expected effects were carried out, along with research on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environment conditions to establish gender-sensitive policies.

Second, the particular administrative conditions needed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implement gender-sensitive policies were analyzed. In addition, a

surve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ascertain government officials' level of gender awareness.

Third, a gender impact evaluation framework was developed in order to evaluate the polic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ditionally, applying the gender impact evaluation framework mentioned above, a gender impact evaluation of the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was carried out.

Fourth, this paper suggested a policy strategy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environment conditions to bring about gender-sensitive policies by focusing on four measures: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required to develop the administrative conditions needed to create gender-sensitive policies, the creation of a database of gender statistics and research material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ducation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government officials' gender aware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a gender impact evaluation system.

The following methods were used:

First, research of related literature was conducted for the theoretical study and a search of materials on the Internet was carried out in order to analyze overseas case studies.

Second, in order to analyze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conditions needed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establish gender-sensitive policies, administrative materials were perused, and a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was carried out.

Third, conferences with specialists were held in order to develop a gender impact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urth, in order to implement the gender impact evaluation of the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interviews and conferences were carried out with government officials from the Sports & Youth Division, managers of the Seoul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and teachers from alternative schools. In addition, a survey of students from 10 alternative schools was conducted so as to evaluate performances of this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A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government officials' level of gender awareness and their interest in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also to collect opinions on the gender impact evaluation. As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 of gender awarenes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formulation of gender-sensitive policies, 700 officials from Seoul City Hall and 72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a gender equality education program offered by the Seoul City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of the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overnment officials' awareness of gender-sensitive policies was quite low. Only 29.6% answered that they have heard the term gender-sensitive policies. In addition, the level of gender-sensitive related institutions and laws were also found to be very low.

Second, 10.6% of government officials had experienced the execution of policies considered to have had a gender impact. Female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of the 5th level or higher reported having had more experience executing policy projects than male government officials of the same level.

Third, 62.8% of government officials answered that gender impact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regular policies. Female government officials and younger individuals were more prone to answer that gender impact should always be considered.

Fourth, only 5% of government officials received gender impact relat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ifth,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a gender impact evaluation system, 30.7% of government officials were in favor of such a move, while 23.9% were against it. Male officials and older participants tended to raise more objec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such a system. When asked about when such a gender impact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32.1% answered within 2-3 years while 30.4% answered within 4-5 years.

The implications for policy garnered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government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concepts and laws related to gender-sensitive polic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llect case studies of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to conduct basic studies on the effects of a gender impact evaluation on policies; both of which can be used by government officials while implementing their work dutie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 gender impact evaluation of the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offer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study developed a gender impact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mposed of 12 evaluation indicators. The results of the gender impact evaluation conducted on the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offer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gender impact was not given proper consideration during the drafting, decision to carry out, and execution of the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However, the program helped improve the ability of both genders to participate in society, and with regards to the performance of the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to spread gender equality. However, many teenage girls were unable to study because they were either pregnant or had a baby, or because they were engaged in prostitution. As su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eenage girl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have been sugges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ability to implement gender-sensitive policies:

First, with regards to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 the provisions of the gender impact evalu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ic Ordinance for Seoul Woman in Development](#). ii) Gender-sensitive item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formance budgeting and policy evaluation system. iii) A support team for gender-sensitive policies should be organized. iv) Experience in the Women's Policy Divis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career path.

Second, with regard to the database of gender statistics and research materials, i) the contents of the gender statistics found in the Seoul women white paper, which was published by the Women's Policy Division, should be strengthened. ii) Basic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gender impact evaluation of th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basic research, educational guidebooks geared towards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published.

Third, the establishment of gender-aware policies for official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be entrusted to special organizations, as should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s used in the gender impact evaluation. The results should be included in the equality education programs offered to government officials. In addition, special education courses on gender-awar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male officials of the 5th level or higher as well as for officials from the Women's Policy Division.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 necessity and objectives of the research
2. Nature of the research and methods employed
3. Definition of terms

Chapter 2. Development of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desirable administrative environment

1.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expected effects
2. Administrative conditions conducive to the implementation of gender-sensitive policies
3. Types of gender impact evaluation frameworks

Chapter 3. Stat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dministrative conditions with regards to gender-sensitive policies

1.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2. Construction of gender statistics
3. Education and training of government officials
4. Budget for gender-sensitive policies

Chapter 4. Gender impact evalu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ies

1. Basic steps in the composition of a gender impact evaluation
2. Composition of a gender impact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3. Case study of a gender impact evaluation on alternative education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4. The results of the gender impact evaluation and policy suggestions

Chapter 5. Policy suggestions

- 1.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 2.Creation of database for gender statistics and research materials
- 3.Increase in the number of education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government officials' gender awareness
- 4.Establishment of a desirable system to implement the gender impact evaluation

시정연 2003-R-25

**서울시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발행인	백용호
발행일	2003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57 FAX:(02) 2149-1289

ISBN 89-8052-307-6-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